# 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45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8월 19일(음력 6월 30일) 수요일(주간)


사람

유안진 시인

## "불교와 시는 미소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유안진 시인.

'지란지교(芝蘭之交)를 꿈꾸며'의 시인 유안진. 시인은 지금도 그 꿈을 꾸고 있을까? 시인은 개인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지란지교를 열망하고 있다. 하염없이 시를 쓰고 시로 보고 시로 느끼고 시로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코앞'에 칠순의 나이를 두고도 난초 같다. 2009년 만해축전에서 유심문학상을 수상한 시인은 붉은 석류차를 마시며 "안 쓰면 쓰고 싶고 쓰면 더욱 쓰고 싶은 게 시"라고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23세)에 시인이 되어 지금까지 시인의 길을 걸어 왔다. 다른 길에 대한 궁금증이 발동되기도 했지만 이 길에서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정말 행복해 보였다. 만면에 난초향기가 서린 듯.

### 만해의 열린 생각으로 사회 통합 이루어져야

"지금 시를 정의 한다면?" 하고 여쭈었더니 즉답이 날아 왔다. "ㄴ 받침 하나가 모자라 신이 못된 것이 시"라고. 그리고 "시의 길과 불교의 길은 다르지 않다"며 "시와 불교와 자연이 합일 되어야 평화에 이른다"고 결론 지었다. 시인은 역대 선사들이 남긴 게송과 시들이 모두 그 경지를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읽고 있다.

시인은 가톨릭 신자다. 그러나 불교를 좋아한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자들의 걸림 없는 생각들, 그리고 항상 열려 있는 문을 좋아한다. 시인은 불교를 '미소의 종교'라고 정의 한다. 저 백제금동미륵반가사유상의 미소야말로 내면이 고요하고 아름다운 경지에서만 드러낼 수 있는 미소이기에 불교의 궁극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다. 시의 궁극도 거기에 있기에 불교는 문학을 종교적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고 말했다.

시인의 만해(萬海)에 대한 존경심도 남다르다. "대립 일변도의 사회를 통합하고 선순환 시키기 위해서는 만해 스님의 열려있는 생각이 절실하다"는 시인은 "만해축전만큼 열려 있고 열정적이고 깊은 사색과 학문적 열의가 있는 축제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인은 앞으로 우리 민족이 살아 온 삶의 궤적 속에서 새로운 삶의 원형질을 찾아내는 일에 더욱 몰두하고자 한다. 서울대학을 퇴직 하면서 시작하려 했던 일인데, 벌써 3년이 지나버렸다. 그나마 최근 시집 <알고(考)>를 내고 안도했다.

임연태 기자

# 이토록 선명한 '독립염원'을…

## 진관사 칠성각 해체복원 현장서 독립운동 사료 6종 17점 나와

1919년 12월, 독립운동 활동을 하던 백초월 스님(1878~1944)을 검거하기 위해 일본 순사가 서울 진관사로 들이닥쳤다. 스님은 순사에게 잡혀가기 전 진관사 칠성각 불단 뒤에 한지로 싼 보따리 하나를 급히 숨겼다.

그로부터 90년이 지난 2009년 5월 26일, 진관사 칠성각(서울시 문화재 제33호) 해체복원 불사 현장을 지휘하던 진관사 총무 법해 스님은 불단과 기둥사이 벽면에서 흰 한지 뭉치를 발견했다. 범상치 않은 발견에 스님은 주지스님에게 사실을 알렸다.

물건을 대중방으로 옮긴 후 조심스레 펼쳐 본 주지스님과 대중스님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지 속에는 곱게 접힌 태극기와 <독립신문> <신대한신문> 등 인쇄물이 다수 있었던 것. 초월 스님이 숨겨둔 뭉치였다.

서울 진관사(주지 계호)는 8월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칠성각 해체복원 과정에서 발견된 태극기 및 독립운동 사료 6종 17점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독립운동 사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 단체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극기 1점을 비롯해 <신대한> 3점, <독립신문> 2종 4점, <조선독립신문> 5점, <자유신종보> 3점, 경고문 1점이다. 태극기는 세로무늬의 태극과 4괘 덧붙임식 태극 제작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덧붙임식 태극은 1900년대를 전후해 태극기 제작 양식이 규정되기 이전에 사용된 방식이다.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연구소 김용달 연구위원은 "제작 방식으로 볼 때, 1919년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크기로 볼 때 3 · 1운동 등 시위보다는 단체용으로 사용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극기와 함께 보관됐던 사료 가운데에는 단재 신채호가 중국 상해에서 창간한 <신대한> 신문과 독립운동세력이 발간해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한 <자유신종보> 등 국내에서는 처음 공개되는 자료가 많다.

독립운동연구소 김주용 박사는 "창간호와 제17, 18호만 중국에 있고 국내에는 필사본으로 보관된 <신대한> 신문의 제1 · 2 · 3호가 함께 발견된 것은 독립운동사 연구에 큰 의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발견된 독립운동 사료를 조사한 동국대 문명대 교수 등 연구자들은 "이번에 발견된 자료는 불교계와 진관사, 독립운동을 전개한 스님들이 3 · 1운동 당시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과정에서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음을 추정케 한다"고 설명했다.

계호 스님은 "독립운동 당시 사용된 태극기 등의 발견으로 진관사가 근현대 격변기에도 중요 위치를 차지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발견된 유물 보존과 복원을 비롯해 학술세미나 개최를 통한 학술적 조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조동섭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맨 오른쪽)이 칠성각 해체복원 불사과정에서 발견된 태극기등 독립운동 사료를 설명하는 모습(위), 발견 당시 태극기에 쌓여 있던 독립운동 사료들(아래).

### 금주의 Hot


지명 스님
12선지식


오시환
08불자들


시린 에바디
23강의실

社告 라오스 공생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한

## 희망Dream 꿈 드림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와 현대불교신문사는 '공생청소년센터(GoodHands YouthCenter Laos)' 후원 캠페인 '희망Dream 꿈드림'을 전개합니다. 라오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세요.

- 주 최 : (사)지구촌공생회, 현대불교신문사
- 주 관 : (사)지구촌공생회
- 기 간 : 2009년 5월 13일 ~ 8월 3개월간
- 모 금 액 : 3000만원 목표(1구좌 1만원)
- 후원계좌 : 농협) 170341-51-015696 (사)지구촌공생회
- 문 의 : 지구촌공생회 02)455-9596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00

법구경

집 짓는 이는 나무를 잘 다듬고
현명한 이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다.


현대불교e장터 HyunbulShop.com
문의전화 02)2004-8215~6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02)3672-7181~5
불교서적총판
운 주 사

〈PR〉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복장의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실물크기(3.5×5cm) 금강경 23매
용도 : 상량식, 봉사 복장의식, 영가천도
문의 02)722-1850

문젠 명상 센터
선 / 명상 / 요가
임산부 요가
02-956-2460


열대과일 두리안 전문
찻다원
보이茶, 각종 茶器 생활 도자기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 주름등 · 중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 공단등 · 오색공단등 · 영가등 · 종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 팔각봉축접등 · 종등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죽비와 목탁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 ‘신도품계’ 이게 뭔 소리?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불교계가 그랬다. 그동안 불교계는 체계적인 신도조직에 대한 중요성도, 필요성도 인지하기 못했다. 조계종만해도 1994년 종단개혁 이후 3원 체제를 통해 포교원이 들어선 후에야 효율적인 포교와 신도 교육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웃종교의 조직적인 신도활동에 자극 받은 까닭도 컸다.

조계종 포교원이 신도조직화와 신도기본교육을 통한 신도 양성사업을 시작한 것은 1999년. 사업진행 후 만 10년이 흘렀지만 기본교육부터 지도자교육까지 일관된 체계는 마련되지 못했고, 신도교육과 관련된 신도법들은 시행이 중단되는 등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그랬던 포교원이 얼마 전 2009년 종단 핵심사업으로 ‘신도의 등록 및 교육 등 신도종책 개선사업’에서 신도품계제도까지 발표했다.

신도품계제도는 신도등록부터 지도자교육 등 단계별 교육과 신행 경력에 따라 신도들을 ‘발심(發心)’ ‘행도(行道)’ ‘부동(不動)’ ‘선혜(善慧)’등의 품계지위로 나누는 제도다.

포교원 신도국은 “단계별 교육과 신행이력을 바탕으로 신도품계를 품수함으로써 신도위의를 갖춤은 물론 신도간 위계 또한 정립해 신행활동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도 품계지위에 따라 휘장과 배지 등의 전달로 자긍심을 부여하면 종단 신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현재 신도조직의 근간인 신도회의 회장 · 부회장 · 총무 · 평신도 등 전통적인 관료제와도 별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10여 년 간 조계종 등록 신도수는 40여만 명. 신도증에 혜택을 듬뿍 담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나서야 신도등록수가 늘기 시작한 요즘이다. 서열을 메기지 않아도 동참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도 등록의 문턱만 높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계급제인 카스트(Caste)제도 등 차별에 맞서 출가수행을 했다. 부처님이 염화미소 등으로 심인(心印)을 전한 것은 서열과 위계가 아니었다. 행자였던 육조혜능 스님이 수제자였던 신수 스님을 제치고 오조홍인 스님에게 의발을 전해 받은 것도 마찬가지다.

2500여 년 불교사 속에서 부처님 말씀을 담은 경전도 사자전승의 순서를 매기지 않았다. 하물며 조계종 포교원의 종책에 신도의 서열을 매길 권리와 안목이 있을까.

# 인준·결산 등 ‘하룻만에 속전속결’

## 조계종 중앙종회 181회 임시회 개최…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추대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가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인준 등 인사건과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 등을 처리하고 하루 만에 폐회했다.

중앙종회(의장 보선)는 8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81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재적 81명 중 62명이 출석한 종회에서는 2008년 중앙종무기관 결산 승인을 비롯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멸빈자 재심사를 위한 제도개혁 특별조치위원회 구성의 건 등 전회 이월 안건이 다뤄졌다.

종회의장 보선 스님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중앙종회는 종헌종법 개정 외 종단의 새로운 수장을 선출해야할 막중한 일정이 잡혀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 #총무원장 재임설 일축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2달 여 남은 임기 동안 할 일은 후임 총무원장 선출과정을 여법하게 관리하는 것”이라 말해 잔여임기 동안 총무원장 선거 감독에 치중할 것을 밝히며, 끊임없이 제기되던 총무원장 재임설을 일축했다.

### #예산안 · 결산 등 통과

처음 상정된 ‘불기2552(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통과과정에서 건립중인 전법회관을 두고 예산전용에 대한 범해 스님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의장스님이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은 범해 스님의 문제제기를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승인하자”고 제안해 원안대로 통과됐다.

### #교역직 특별구족계 참여 논란

이날 종회 개회 직후 안건조정 과정에서 ‘2009년 특별구족계 시행 중지 촉구의 건’이 긴급 상정돼 격론 끝에 철회되는 헤프닝도 벌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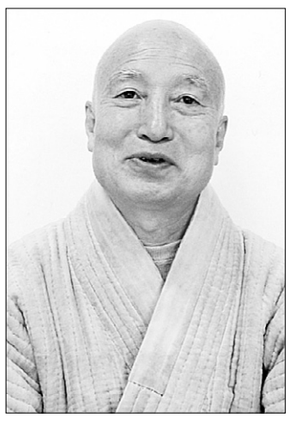
같은 날 양산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실시한 특별구족계의 참가자 55명 가운데 현직 종회의원과 부장급 교역직 종무원 등 3인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안건을 두고 장시간 격론이 오갔지만, △특별구족계를 신청한 스님 3인에게 신청철회를 촉구하고, △호법분과위에서 해당 종회의원스님의 자격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종헌 종법특위에서 관련법을 보완하는 것으로 ‘특별구족계 시행 중지 촉구의 건’은 결국 철회됐다.

### #인사건 모두 인준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인준의 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등 인사건은 모두 인준됐다.

덕숭총림 방장 인준을 받은 설정 스님은 1942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나 1955년 13세 수덕사에서 원담 스님을 은사로 동진출가 했다. 해인사 강원을 마치고 범어사 선방 등에서 수행했다. 수덕사 주지, 조계종 개혁회의 법제위원장, 제11대 중앙종회 의장 등을 역임하는 등 수행과 종무행정, 포교에 두루 능통해 지난 4월 산중총회에서 방장으로 추대되고 중앙종회 인준만을 남겨뒀었다.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출의 건’과 관련해 임기만료된 진기 · 범여 스님 후임에는 각각 무공 · 선광 스님의 선출과 적광 스님의 재선출이 통과됐다.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선출의 건’은 성직 스님 후임으로 성효 스님과, 법안 스님 후임으로 승언 스님 선출이 인준됐다.

‘재심호계위원 선출의 건’에는 임기만료된 세민 스님의 재선출이 통과됐다.

‘법규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과 관련해 천제 스님 후임으로 경선 스님이 선출됐다.

‘흥천사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에는 흥천사 주지 혜일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학교법인 동국대 감사후보 추천 동의의 건’에는 성월 스님 후임으로 진만 · 일문 스님의 추천이 동의됐다.

### #멸빈자 재심사 특위 구성

원로의원스님들의 관심이 컸던 멸빈자 사면 복권건은 보인 스님 등 다수의 스님들이 “원로의원스님들 뜻을 받들어 멸빈자 재심사를 위한 제도개혁 특별조치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해 특위 구성이 통과됐다.

‘승랍기산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국가 및 지자체 등에 기부체납한 사찰의 종단환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선거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모두 통과됐다.

하지만 총무원측이 제출한 ‘불기2553(2009)년도 사면, 경감, 복권 동의의 건’은 투표결과 찬성 16표, 반대 36표로 부결됐다.

한편, 이번 회기 주요안건으로 예정됐던 혜남 스님(통도사 율원 율주)의 교육원장 선출의 건은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7일 철회요청서를 중앙종회사무처에 제출해 안건에서 제외됐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불교계 보안 시급

## 조계사 전산망 해킹

최근 D-DOS 공격에 의한 국가 주요 사이트 마비 등 전산보안에 대한 관심이 몰린 가운데 서울 조계사 전산망이 해킹되는 등 불교계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 조계사와 IDC센터 가비아 등에 따르면 조계사 내부시스템이 7월 초 해킹을 당해 4시간 가량 홈페이지 접속이 차단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불교계에서 내부시스템에 해커가 침입한 것은 이례적으로 내부시스템 중 종무행정프로그램 ‘넘스’에는 10만 여 조계사 신도의 주소와 생년월일, 기도비용 기록 등의 정보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사는 8월 11일 “신도정보유출은 없었으며, 현재 보안단계를 높이고 특정IP만 접속할 수 있도록 보안강화조치를 취했다. 또 추가 공격에 대비, 기존 자료의 백업을 보다 짧게 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계에서는 해커가 침입기록을 모두 삭제해 자료 유출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고, 재침입을 위한 소스를 남겨두었을 가능성을 들고 있다.

관련전문가들은 “특히 핵심정보를 담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 전산시스템의 경우 인사, 회계 등 17개 종무프로그램,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종무원이 2명에 불과하다”며 “본말사 실정은 더욱 심각하다. 종단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전산보안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특정종교 등 불교 음해세력의 소행일 것이라는 추측도 내놓고 있다. 노덕현 기자

#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전격 사임

## 9월 7일 차기 총무원장 선출



태고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월운 스님(왼쪽)과 인공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전격 사임했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인공)는 8월 11일 총본산 봉원사에서 제98회 임시중앙종회를 열어 총무원장 운산 스님의 사표를 수리하고 종무인수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직무대행체제를 출범시키고 9월 7일 개최하는 중앙종회에서 차기 총무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무원장직무대행에는 중앙종회의장 인공 스님과 중앙사정원장 월운 스님이 공동으로 선임됐다. 또 총무원 종무인수위원회는 중앙종회 부의장 대은 스님(인천교구종무원장) 등 총 35명으로 구성됐다. 중앙종회는 또 행정부원장 지홍 스님 이하 부장 및 실장, 중앙선관위원장 일운 스님의 본회의 추인반대를 결의했다.

총무원장권한대행 인공 스님과 월운 스님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지덕을 갖춘 후임 총무원장을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글=김성우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범어사 일제 잔재 청산 작업 들어가**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가 일제에 의해 왜곡된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8월 13일 오전 범어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주지 정여 스님 등이 보물 제250호인 3층 석탑의 원형을 복구하기 위해 일본식 난간석을 해체하고, 조선총독부 표지석을 제거했다. 범어사는 추후 일본양식의 보제루 및 경내 84m의 일본식 난간을 철거하고, 대웅전 석축 화단의 금송 세 그루를 들어내는 등 일제가 바꿔놓은 가람 배치를 전통 양식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글 · 사진=박지원 기자

현대불교로 최상의 공양 法보시를…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바르게 설하고 설명하고 고찰하며 바른 법을 온전히 지키는 법공양(法供養)이 가장 수승한 공양이라 하셨습니다. 한 장의 ‘현대불교’를 이웃과 어려운 이들에게 법보시하는 것은 다함께 깨닫는 세상을 만드는 형상 없는 불사(佛事)가 될 것입니다.

▶ 법보시 대상
군법당, 병원, 교도소, 각급 학교 및 공공 도서관, 관공서

▶ 법보시 후원 안내
법보시는 1구좌 1000원이상
월 구독료는 5000원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2004-8200



불교노인요양원 삼천사 · 인덕원이
어르신을 모십니다

불교전문노인요양원 인덕원이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맞춰 해동의 영산으로 불리는 북한산 자락에 기존 건물을 신개축하여 국내 최대의 300병상 규모와 최첨단 시설, one-stop 토탈케어서비스를 갖춘 노인요양종합복지타운을 세워 어르신을 모십니다.

인덕원은 분야별 전문교육과 불심을 두루 갖춘 150여 명의 전문 인력이 맞춤형 케어로 치매 ·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입소어르신을 부처님처럼, 내 부모님처럼 섬깁니다.

인덕원은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보살행으로 실천하여 어르신과 가족의 아픔은 나누고, 행복을 만드는 불교전문노인요양원입니다.

■입소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을 판정받으신 분

■입소문의 : 02)385-8205, 02)3156-7500

삼천사 ·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서울 은평구 진관동 250(은평뉴타운지역 내)
www.idw.or.kr

# 전통사찰 규제완화 후 '불사의 지혜' 절실

## 그린벨트 내 수목장 설치 허용 "사찰 청정성·수행환경 한 축 무너진 것" 평가 나와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의결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전통사찰 규제가 큰 폭으로 완화됐다.

**본지 제743호 보도**

법은 8월 7일부터 시행돼 보름여가 지났지만 벌써부터 교계 곳곳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신중한 접근과 종단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이 알려지자 개발제한구역을 이유로 전통사찰의 개·보수를 위한 증축과 진입로 개설 등에 어려움을 겪어온 불교계는 크게 환영했다.

조계종 대변인 장적 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이 국무회의 통과 이틀만인 지난 30일 "전통사찰 규제를 완화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논평을 낸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시행령은 전통사찰의 증축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국토해양부 장관이 협의하는 규모까지 가능케 하고, 증·개축시 부과되던 개발훼손부담금을 면제했다. 또, 진입도로가 없어 재난방지에 어려움을 겪던 전통사찰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불교계가 수없이 제기하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된 모습이다.

몇몇 개별사찰에서 무분별하게 진행될 지 모를 증축 및 진입로 신설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내 수목장 설치 허용 조항이다.

정부는 시행령에 제13조 1항을 신설해 개발구역내 사찰(종교단체)에서 수목장을 비롯한 봉안시설(봉안당, 봉안탑, 봉안묘) 등 장묘시설의 설치를 허용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구역 내 사찰은 3만㎡(9091평) 이내의 수목장 설치가 가능하고 봉안시설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5000구까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한 사찰의 수목장 풍경. <현대불교 자료사진>

사찰 소유 산림에 수목장이 들어서는 것에는 "대중에게 다가서는 미래불교를 위해 국가가 장려하는 친환경장묘법인 수목장을 불교계가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수행터전으로 청정해야 할 산중사찰에 수목장 등 장묘시설을 들여 영가 장사로 더럽혀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소수일 뿐, "이미 다수의 전통사찰이 개발제한구역에 묶이거나 자연공원법 규제를 받아 장묘시설 설치가 불가하지 않느냐"는 반박에 묻혀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특별법'과 '자연공원법'으로 사찰의 청정성과 수행환경을 지탱하던 한 축이 무너졌다는 평가도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번 법 개정은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의 공익적 가치가 반영된 결과"라며 "이번 법 개정을 시작으로 그동안 불교계를 이중 삼중으로 옭죄던 중첩규제를 하나하나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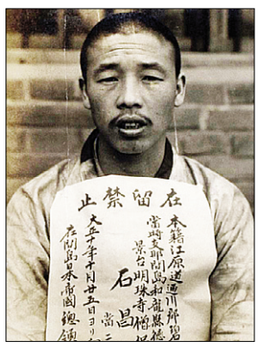
이를 두고 한 전문가는 "'전통사찰의 공익적 가치'라는 표현은 사찰에 수목장 등 장묘시설 설치를 허용한 조항을 두고 총무원과 정부간에 사전조율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며 "'전통사찰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고자 정부와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종단 내 장묘관련 정책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행환경 보존과 '삼보정재' 및 '가람수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불교계 독립운동 기록 발굴

## 국가보훈처, 日 외무성 보고서 분석 결과 발표



故 석창수 스님.

일제강점기 불교계 등 종교단체가 비밀결사체를 통해 만주지역 독립운동 군자금 모금 활동을 벌인 사실이 기록된 사료가 발굴됐다.

국가보훈처는 8월 13일 일본 외무성이 소장한 만주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에 대한 처분보고서들을 엮은 <만주지역 본방인 재류(체류)금지 관계잡건(本邦人在留禁止關係雜件)>을 분석한 결과, 만주지역 독립운동 단체들의 군자금 모금활동 전모가 파악됐다고 밝혔다.

만주지역 군자금 모금 실태는 대한국민회 북로군정서 등 일부 항일단체의 전투사를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학계에 알려져 왔으나, 이번 분석으로 단체와 직접 군자금 모금 활동을 했던 인물까지 밝혀지게 됐다.

자료에서 불교계 인물로 밝혀진 석창수 스님은 화룡현 명주사 스님으로 의군단에 투신해 탁발로 가장해 간도 지역을 돌며 군자금 모금에 나서다 체포돼 1921년 10월부터 1년간 재류금지된 것으로 기록됐다.

자료는 이 밖에도 천도교청년동맹회를 결성해 독립운동을 도왔던 오세환 이윤백 선생 등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만주지역 각 종교단체의 활동도 담고 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1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해 책으로 발간했다.

조동섭 기자

# "공직자 종교차별 엄정 처벌하라"

## 조계종 종평위 성명서 내고 정부 적극 대처 촉구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세영, 이하 종평위)는 8월 11일 성명서를 통해 문광부 종교차별신고센터의 공직자 종교차별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을 규탄하고, 관련법 개정 등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했다.

종평위는 "종교차별신고센터의 신고조치결과를 살펴보면 해당기관에 협조요청, 통보, 관리감독 강화 요청 등이 전부이며 처벌, 제재조치는 전무하다"며 "정부는 과연 종교차별 근절의지가 있는 것인지 종교중립 의무 법개정은 전시행정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종평위는 이어 "종교차별신고센터의 대응방식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종평위 접수사례 44건 중 대응사례는 28건으로 종교차별신고센터에서 진행된 사례조치도 29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해 관련 법이 개정됨에도 공직자 종교차별 행위가 늘어나는 근본원인이 처벌조항이 없는법조항에 있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종평위는 "처벌조항이 없는 관련 법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가 운영되는 것은 유명무실함을 자초한 것"이라며 "정부는 개정법에 처벌조항을 추가하고, 각종 홍보, 교육 등으로 사회통합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MB정부는 공직자 종교차별 등 종교편향으로 일어난 8·27범불교도대회 이후 불교계 요청을 받아들여 문광부에 종교차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어 진행된 공무원복무규정 개정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서 공직자의 종교차별행위 시 처벌 규정이 삭제되면서 관련 기관과 법조항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노덕현 기자

# JTS·민족돕기운동 정부지원대상 선정

북미관계 개선 등으로 정부 대북지원 재개가 검토되는 가운데 대북지원단체 정부지원대상으로 불교계 단체인 한국JTS(이사장 법륜)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공동대표 영담)이 선정됐다.

통일부(장관 현인택)는 8월 3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비롯한 10개 대북지원민간단체에 매칭펀드 형식으로 남북협력기금 약 35억 7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한국JTS는 취약계층 식량과 보건의료 지원 분야 등 대북인도적지원사업에 각각 5억 4000만원에서 5억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통일부는 이번 선정에서 영유아, 산모, 장애인 등 북한지역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노덕현 기자

# '다다가자 자연학교' 세 번 더

## 불교환경연대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개최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는 8월 14일 다문화가정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자연학습 프로그램 '다다가자 자연학교'를 개최했다.

2009년도 불교환경연대 교육사업인 '다다가자(다문화가정 친구들과, 다함께 가자, 자연 속으로) 자연학교'는 체험교육 분야에서 소외되기 쉬운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자연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참가 학생들은 태안 신두리 사구 탐방 캠프에서 '기름유출 흔적을 찾아라' 등으로 태안 기름유출 피해를 체험하고 모래와 조개로 만든 에코아트 등 생명살리기 문화행사에 동참가했다. 이번 첫 프로그램에 이어 9월 12일, 10월 10일, 11월 14일에도 환경캠프는 이어진다. 참가비는 1만5000원으로 30명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불교환경연대는 "자연과 어울려 서로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포용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이 될 것"이라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02)720-1654 노덕현 기자

# 문화재 선의취득 배제 '합헌'

## 헌법재판소 7일 전원 일치로 결정내려

중요지정 문화재나 도난 문화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구입했더라도 소유권을 인정해주지 않는 문화재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8월 7일, 문화재 매매상 A씨가 "민법상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은 문화재보호법 조항(제99조 4항)이 자신의 재산권과 직업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의취득' 배제 조항을 넣은 것은 국제화·전문화돼 가는 문화재 절도, 밀거래, 도굴 등의 문화재 범죄에 대응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문화재에 대한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민법은 '선의취득'이라 해 어떤 물건을 '선의'로 취득했을 경우 넘긴 사람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었어도 소유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한편, 문화재보호법은 제99조 4항에서 △지정 또는 도난 문화재, △출처를 알 수 있는 부분을 일부러 훼손한 문화재의 거래시 민법의 선의취득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조동섭 기자

# 옥천불교연합신도회 창립된다

## 9월 18일 창립법회… 박영학씨 회장으로

옥천불교연합신도회가 창립된다.

옥천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철, 대성사 주지)는 8월 13일 옥천 진달래가든에서 추진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모임을 갖고 옥천불교연합신도회를 창립하기로 결의했다.

옥천불교사암련은 9월 18일 오후 2시에 옥천 관성회관에서 회원 200명으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회장에 박영학씨를 선출했다.

박영학 옥천불교연합신도회 신임 회장은 "회장의 소임을 맡아 심부름꾼 역할을 하면서 옥천군 최고의 봉사단체로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옥천경찰서불자회 경불회(회장 전동호)와 옥천불교연합청년회(회장 전수하)를 창립한 바 있는 옥천불교사암련 빠른 시일내에 옥천군청불자회도 창립할 계획이다. (011)455-2652 혜철 충청지사장


# 무혈,무통,무약,무수술!! 세계최강 최고수 活人秘法 전수교육



[장한빛 仙師]
독일 East West Alternative
메디컬센터 특수침술교육
암등 난치병 공동연구
중국연변대학교 중의학원 객좌교수
동아대학교 대체의학 최고위과정 교수역임
애타게 찾았던 숨은 명의 50인 선정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 특별강연
"암 정복의 길이 보인다"
"아, 이제 나는 살았구나!" 등 7권의 건강서적 집필

## 전수교육 수료자 체험사례

신문 광고를 보고 이것은 가짜 아니면 진짜일수가 있다고 생각했다. 20년 한의사 생활에 비추어 보아 내가 저런 자신만만한 광고를 일간지에 낼수 있는 치료에 자부심을 가진 실력이 있는지 반문해보니 자신이 없었다. 그냥 광고를 보고 넘겼으나, 다음날 아침, 기수련중 갑자기 생각이 나서 다시 신문을 찾아 강화도에 6일 교육에 참가하게 되었다. (바쁜시간을 쪼개서) 정골 정체 시간은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결과가 도출되는 나 자신도 놀라는 일이 벌어지곤 했다. 이 교육은 나의 의학적 시각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고, 인체를 다루는 모든분들이 공부해서 우리 사회에 이바지 하는 기회가 되리라 확신하면서 장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대구 수성구 한의사 ○○ (2기 수료)

국민일보 5월 14일 자 13면 하단에 무혈,무통,무약,무수술 세계최강최고수 활인비법전수 안내라는 광고문을 보았다. 그동안 대체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성도들의 질병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경침과 봉침에 대하여 교육도 받았고 관심이 많은 터라 자세히 광고문을 읽는 중에 정골정체, 정혈청혈, 통경활락이라는 삼정요법과 비법전수라는 말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5박6일의 시간과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고 나서 보니 여기와보지 않았더라면 두고두고 후회를 할 뻔 했다. 침술비법은 물론 교정법, 터주기등 임상실험과 함께 이명으로 고생하던 할아버지가 듣게 되고 20년동안 다리가 저려서 유명한 병, 한의원을 다 다녀보았으나 효과를 얻지 못했던 환자가 2회의 시술로 뛰는 것을 보게 되고, 후두통이 즉시 사라지고 요통으로 고생하던 교육생이 완치가 되는 등. 놀라운 일들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한마디로 놀랍고 대단한 세계 최강, 최고수임을 실제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전통의학의 도인이고 인술의 대가이시다, 시간만 허락한다면 반드시 또 와야겠다.

- 전남 여수시 소라면 목사 김○○ (3기 수료)

오늘이 재교육의 마지막 날이다. 처음 교육때는 배워서 남을 치료한다는 생각보다는 나의 지병부터 고쳐보고자 생각하고 왔는데 나의 생각이 너무 옹졸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몸을 관리하면서, 옆에 아픈 분들과 관리를 하면서 그 즉시 각종 통증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병원에 수없이 다니면서 치료를 받다가 낫지 않았는데 단 몇 분의 시술로 그 자리에서 그 즉시 모든 통증이 싹 가시고 낫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 또한 십수년 동안 아파왔던 관절의 통증이 사라지고 걷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어졌다. 또한 위장병과 변비도 많이 개선되었고, 이제는 생각이 확 바뀌었다. 이 좋은 치료방법을 배워서 남을 위해 아픈 사람을 위해 쓰지 않는다면 나 자신에 대한 모독이며 선사님의 가르침에 대한 따르지 아니 함이니 부족하나마 열심히 배워 활인비법을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고 싶다. 처음에는 믿지 않고 몇 번 망설인 끝에 한번 믿어보자고 생각하며 왔는데, 지금의 생각은 정말 잘했다. 그리고 이제는 제법 과정이 몸에 익어 가는 것 같다. 침 몇 개로 오십견과 허리통증을 낫게 하고 정골정체 비법으로 몇 분만에 몇 십년 앓아오던 관절과 발 저림을 낫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이런 좋은 활인법을 가르쳐주신 원장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이번교육에 같이 참석하여 서로 도와주며 교육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 강원 홍천군 홍천읍 승려○○ (3기 수료)

◆Triple combination therapy (三正요법)

1)正骨整體 : 척추뼈와 골반뼈의 변형이 만병의 根源 (活人氣功)
2)正血淸血 : 전신의피가맑아야 無病長壽 (15개연못論)
3)正氣(通經活絡) : 萬病之根源 氣滯血瘀, 세계최강 山蔘면역침술

▸교육장소 : 강화도 한빛修練院 (전등사인접)
▸교육기간 : 8월 21일 ~ 8월 23일 2박 3일
8월 28일 ~ 8월 30일 2박 3일
▸교육안내 : 032)937-2808, 7182
010)8327-2738

▸주최 : 제 3의학재단 설립 추진 위원회
▸후원 : 한빛웰빙건강 창업 지원센타 (피부,비만,통증)
한빛웰빙건강문화원 (전국지역별 지부설립문의)

▸弟者구함 : 자연의학, 전통의술에 관심 있는 분 / 주경야독하면서 醫通君子의 길을 함께 걸어갈 제자를 구함

내과적영역 초.중.말기암, 갑상선, 이명, 난청, 중이염, 약시, 백내장, 치주염, 아토피등 악성피부병, 다한증, 비염, 축농증, 대상포진, 간질, 뇌경색, 치매, 불면증, 간경화, 간염. 역류성식도염, 위궤양, 수면무호흡증, 심한코골이, 심근경색, 협심증, 폐질환, 악성변비, 비만, 투석전신장병, 고혈압, 당뇨, 전립선, 요실금, 자궁근종, 물혹 ( 파킨슨,루게릭은 임상중 )

※ 10년 ~ 20년 이상된 각종 난치고질병이 5회 ~ 10회의 시술로 90% 이상 치유됩니다.

외과적영역 수술날자받은 경추디스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초기강직성척추염, 안면마비, 모든 종류의 두통, 삼차신경통, 좌골신경통, 골반통, 항강통, 어깨결림, 오십견, 테니스.골프엘보우, 수족마비, 3.4기골다공증, 하지무력증, 통풍, 류마티스, 퇴행성무릎관절염, 악성무좀,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생리통, 채머리증, 수전증, 족저통, 교통사고후유증 등 모든 종류의 통증질환

※ 10년 ~ 20년 이상 된 묵은 통증이 5분 1회의 시술로 그 자리에서 90%이상 사라집니다.

● 교육대상 병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 한방 의료관계자 (통증클리닉,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등 의료인), 한의사, 중의사, 물리치료사, 승려, 목회자, 태권도, 합기도 관장, 수련원, 단식원 운영자 및 대체의학 전통의술에 관심 있는 분. 각종 난치, 고질, 희귀성 질환자 가족분

# 참나는 '몸·마음·영적인 삶' 조화

## 파라미타, 요가명상 초급 지도자과정 교원연수 실시… 호응 좋아

"으어억~ 시원하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여름 선풍기 하나에 의지해 요가 실습을 하는 교사들의 입에서 '시원하다'는 소리가 연발로 터져 나온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도후)는 8월 10~14일 서울디자인고등학교 대강당에서 '파라미타요가명상 초급 지도자과정 교원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는 입시 등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명상과 요가를 지도하고자 하는 전국 초·중등 교원 33명이 참가했다.

5일간의 연수기간 동안 총 30시간에 걸쳐 프라나야마, 요가생리학, 아사나와 운동의 차이, 아사나 기초, 요가마사지, 요가 이완법, 명상, 커플요가 등 다양한 요가의 이론과 실습교육이 진행됐다. 이론과 실습을 겸한 체계적인 교육이라 호응도가 높았다. 학생들에게 한 동작이라도 전해주고 싶은 교사들은 한 동작 한 호흡도 놓치지 않으려는 열정을 보였다.

8월 11일 오후 강의를 담당한 홍석이 마사지 전문 요가강사는 "잔뜩 긴장했던 나의 모든 부분을 완전히 늘려준다고 생각하라. 누구에게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편안하게 가장 느슨한 자세를 취하라.


홍석이 요가 강사가 마사지 요가 시범을 보이고 있다.

자신의 깨어있는 부분과 잠든 부분을 바라보라"고 주문한다. 홍 강사는 이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스트레칭 정도의 요가 자세를 취했다. 몇몇 교사들은 간단해 보이는 동작에도 힘들어 했다. 교사들은 눕거나 서거나 엎드리면서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며 온몸의 긴장을 푼다. 경직된 몸을 충분히 이완시켜 평온한 상태를 만끽하며 참된 '나'를 되찾고 있었다. 학생들과 함께 땀흘리면서 스스로를 돌볼 겨를이 없었던 교사들은 '호흡'을 통해 자신을 처음으로 인식하고 바라보며 스스로가 놀라는 눈치였다.

전주용흥중학교 강호철 교사(파라미타 지도교사)는 "몸이 경직되고 굳어서 생각만큼 쉽지 않다. 염불, 절 수행과는 달리 요가를 해보니 내 몸이 많이 굳어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여 교사는 "이론과 실수를 전문가에게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정통 요가를 배운다는 느낌이 든다"며 "주위 선생님의 추천으로 연수 신청을 했는데 수업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수시간이 너무 짧아 일상생활에서 하려고 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반복 수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수 전임강사인 바수무쿨 원장(바수무쿨요가문화원)은 "요가는 나를 찾는 수련법으로 병 없는 몸 관리를 위한 첫 번째 단계다. 몸 건강을 위한 요가가 아닌 몸, 마음, 영적인 삶 3가지가 조화를 이뤄 함께 나아갈 때 '나를 찾는 수련법'인 요가의 가치가 살아난다" 며 "배우는 당시에만 하는 요가는 의미가 없다. 선생님들이 학교, 집 등 어디서든지 요가를 생활화해 학생, 주위 교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수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 불자한의사聯 발기

## 서울 진관사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술로 펼치는 불자 한의사들이 신행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불교의 대중화에 나선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 소속 신행단체로 불자 한의사들의 신행단체인 (가)조계종한의사불자연합회가 8월 15~16일 서울 진관사에서 발기인 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초부터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해 발기인대회 창립을 준비해 온 이수완 원장(서울 구생한의원)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서 펼치는 무료진료봉사, 정기 법회, 성지사찰 순례, 가족 템플스테이 등으로 회원의 단합을 이끌 계획"이라며 "경전공부를 비롯한 불교학 스터디 모임 등 소속 분과를 나눠 체계적인 신행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어 "불자로서 다양한 의료봉사 등 신행활동이 소극적인 불교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불교의 대중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불자 한의사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의사불자연합회는 과거 경희대 출신 한의사를 중심으로 조직됐던 대한불교한의사회의 명맥을 잇고 전국 11개 한의과 출신 불자 한의사들을 다시 모아서 다양한 신행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창립법회는 9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봉행할 예정이다. (02)2011-1891

이상언 기자

# "예산 3% 어린이법회 투자해야"

## 대중결사, '어린이포교…' 아카데미 개최


심산 스님이 어린이 포교 관련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각 사찰에서 어린이 법회를 위한 예산을 3%는 투자해야한다"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의장 진오, 이하 대중결사)는 8월 10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에서 '어린이포교는 불교의 희망'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대중결사는 어린이법회의 역사와 현황, 문제점 등 현재 어린이 법회를 짚어보고 어린이 포교의 방향성과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심산 스님(홍법사 주지)은 주제발표를 통해 "종단 등에서 제시한 통계에는 허수가 많아 실제적으로 어린이 법회에 참석하는 어린이는 1만 명도 채 안되며 어린이 법회를 하고 있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어린이 지도자가 양성되고 있지만 활동 역할과 위상이 불안정하고 활동 공간 역시 효과적으로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 지도사들에 대한 관리와 협조체계, 활동 등에 대한 충분한 지원 형태도 연구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2007년부터 포교원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며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활력을 되찾고 있지만 도입한 제도들이 법회가 잘 이뤄지고 있는 곳에 대한 칭찬일 뿐이지 법회를 열기 어려운 곳에 대한 지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심산 스님은 "대부분의 사찰에서 어린이법회 담당 법사는 법랍이 적은 스님들이다. 사찰에서 가장 큰 어른인 주지스님의 관심과 직·간접 지원이 불교의 미래를 담보할 것"이라며 "이런 모든 프로그램에 앞서 구족돼야 할 것은 우리(출가자) 스스로가 종교적으로 성숙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산 스님은 종단차원에서 필요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전국 사찰에서 영유아 수기법회 △교구 본사 차원의 동자승 단기출가 △각 지역 인재들을 주지스님과 연계하는 마을상좌 두기 △가족들이 언제든지 사찰에 와서 마음의 평안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가족 템플스테이 △문화예술단체 결성 △장애인 어린이를 위한 법회 △다문화센터 등에 다문화자녀들을 위한 법회 및 시설 운영 등을 제시했다.

이상언 기자

# 1000일 아미타불 염불선 수행 회향

## 금강정진회, 8월 22~23일 해인사 원당암서 철야정진도

"아미타불 염불선 천일수행 1000일 회향을 맞이하여, 삼세제불 역대조사 호법신중의 호념에 감사드리며, 저희 동참대중의 천일 회향 공덕이 우주에 널리 퍼져 불국정토 건설의 자량이 되기를 발원하옵니다."

참선과 절수행으로 정진하고 있는 금강정진회(회장 장건)가 8월 22~23일 해인사 원당암에서 '금강정진회 철야정진 및 1000일 아미타불 염불선 회향식'을 봉행한다.

2006년 11월 입제를 시작으로 매일 '보리방편문' 108독 이상, 아미타불 1000념 이상, 108배 수행 등의 방편으로 정진해온 금강정진회 회원 40명이 8월 20일 1000일을 맞았다. 각계각층에서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 회원들은 각자 입제식을 올리고 수행을 하면서 다음 카페 '금강(金剛)불교 입문에서 성불까지'(cafe.daum.net/vajra)를 이용해 염불선 천일 수행기를 쓰며 자기 점검을 해왔다. 집에서, 출근길에서, 쇼핑을 하면서까지도 발심자들은 생활 염불 수행을 이어왔다.

'같은 시간을 함께 하고 있다는 환희로움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흐느끼며 흐르는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고 감사함에 쌓여 이렇게써 내려가고 있답니다' '모든 부처님! 감사 합니다' 등 인터넷 카페 아미타불 천일기도 게시판에는 회원들의 환희심과 신심이 곳곳에 담겨 있다.

금강정진회는 '아미타불'을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을 정좌하고 한마음(一心)으로 끊임없이 보고(觀), 생각(念)하는 보리방편문 아미타불 수행을 기본으로, 카페 게시판 '아미타불 사경'을 이용해 사경 수행도 겸해왔다.

이상언 기자

# 정토회 백일 출가

수행공동체 정토회(지도법사 법륜)가 8기 백일 출가자를 모집한다.

동참자들은 100일 동안 경북 문경 정토수련원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된다.

참가자는 법륜 스님과 함께하는 경주 순례, 간화선 수행의 핵심을 프로그램으로 만든 깨달음의 장, 위빠사나 수행의 알아차리기 프로그램인 나눔의 장, 일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체험하는 일체의 장, 일문일답 등 정토회의 각종 수련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20세 이상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9월 8일까지며, 면접은 12일, 입방은 9월 21일이다. (054)571 -8993, www.jungto.org

## 신행게시판

**●간화선 염불수행 세미나=**불력회는 8월 22~23일 강원도 고성 건봉사에서 '간화선 염불수행 세미나와 3000배 철야정진대회'를 실시한다. '건봉사와 염불만일회' '염불과 주기도문의 의미' '염불수행의 의미' '염불실수' 등을 주제로 불교학연구회 세미나가 개최되며 밤10시부터 나무아미타불 염불절수행이 진행된다. 참가비용은 3만원. (011)768-8881

**●영어경전강의=**보리수선원은 매주 월·수요일 저녁 6시부터 영어경전강의를 실시한다. 종교, 나이에 관계없이 무료로 참가 가능하다. 9월 1일부터 2010년 3월 20일까지 붓다락키따 스님의 지도로 7개월 과정 위빠사나 교육도 실시한다. (02)517-2841

**●위빠사나 이론 및 수행 체험=**부산 가람사선원은 매주 목요일 오후2~4시 가람사 선원에서 위빠사나 이론 및 실수행 체험과 인터뷰를 실시한다. (055)383-3340

**●위빠사나 철야 정진=**깔야나미따명상선원은 8월 22~23일 전북 완주에서 아눌라 스님과 함께하는 위빠사나 철야 정진 수행법회를 봉행한다. 스님은 '지금 여기에서의 깨달음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한 법회도 함께 연다. (063)272-6860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미국 스탠톤대학교(Stanton University)부설 한국최면연구소
제43기 최면 「전생요법·빙의 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수련과정 매주 월요일 본원 출석 7회과정 (오전 10시~오후5시 까지)
▶개 강: 2009년 8월 24일 (월)
▶과정별 교재 및 수련 테잎 제공
▶수련비: 200만원
▶특 전: 전생상담 이수증 발급 및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시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국제 최면전문가 자격증 취득 可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직강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톤대학교 최면학 교수
국제 공인 임상 최면치료사(ICHT)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 에서 생활최면 특강
KBS, MBC ,SBS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 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 | |
|---|---|
| 빙 의 치유법 |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
| 전생요법 |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
| 명리학 | 사주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겁쟁재요.... |
| 최면학 | 최신최면기법, 심리요법, 명상 자율훈련법, 잠재능력 개발(ESP), 불면해소법, 통증해소법, 공포증 소거법, 금연, 금주, 대인공포,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 알레르기, 자연치유력 활성법 등 |

안내자료 전생, 빙의 치유 및 명리학 공개특강 비디오 테잎을 보내드립니다.(1만원)

현재 접수중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대사동 248-301(청운빌딩2층)
042) 255-0734~5

# 봉은사 수능입시특강 "최고예요"

## 6일 시작해 25일 명진 스님 특강으로 회향… 10일부터 자비의 쌀 모아

강남 봉은사가 수능을 100일 앞두고 진행하고 있는 '2010 대입수능입시특강'이 강남지역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봉은사(주지 명진)는 8월 11일 경내 법왕루에서 '사상의학으로 분석한 몸이 즐거운 학습법'을 주제로 송재희 반포초암논술아카데미 대표 초청강연을 열였다. 이번 초청강연은 8월 6일 이석록 메가스터디 평가연구소장 초청 '대입수능 경향분석' 특강에 이은 두 번째 강연이다.

이날 강연에는 봉은사 수능성취 100일기도 중인 학부모를 비롯한 400여 불자들이 법당을 가득 메웠다.

봉은사는 입시 100여일 앞둔 지난 5일 '학업원만성취 100일기도'에 들어가 3000배 철야정진과 입시생을 위한 천도재, 촛불기원법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송재희 대표 강연에서 400여 학부모들이 법왕루를 가득 메웠다.

봉은사는 "지금까지 총 참가인원이 800명을 넘어섰다. 학부모들과 수험생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쉽게 강의가 진행돼 참가자들의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두 번째 강연에 이어 봉은사는 18일 정행규 경희대 동서의학연구소 교수의 '수험생을 위한 여름철 건강관리 비법'을 진행하며, 강연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의 '학업성취를 위한 마음 집중법' 강연을 개최한다. 특히 마지막 날 강의에는 8월 30일 1000일기도 회향을 앞둔 명진 스님이 오랜 참선 정진을 통해 체득한 마음집중법이 소개될 예정이어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봉은사는 명진 스님의 1000일기도 회향을 앞두고 8월 10일부터 신도회 주관으로 결식아동 돕기 쌀 모으기 캠페인 '자비의 쌀 1000석 쌓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 모은 쌀과 후원금은 8월 30일 천일기도 회향법회에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역 400개 초등학교 15만 3000여 명의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고 7월 22일 도의회에 관련 예산을 요청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예산 전액이 삭감된 바 있다.

봉은사는 "이번 캠페인으로 모은 쌀과 후원금은 경기도 교육청과 인근 지역 결식아동을 위해 강남구 교육청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02)3218-4820,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22-342513(예금주 대한불교조계종봉은사)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 반크, '직지' 홍보

### 미국서 한인교포들과

민간 사이버외교사절단인 '반크'(단장 박기태)가 해외 교포들과 함께 '직지(直指)'가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 인쇄본임을 알리기 위한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와 관련 반크는 7월 2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회를 비롯해 23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한인회, 26일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제27회 한국학 국제교육학술대회에 참석했다.

반크는 "대부분의 외국 교과서에는 1455년 독일 구텐베르크가 만든 금속활자만 언급돼 있을 뿐 세계 최고인 직지에 대한 소개가 빠져 있었다"며 "외국교과서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수정을 적극 요청하기로 한인회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 '사막화방지연대' 첫 발

### 포천 국제정맥선원 11일 결성


사막화방지를 막기 위해 연대를 구성한 스님들.

포천 국제정맥선원(대표 대원 문재현 선사)은 8월 11일 선원 내에서 해외 및 국내 사막화 방지를 막기위한 스님 연대모임 '사막화방지연대'를 결성했다.

사막화방지연대는 대원 문재현 선사를 대표로 국제정맥선원 비구스님들이 주축이 되 가산 스님 등 각 종단 종정 및 불교계 유력인사와 중국, 스리랑카, 몽고, 태국 등의 원로스님을 고문으로 추대해 해당 국가별 추진위원장을 통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사막화방지연대는 이날 발족식에서 △사막화를 비롯한 지구환경문제 홍보 및 교육 △관련 시민단체, 외국 환경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교류, 협력 △연구 및 시험 사업 등 관련 프로젝트 진행 △사막화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운동 및 협력 △사막화방지기금 조성 등 비전을 밝혔다. (031)534-3373

노덕현 기자

## 천태종 다도대학원 설립

### 종교계 최초… 서울 관문사서 9월 개원

천태종이 종교계에서는 최초로 다도대학원을 설립한다.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이 불교 차문화 대중화에 앞장서고자 서울 관문사에 다도대학원을 설립,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천태종 다도대학원은 한국 · 중국 · 일본 등 동양 차 문화 역사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차 재배 제다학, <다신전> · <동다송> 강의, 행다 및 차예절 등을 교육한다. 불교문화사, 불교학개론 등 불교 전반적인 이론 강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행다(行茶) 특별강좌를 개설해 천태차 문화를 대중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매주 목 ·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3년간 진행된다. 졸업생들에게는 종단 내 차문화연구원, 지방사찰 및 종립유치원 다도 지도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개강은 9월 첫 주, 등록금은 학기당 100만 원이다. (043)420-7315

김성우 기자

## 육영수 여사 서거 35주기 법회

### 기장 무궁사 등 불교계 현충원서 봉행


불교계 인사들이 독실한 불자였던 육영수 여사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있다.

부산 기장 무궁사와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 대불청 등 불교계는 8월 9일 서울 동작동 현충원에서 故 육영수(대덕화) 여사 서거 제35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이 추모법회는 무궁사(주지 대한)가 1974년 8 · 15 기념식장 서거한 독실한 불자였던 육영수 여사의 극락왕생을 위해 35년간 봉행해온 법회다.

이날 법회에는 무궁사 주관하에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회장 박희도)와 대불청, 백용성조사유훈실현후원회(지도법사 도문) 등 불교 각 단체가 참석했다.

추모법회는 조계종 원로의원 도문 스님, 前 교육원장 일면 스님(前 군종교구장), 무궁사 주지 대한 스님, 박정희 前 대통령 차녀 박근영씨, 불교도총연합회 박희도 회장(前 육군 참모총장), 김길홍 前 국회의원, 송창달 그린비젼코리아 회장, 조창희 문화관광부 종무실장, 남강수 前 가수협회 회장과 500여 불자들이 모인 가운데 엄숙히 봉행됐다.

노덕현 기자

## 대웅전·7층석탑·삼존불 봉안

### 상주 용해사 법회 봉행… "관음보살입상 이전"

상주 사벌면 용해사(주지 무진행)는 7월 26일 용해사 대웅전 및 7층석탑과 삼존불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봉안법회에는 이정백 상주시장, 이종원 도의원, 고준환 명예교수, 최상원 용해사 신도회장 등 350여 내외빈이 참석했다.

법회에서 이정백 상주시장은 "사벌면 최초 사찰 건립을 축하하며, 목가리 소재 관세음보살 입상을 이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주 용해사 대웅전 및 7층석탑 봉안법회.

무진행 스님은 "불사에 동참한 사부대중과 사중은혜에 감사하다. 모든 분들이 삼보를 믿고 이해하고 실천해 현세는 행복하고 내생에는 좋은 곳에 태어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승가는 수행에 있어 대중과 함께 소통해야 한다"며 "용해사 공간을 십분 활용해 모두가 화합하고, 삶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해사는 불사과정에서 대웅전 터에 연화 모양의 자연석이 출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용해사는 <묘법연화경>을 소의경전으로 매주 일요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 베트남서 주례

### 대성사 혜철 스님

옥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은 8월 4~9일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 불자 처녀와 한국 불자 총각의 결혼식에서 주례법문을 했다.

국제결혼 가정의 어려움을 종교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법률상담, 종교 활동, 가정방문 상담을 통해 베트남 신부의 한국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 혜철 스님은 6일 베트남 불교중앙회 부회장 틱 탕삽 스님도 예방해 태고종 · 베트남불교 간 양국불교 교류방안을 협의했다.

대성사는 지난 5월부터 베트남 하이즈엉도 끼엉사에 대성사 포교원불사를 시작했고, 베트남 노동자와 신부가정을 방문하는 법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베트남불교회 소속 스님을 경북 구미에 파견할 예정이다. (043)732-5560

## 대전불교사암련 법인화 추진

### 11일 임시총회서 정관 개정 및 봉축 결산

대전불교사암연합회가 법인화를 추진한다.

대전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안)는 8월 11일 사암연합회 대법당에서 53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법인화를 위한 정관 개정의 관한 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정관 개정에 관한 건에 대해 사무총장 남산 스님은 제안 설명에서 "앞으로 연합회가 법인체로 전환하려면 법인체에 맞는 회칙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51차 회의 때 정관 개정을 위한 총회의 위임을 받아 여러 차례 검토한 결과이며 총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4 · 8봉축행사의 결산보고와 승인에 대한 건도 심의됐다. 회장인 도안 스님은 "본 회가 이제 조금씩 안정되고 있는만큼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 기대에 부응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대전광역시내의 사암수는 500여 개에 달하지만 연합회에 등록된 사암은 255개다.

이 가운데 봉축 분담금을 납부한 사암은 66개 사암(26%)으로 나타나 참여도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혜철 충청지사장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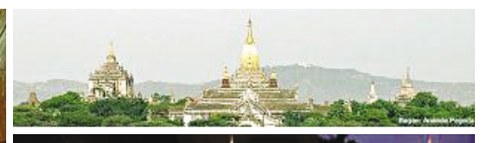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종단 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불교 홍법에 기여하고 인간방생을 통해 중생을 제도하며
모두가 부처님 일불 제자로 도반이 되어 사찰 운영 및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고락을 같이하여 부처님 세상을 열어 가고자 합니다.
또한 이 세상 모든 이들과 희로애락을 같이 한다는 정신으로 어둡고 외로운 곳에서
헌신적 희생정신으로 봉사활동을 할 봉사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종단을 불문하고 불교인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업무담당 : 포교원장 불도 - 천 장
사무국장 혜 거

대표전화 : 02)733-5665. 팩스 : 733-5671


미얀마·스리랑카·인도·중국 불교성지순례전문 여행사

미얀마에서 각종 불교 행사 및 성지순례를 계획하시는 스님 및 단체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미얀마 종교성 및 미얀마 문화원 후원, 미얀마 종정 큰스님 및 큰스님 친견

■ 1차 출발 : 10월 21일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몽유와짜익티오 7일
■ 2차 출발 : 11월 20일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몽유와짜익티오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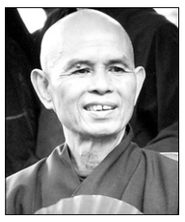
** 여행설계사 프리랜서 모집 (00명) **
여행 업무에 관심있는 불자님을 모십니다.

미얀마 종교성 후원 및 미얀마 문화원 지정 여행사
불교성지전문 마하-연 투어 문의 전화 02)365-7747

해 외 WORLD

## '달라이 라마 지지발언' 정부 미움사

### 틱낫한 스님, 제자들, 수도원서 축출 위기



세계 4대 생불(生佛)로 추앙받는 틱낫한 스님(사진)의 달라이 라마 지지발언이 문제가 돼 제자스님들이 수도원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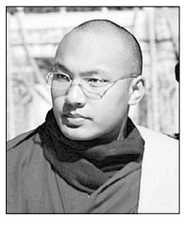
문제가 발생한 곳은 베트남 중심 고산지대에 있는 바트나 수도원. 틱낫한 스님과 뜻을 함께하는 바트나 수도원의 스님들이 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틱낫한 스님은 2008년 이탈리아 TV와 인터뷰에서 "달라이 라마의 베트남 하노이 집회를 허가해야 하며 중국은 그가 티베트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발언이 불씨가 돼 베트남 지방 당국은 틱낫한 스님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명상하는 바트나 수도원의 전기와 물, 전화까지 끊어버렸다. 또 폭도들이 쇠망치를 들고 사원으로 침입해 창문과 건물을 부수는 등 스님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베트남 내 불교 파벌 간 불화로 인해 소란이 발생했다며 바트나 수도원 스님 378명에게 사찰을 떠나라고 지시했다.이에 대해 수도승들은 최근 틱낫한 스님이 달라이 라마를 지지하고 베트남 내 종교의 자유가 확대돼야 한다는 발언을 해 정부의 미움을 샀다고 반박했다. 이나은 기자

## 17대 까르마파, 인도서도 통행제한

### 중국 우호관계위해 제약 지속 전망



티베트 불교의 주요 종파중 하나인 카규파의 지도자 17대 까르마파 우기옌 트린리 도르지(Ugyen Trinley Dorje · 사진)가 인도에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국 정부는 2000년 당시 14세였던 17대 까르마파를 티베트 지배의 상징으로 이용하기 위해 추대했다. 그러나 까르마파는 티베트를 탈출, 인도로 망명했고 중국은 인도측에 망명 불허를 요청했으나 인도가 이를 허용하지 않자 양국 간에 마찰이 일어났다.

현재 중국과 경제적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인도가 중국과 이전과 같은 마찰을 없애기 위해 까르마파의 행동반경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인도타임즈(North India Times)는 최근 다람살라로 망명한 뒤 인도 국가보안부로부터 감시를 당하고 있는 까르마파의 소식을 보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까르마파의 행동반경은 달라이 라마가 있는 곳에서 15km까지 제한돼 있으며 심지어 달라이 라마를 만날 수도 없다고 했다. 달라이 라마의 측근은 "달라이 라마 접견을 3번 요청한 끝에 까르마파는 7월 25일에 30여분 동안 만 달라이 라마를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인도 정부는 까르마파의 해외여행까지 제한했으며, 자금출처를 조사하기 위해 코탈라 지역에서 진행 중인 건축불사까지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나은 기자

# "꿈이 생기니까 내일이 보여요"

## 조계종 복지재단, 의지나눔 쉐어윌 1기 졸업캠프 열어

부모 등 주변인으로부터 조언을 얻기 힘든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종에 대한 이해를 도와 호응이 높았던 '청소년 의지나눔 쉐어윌' 프로그램이 시행 반년을 회향하는 행사를 가졌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은 8월 8~9일 경기도 여주 신륵사에서 쉐어윌(Sharewill) 1기생들을 대상으로 '꿈과 희망의 의지나눔 쉐어윌 졸업캠프'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쉐어윌 1기 청소년 50명을 비롯한 요리사 · 변호사 · 헤어디자이너 등 다양한 직업인봉사자 및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신륵사 주지 세영 스님은 입소식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 못하는 것, 성공과 실패는 모두 여러분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며 "복지재단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을 통해 확실한 목표를 갖고 살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일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입소식이 끝나고 쉐어윌 1기생들은 신륵사 앞 캠프장에서 조별 레크리에이션, 바나나보트 타기 등 물놀이를 한 뒤 신륵사 보선 스님의 지도 아래 저녁 발우공양을 했다.

이후 아이들은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꿈과 목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첫 시간은 '내 꿈 찾기'로 서상호 신라호텔 총주방장이 초대돼 일류요리사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영대 박사(한국지업능력개발원)가 '로드맵 그리기'를 강의했다. 각 조별로 둥그렇게 모여앉아 아이들은 진지하게 자신들의 진로를 고민하며 미래의 모습들을 그려 나갔다. 그 다음 세 번째 코너는 '만나고 싶어요' 시간. 아이들은 캠프에 참여한 게임개발자, 생명공학연구원, 작가 등 다양한 직업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했다. 쉐어윌 1기생들은 지난 3~8월 6개월 동안 10회에 나누어 회계사, 법조인, 의료인, 디자이너 등 다양한 직업인들과 만남을 가져왔다. 이들은 놀토(격주 휴무 토요일)를 통해 직업인들의 현장을 방문,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새로운 직업의 세계를 배우면서 변화된 자신들을 보며 놀라워했다. 캠프에 참여한 이유리(숭인중 1) 양은 "삼성증권 자산관리사를 만났을 때 자기관리법을 듣고 그분 말씀처럼 자기계획을 세워 차근히 공부를 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보니 기말고사 때 평균 10점이 올랐다"며 "교사가 되고 싶은데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의욕이 생겼다"고 말했다.



쉐어윌 1기 청소년들은 서상호 신라호텔(맨 윗줄 두 번째) 총주방장과 진로와 관련한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로드맵도 작성했다.

신담은(구산중 3)양은 "드라마, 영화를 보면 의사,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현장에서 직접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니 신기하고 흥미로웠다. 몰랐던 직업의 세계도 많아 좀 더 확실하게 목표를 잡아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쉐어윌은 청소년들에게는 진로탐색에 큰 도움이 되고 시간이 없어 봉사활동을 하기 힘든 직장인들에게는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에 서로에게 윈윈(win-win)하는 프로그램이다. 박병선 교육 팀장(박준뷰티랩)은 "아이들이 진로선택을 위해 다양한 직업인들과 만나는데 내 자신이 헤어디자이너의 본보기가 되니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일에 매진하게 된다"며 "진로탐색으로 고민하는 아이들에게 가이드 역할 등 도움을 줘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쉐어윌 프로그램을 준비한 복지재단 박찬정 부장은 "1차적 목적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올바른 진로를 찾도록 돕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에게 불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목적도 있다"며 "이에 맞게 봉사자, 참여자가 체계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며 하반기에 2기들을 뽑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 "임신한 몸으로 아무것도 못해줘 미안해요"

### 생명나눔실천본부, 8월 환우 전신화상 입은 조경씨 선정

"남편과 곧 태어날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미안하기만 합니다."

한국으로 시집온 베트남 여성이 넉 달 뒤 출산을 앞두고 절망에 빠져있다. 전신 70%에 2~3도로 화상을 입은 남편을 보면 가슴이 타들어가기 때문이다.



조경씨는 전신화상을 입어 7000만원의 치료비가 들지만 1억 원의 부채까지 있어 치료를 받지 못할 처지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2009년 8월의 환우로 조경(38 · 남)씨를 선정했다.

조경씨는 지난 현충일 우유납품으로 울산 간절곶을 지나다 산불에 휩싸여 질식한 상태로 119 구조대에 의해 간신히 구출됐다.

전신에 화상을 입은 조경씨는 8차례의 수술을 받았고 앞으로도 가피제거수술과 피부이식수술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화상범위가 넓어 자가피부이식도 어렵고 순조로운 이식이 이루어진다 해도 운동장애와 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조씨가 다시 일어서려면 장기간의 재활치료가 절실하다. 하지만 지난 1달여 동안 4000만원의 치료비가 들었고, 앞으로도 7000만원 이상의 치료비가 예상돼 가족들은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더욱이 조씨는 홀어머니를 모시며 생계유지를 위해 우유대리점을 시작했지만 경기불황으로 우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1억 원의 부채까지 지고 있다.

2008년 7월 남편만 믿고 한국으로 온 베트남 부인은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주던 남편이 화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만 봐야하고, 임신한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미안하기만 하다. 조씨 가족은 시세 3500만 원의 집을 팔고, 형제들도 십시일반 치료비를 지원했지만 미납액 670만원과 7000만원의 치료비를 마련할 길이 없다.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생명나눔

이나은 기자

## 월급모아 기증 '따뜻한 냉동탑차'

### 한국인삼공사, 복지기관에 냉동차량 5대 기증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는 한국인삼공사로부터 음식을 운반할 수 있는 냉동탑차를 전달받았다.

국내최대의 민간 먹거리나눔 운동기구인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공동대표 대오, 김재열, 배태진, 김경림 · 이하 협의회)가 한국인삼공사로부터 사랑의 냉동탑차를 지원 받았다. 한국인삼공사(사장 전상대)는 임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금액 1억 500만원으로 1톤급 냉동차량 5대를 구입, 협의회에 전달했다. 전달식은 8월 12일 대한 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앞마당에서 열렸으며 협의회는 전달받은 5대 차량을 먹거리 나눔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양평종합사회복지관, 낙산사복지재단 등 5개 복지기관에 다시 전달했다. 대오 스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인삼공사 임직원분들이 월급의 일부를 모아 차량 기증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세계 최초의 수련전용방석 기반
氣 giban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은 선문화 및 명상, 수련 활성화를 위하여 만들어 진 명품 입니다.
선정을 닦으면 마음이 매우 고요하고 지혜로워져서 생각을 혼란하게 하는 걱정 근심이 저절로 말끔하게사라집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지금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일상생활에서 맹목적인 타성을 벗어나 자신의 본바탕으로 돌아가 깨어 있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수련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어떻습니까? 말은 쉽지만 꾸준히 수행하기 어렵거나, 그만한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행을 하는데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수련 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금강의료기에서는 이러한 점을 뼈아프게 느껴 세계최초의 수련 전용 기능성 방식인 기반을 출시하였습니다.
기반은 사부대중들께서 성불 하실때까지 든든한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제품의 특징 ※
엉덩이 모양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합니다.
엉덩이 뒤쪽과 꼬리뼈와 회음부를 잇는 방석의 중심을 높게 설계하여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크기가 작아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좌복위에 놓고 참선 및 명상을 하시면 더욱 좋은자세로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기반 앞 면에 옴자를 새겨 수행하는데 태초의 氣가 충만하도록 하였습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제품사용처 : 사찰,신행단체, 선방,심신수련단체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10%DC)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6㎝]
■VIP형 (최고급 메모리폼 내익)
~~49,000원~~ → 44,000원 (10%DC)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10%DC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F. 02)737-0696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강 좌
1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① 일 정 : 2009. 8. 22(토) 오후 1시부터 ~ 8. 23(일) 오후 6시까지
② 수강료 : 10만원(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 천 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2 매주 화요일 강좌(10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3060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
한 · 국 · 전 · 통 · 따 · 주 · 기 · 공 · 덕 · 회

# 정보화시대 불교 인프라 구축해야

## 교수불자대회서 김범수 교수 '웹2.0과 불교문화' 발표

현대는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화시대다. 과거 신문과 방송 등으로 제한된 정보를 접했던 것과 달리 지금은 셀 수 없을 만큼 다량의 콘텐츠가 매일 생성되며 정보를 쏟아내고 있다. 인터넷을 '클릭'하는 사람들은 광고와 이념, 선전, 게임 등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마음을 빼앗기기 일쑤다.

정보화 시대에서 불교문화의 생존을 위해서는 콘텐츠 생성, 인력 양성 등 인프라를 구축해 불교와 관련한 정보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범수 인하대 교수는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최용준)가 8월 17~19일 영월 법흥사에서 개최한 2009 한국 교수불자대회에서 '웹2.0과 불교문화'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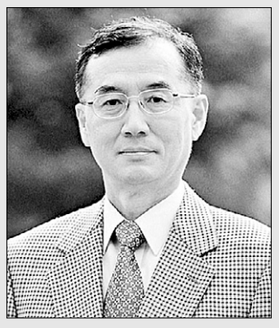
김 교수는 "웹2.0시대를 맞아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교환하게 됐지만 수많은 정보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며 "웹2.0시대에서 불교문화를 존속시키고 다른 그룹에 전달하려면 정보인력 양성 등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웹2.0시대는 유튜브 동영상 웹사이트 등 사용자의 참여에 의해 이뤄지는 인터넷 시대로, 1990년대 이후 대중화되며 제2의 인쇄혁명으로 불리던 인터넷이 진화한 형태를 말한다.

사람은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에 접촉하는 정보에 의해 집착하고 자신이 만든 상상력(의, 意)에 집착하기 쉽다. 이런 까닭에 각 종교도 자신들의 교리를 콘텐츠화해 인터넷에 다량 배포하고 있다.

김범수 교수는 "문화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려면 그 문화를 이용하는 정보의 양이 계속돼야 한다"며 문화의 존속조건으로 '정보량=인구수×두뇌속의 평균 정보량'의 공식을 설명했다.

아메리칸 인디언이나, 잉카문명 등은 침략자에 의해 인구수·정보량이 통제돼 문화가 말살된 경우다. 민족과 국가 간의 문화말살 외에도 같은 문화권 내에서는 여러 문화가 충돌하면 정보량에 의해 문화의 존속이 결정된다.


김범수 인하대 교수.

김범수 교수는 "가장 핵심적인 문화충돌 형태가 종교간 충돌"이라며 "한국 사회 곳곳에서 불교를 비롯한 한국전통과 개신교 문화가 충돌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신도에 의한 사찰방화와 불상·단군상 파괴가 그 예다.

김 교수는 "과거 자행되던 과격한 상대 문화말살 정책과 별도로 지금은 (정부와 공직자에 의한) 합법적 형태의 종교문화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며 "일례로 한국은 현재 교직원을 특정종교인으로만 채우는 종교편향적인 대학에 국가가 세금지원을 하고 있는 나라"라고 주장했다.

김범수 교수는 (지금 교계에서 치중하는) 종교편향 등에 대한 대응과 별도로 불교문화의 정보량을 증가시켜야 불교문화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처럼 이웃종교의 콘텐츠가 불교 콘텐츠 수를 상회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정부의 종교편향 정책과 맞물려 불교문화가 말살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불교계는 타종교와 비교해 정보화시대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수준"이라며 "종교간 문화충돌에서 불교문화가 살아남으려면 △문화 중심인 불교도서관 확대 보급 △(도서관의)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해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는 인터넷 아카이브센터 운영 △불자간 소통 확대를 위한 사찰별 위원회 운영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등에 불교를 알리고 소개할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불교문화와 관련한 정보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무위사 백의관음도' 천태신앙 산물

## 이승희씨 '동악미술사학'서 주장…의식용 예불화로 그려진 것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국보 제13호) 후불벽 뒷면의 백의관음보살도(보물 제1314호)는 관음도 가운데 빼어난 수작으로 불린다. 백의를 입고 연잎을 타고 오는 관음보살이 합장을 한 노비구를 향한 모습이 그려진 이 백의관음보살도가 천태신앙의 산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술사학자 이승희(홍익대)씨는 동악미술사학회(이사장 윤범모)가 최근 발행한 학회지 <동악미술사학> 제10호에서 '무위사 극락보전 백의관음도와 관음예참'을 발표했다.

이씨는 "1430년 효령대군이 수륙의식을 위해 건립한 무위사 극락보전에, 1476년 후불벽과 천장이 설치됐다. 이때 의식용 예불화로서 무량수삼존불과 백의관음도가 그려졌다"고 말했다.

무량수삼존불과 백의관음도가 불교의식 안에서 밀접한 연관이 있음에 주목한 이승희씨는 관음예참의식을 중심으로 개조된 전각(극락보전) 뒤쪽에서 행해진 의식을 살폈다.

이씨는 "벽면 앞에 무량수삼존후불화를, 뒷면에 백의관음을 그린 것은 백의관음에게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기원하는 <백의예문>의 왕생경로가 투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승희씨는 "<백의예문>의 의식과 신앙체계는 정토사상과 결합된 천태신앙의 한 형태"라며 "의식문에 근거해 보면 관음보살을 향해 합장한 노비구는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예불자의 모습"이라 설명했다.

책에는 이외에도 △현재 심사정의 사군자화 연구(백인산) △<당시화보(唐詩畵譜)>와 조선후기 화단(하향주) △조선후기 16나한도상의 계승(신광희) △식민지 조선의 표상: 석굴암의 공론화(강희정) △남양주 흥국사의 조선전기 목조16나한상(정은우) △5~6세기 연화문수막새를 통해 본 신라와 주변제국의 교류(김유식) △요대 조양북탑 출토 경당 연구(주경미)가 수록됐다. (02)2260-3156

조동섭 기자

# 국립부여博 복합문화센터 기공

## 백제금동대향로 오악사 모티브… 2011년 완공

국립부여박물관(관장 권상열)은 8월 13일 박물관 본관 서편에서 복합문화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


2011년 5월 완공예정으로 건축 중인 국립부여박물관 복합문화센터 조감도.

복합문화센터는 백제금동대향로 오악사(五樂士)를 모티브로 해 오감(五感)을 통해 백제의 역사와 미를 체험해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4238㎡ 규모로 어린이를 위한 전시·문화체험 공간인 사비문화체험실 등을 갖추고 2011년 5월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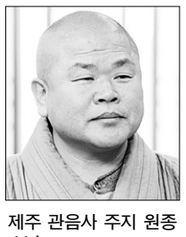
권상열 관장은 "이번 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지역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 및 관람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 특히 한국박물관 개관 100주년이 되는 올해 국립부여박물관이 지역문화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할 계기"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원종 스님 명예박사 수여

## 동방대학원대 21일 후기 학위수여식

동방대학원대학(총장 정상옥)은 8월 21일 오전 11시 교내 별관 5층 사자후전에서 200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한다.


제주 관음사 주지 원종 스님.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제주 관음사 주지 원종 스님 등 명예박사 2명, 박사 4명, 석사 5명, 연구과정 2명, 풍수지리학 최고지도자과정 14명이 학위를 수여받을 예정이다.

명예문학박사학위를 받는 원종 스님은 중앙승가대의 김포 이전에 기여하는 등 중앙승가대가 승가 고등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현재는 제주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님은 또, 민주화를 위해 다양한 NGO 활동을 벌여왔다. 중앙승가대 동창회장, 남양주시 민포럼 비전21 공동대표, 불교포럼 이사, 실천승가회 창립 발기인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강화도 보문사와 불암사의 주지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등 불교의 대중화와 저변 확대에 힘써왔다. 현재는 관음사 주지와 제주불교신문사 발행인, 한라선원장, 제주불교문화대학장의 소임을 맡고 있다.

또, 서예·문인화 대가인 서근섭 교수도 명예서화심미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조동섭 기자

# 학술 문화재 소식

## 불교중앙博 홈피 개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범하)이 8월 3일 인터넷 홈페이지(museum.buddhism.or.kr)를 개설했다.

박물관 홈페이지는 전시 소개, 소장품 정보와 교육과 강좌 학술정보를 알려주는 교육·자료 마당, 전국 성보박물관 현황을 소개한 성보박물관 코너 등으로 구성됐다.

조동섭 기자

## 만불학술회의 26일 개최

만불회(회주 학성)와 불교학연구회는 8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제2회 만불학술회의를 개최한다.

'불교에서 바라본 생명의 본질과 현대적 가치'를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는 △불교적 입장에서 본 생명의 가치(정병조 동국대 교수) △근본불교입장에서 본 생명(황순일 동국대 교수) △불교윤리를 통해 본 생명(허남결 동국대 교수) △선수행 입장에서 본 생명(서재영 동국대 외래강사) △생명공학의 입장에서 본 불교적 생명관(우희종 서울대 교수) 등이 발표된다. 010-3772-8179

조동섭 기자

## '불교학리뷰' 5호 발간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안성두)는 최근 <불교학리뷰> 제5호(불광출판사 刊)를 발간했다.

책에는 불교문화연구소가 지난 2월 '<대승사론현의기>와 그 주변'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 소개된 논문 등이 수록됐다.

이외에도 △<유마경현소(維摩經玄疏)> 역주 연구(야마구치 히로에) △<마하지관(摩訶止觀)>의 무생문(無生門) 해석에 대한 연구(광도 스님) △천태 지의의 연구사(지혜경) 등 투고논문과 △<대지도론(大智度論)>에 인용된 <중론(中論)>송 고찰(사이토 아키라, 정유식 역) △쫑카파의 연기와 공의 존재론-중관파 불공(不共)의 승법(勝法)에 대하여(후쿠다 요이치, 김재권 역) 등 번역문이 담겨 있다. (041)731-3114

조동섭 기자

## 한국테라와다 학술세미나

한국테라와다불교(대표 빤냐와로)는 8월 28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09년 한국테라와다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불교전통과 테라와다불교'를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는 △테라와다불교의 발생과 흐름(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 △한국테라와다불교의 현황과 과제(임승택 경북대 교수) △초기불교에 나타난 수행자의 생활상(이자랑 동국대 외래강사) △한국전통불교와 테라와다불교(고영섭 동국대 교수)가 발표된다. (02)517-2841

조동섭 기자

## '국민장 개선' 세미나

국민장으로 치러진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장례 후 국민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모아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의례학과는 8월 18일 동국대 만해관 B253에서 '국민장의 평가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제3회 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현행 법·제도에서 본 국민장의 평가와 개선방향(안우환 을지대 교수) △천주교 상례에서 본 국민장의 평가와 개선방향(조욱종 신부) △불교적 관점에서 본 공론화된 죽음에 대한 의례(구미례 성보문화재연구원) △국민장 상복제도의 정립에 관한 연구(순남숙 한국생활문화연구원장) 등이 발표됐다. (02)2260-3098

조동섭 기자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 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공생선원 가을 개강



혜거 큰스님의 유식30송
• 법 사 : 혜거 큰스님
• 시 간 : 오전 10시 30분
• 날 짜 : 9월 10일 목요일

참선반(돈오입도요문론) / 참선입문(선문촬요)
• 9월 1일(화) 참선반 • 9월 2일(수) 참선입문
• 법사 : 무각스님 • 시간 : 오전 10시 30분 / 저녁 7시 30분

※ 청년법회 매주 토요일 6시 / 일요가족참선법회 매주 일요일 10시 30분 ※

대한불교조계종 공생선원
(http://cafe.daum.net/zenmaster) 서울시 도봉구 쌍문 2동 653번지 삼환프라자 7층 Tel 02)900-2448

## 일주문



**의성 고운사, '화엄경 요해' 특강**

부산 화엄사 회주 각성 스님은 9월 7~10일 의성 고운사 선체험관에서 '화엄경 요해' 특강을 실시한다.



**직장직능신행단체 임원연수**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8월 22~23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포교 신행단체 활성화를 위한 직장 · 직능 신행단체 임원연수를 개최한다.



**고암 20주기 작품전시회**

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은 8월 17~28일 수덕사 선미술관에서 고암 이응로 화백의 20주기를 맞아 작품 전시회를 연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귀농학교 개최**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 도법 스님은 9월 4일~10월 27일 서울 양재동 인드라망교육센터에서 '제25기 불교귀농학교'를 개최한다. (02)576-1886



**불광장학생 장학금 수여**

서울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은 8월 23일 불광사에서 제2회 불광장학회 장학생에게 장학금 2500만원을 수여한다.



**군위 인각사, 일연 스님 추모 다례재**

군위 인각사 주지 도권 스님은 8월 27일 오전 10시 인각사에서 <삼국유사> 저자인 보각국사 일연 스님 추모 다례재를 봉행한다.



**만다라미술심리연구원 개원 기념강연**

김영옥 만다라 작가는 8월 22일 오후 2시 인사동 건국빌딩 505호에서 한국만다라미술심리연구원 개원기념 무료강좌를 연다. (010)6658-1706

##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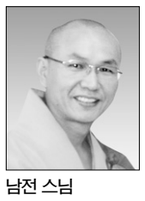
### 제2대 군종교구 신임국장 임명



정범 스님,



지선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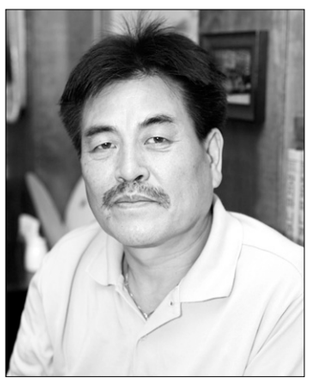


남전 스님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자광)는 8월 6일 제2대 교구 실무를 맡을 신임 국장 3직(총무. 재무. 교무)을 신설하고, 총무국장에 정범 스님(종회의원), 재무국장에 지선 스님(도솔암 주지), 교무국장에 남전 스님(용주사 기획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 "한국 최고의 사회적 기업 만들 터…"

## 오시환 불교계사회적기업추진위원장 '우리절 녹색장터' 열어



해산물 요리 전문점 '해장금' 사장이자 '니르바나필하모닉오케스트라' 2대 후원회장인 오시환씨는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계 사회적기업 추진위원회' 회장이기도 하다.

오 사장은 요즈음 생업인 '해장금' 식당 일보다 '불교계 사회적기업 추진위원회'가 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애정을 쏟고 있다. 조계종 전법회관 1층에 '우리절 녹색장터'를 열어 지금은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 9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불자들이 생산한 제품은 친환경 친자연 제품에 가까운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생산자를 네트워크로 묶지도 못하고, 소비자와 판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판로가 전부 스님 중심으로 돼 있는데다, 재가불자들의 자생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우리절 녹색장터'이다. 이곳에서는 사찰을 비롯한 농가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식품과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연국수, 연냉면, 쌀라면, 두부스낵, 마늘바게트, 연잎차, 연근차 등과 유기농 고추장, 된장, 청국장 등 다양한 품목을 만날 수 있다.

'불교계 사회적 기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불교내의 인재를 키우자는 것도 있다. 불자들의 고급인력을 불교 내에서 흡수해야 한다는 취지하에 세 가지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하나는 고령자일자리, 하나는 청년일자리, 하나는 봉사차원에서 최하층의 일자리이다.

오 사장은 '우리절 녹색장터'를 차후에 주식회사로 발전시켜나간다는 커다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젠 불교에서도 현대식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라는 현대적 기업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녹색장터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노마진 시스템을 가진 생활협동조합이 아니라 주식회사 시스템이다. 수익을 내서 수익금으로 재창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것 또한 불교의 심각한 인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앞으로 불교가 무한히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녹색장터가 시장원리에 의해 성공해야 만이 자생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리가 잡힐 때까지 홍보하지 말고, 강매하지 말고, 광고하지 말라고 합니다. 소비자를 움직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아직까지 광고할 단계가 아니며, 팔월 중순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것입니다. 불교라는 마인드 자체가 기업 속에서 살 수가 있어요. 팔정도라던가, 인과법이라든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년 초에는 한국의 사회적 기업으로서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려고 한다. '우리절 녹색장터'의 점포가 늘고 소비촉진단이 만 명, 이만 명으로 늘어간다면 농협을 비롯해 여러 할인매장에도 입점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뉴욕이나 일본의 동경에도 얼마든지 점포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오 사장은 환하게 웃었다.

**문윤정 논설위원(수필가)**

## 동헌 조사 탄생 114주년 장안산 산상기도 봉행



죽림정사의 산상기도 법회 모습.

장수 죽림정사(조실 도문)는 8월 4일 용성 조사의 수법제자 동헌 조사 탄생 제114주년을 맞아 백두대간 중심지인 장안산에서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주, 구미 등지의 대표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추모기도를 봉행했다.

이날 도문 스님은 산상기도 설법으로 삼법인을 해설하고, "제행이 무상하고 제법에 무아이니 수행정진하여 적정에 이르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 "부처님 가르침 따랐을 뿐이에요"

## 감로수 5000병 보시한 김영란불자



김영란 보살과 아들이 활짝 웃고 있다.

6월 27일부터 한달간 진행된 익산 미륵사지 친견법회에서 전국에서 익산을 방문한 스님과 불자에게 생수를 보시한 불자가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김영란(56세. 서울 대치동) 불자. 김 보살은 익산사암연합회 회장 백운사 우성 스님과 익산지역 불자들이 미륵사지를 찾은 대중들에게 생수를 보시한다는 소식을 듣고, 생수 5000병을 선뜻 보시했다.

김 보살은 불교집안에서 성장했지만 결혼 후 불심이 돈독한 남편 김도규 거사의 인도로 본격적으로 불교에 입문했다.

김영란 보살은 항상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김 보살은 매일 아침 108배로 하루를 시작한다. 하루 일과를 마칠 때는 <법화경>을 강독한다.

"지난 IMF 경제위기 때는 남편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기도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1남2녀의 자녀들이 미국과 영국에서 유학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기도 덕분입니다."

"앞으로 자(慈) · 비(悲) · 희(喜) · 사(捨)의 사무량심(四無量心)을 바탕으로 이웃과 함께 나누며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각 분야의 위상 · 나눔… 공로 인정

## 제 18회 행원문화상 백도수 · LM싱어즈 중창단 선정



백도수씨.



황영선 단장.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윤)은 7월 27일 제18회 행원문화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역경분야에 백도수씨, 예술분야에 LMB싱어즈중창단(단장 황영선)을 선정했다.

역경상 수상자 백도수씨는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강사로 30여 년 간 불전 번역과 초기, 부파, 대승불교사상 번역에 전념해 한국 불전번역의 위상을 대중적으로 선양한 공로가 높이 인정됐다.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석사와 동국대학교에서 인도철학, 인도불교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역서로는 <맛지마니까야(中部) 1> <법의분석 1,2> <위대한 비구니 1,2> <중급범어불전강독>, 주석서인<팔리율장의 주석서> 등이 있다.

예술상 수상자 LMB싱어즈 중창단(단장 황영선)은 불교 성악인을 발굴, 육성하는 음악단체로 10여 년동안 불교계 주요 행사 및 사찰법회에 적극 참여해왔다. <환아돕기 자선음악회>등 봉사 복지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는 등 성악을 통한 자비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한 점이 크게 인정됐다.

행원문화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이 각각 수여되며 시상식은 9월 24일 역삼동 대려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 1000만원 구미 외국인지원센터 후원

## 지구촌공생회, 국내 이주민 지원 시작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이 이정순 센터장에게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캄보디아 등 전세계 7개국에서 구호활동을 펼쳐 온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가 국내 외국인노동자와 이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나섰다.

지구촌공생회는 8월 8일 '꿈을이루는사람들(대표 진오)'이 개최한 구미 지산동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증축 준공식에 참석했다. 지구촌공생회는 국내구호사업 일환으로 이번 지원센터 증축을 위해 1000만원을 후원했다. 후원금은 노동자 쉼터와 사무실, 식당 등 60㎡규모의 센터공간을 위해 사용된다.

준공식에는 구미지역 복지관 운영 등에 나서고 있는 호계원장 법등스님(구미 도리사 주지)과 구미불교사암연합회장 성화 스님, 직지사복지재단 구미지부장 법성스님, 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장 서현 스님, 민병조 구미부시장을 비롯해 외국인 노동자, 지역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월주 스님은 이정순 결혼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 센터장에게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센터 시설을 둘러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월주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국내 외국인 거주 100만 시대를 맞아 불교계는 200만 시대를 대비해 준비해야 한다. 항시 우리 주변 소외된 이웃을 돕는 것이 인류를 위한 길임을 잊지 말고 사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각성 큰스님
"화엄경 요해" 특강

고운사가 화엄세계로 변화고 있습니다.
화엄경의 주요 내용을 짧은 시간에 이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우리로 반목과 대립을 무념으로....

고운사 선체험관에서 3박4일 화엄경을 해박하게 풀어가는 각성 큰스님의 "화엄경 요해" 특강입니다.

◈일 시 : 2009년 9월 7일(월) ~ 10일(목) 오후 2시
◈장 소 : 고운사 선체험관
◈참가대중 : 사부대중 누구나
◈접 수 처 : 종무소 054)833-2324

사주.퇴마.빙의.작명(신생아 이름) 수강생 모집



달마스님
KBS. MBC 방송출연

◆사주풀이 구궁팔괘법 ◆심령을 통하는 기도
◆하루일진 래정법 ◆육혼법
◆제갈공명 천비술서 ◆귀신뽑은 신통술

전생요법 모습의 점괘로 왜 왔는지, 무슨 조상 귀신이 붙었는지 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술

※스님들도 꼭 알아야 인기가 있고 신도가 많다 ■모집인원 : 10명 ■교육비용 : 100만원

❖부부인연 원진살 살풀이법 ❖신년운세, 직장취직운
❖조상원귀법 영가천도 ❖귀문관살 푸는 법
❖병을 일으키는 악령귀신 푸는 법 ❖백호대살 부는 법
❖육효점, 육임점, 하루일진 래정법

작명(신생아 이름) 음양오행 이름을 지어주면 만사형통, 건강, 재물, 학업성취

경기 성남시 성남동 2318번지 공설운동장 후문 입구(주차장은 공설운동장)
묘음정사 (달마 스님)
031)755-3775. 011-857-3775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래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충북 청원군 북일면 초정약수 토굴암
전화번호 : 043)214-1280 대진 스님

2009 만해축전 현장으로 고고씽~

# 만해 스님의 평화 사상 오늘에 오다

## 만해대상 시상식, 심포지움, 공연 등 볼거리 '풍성'

## 시조 부흥, 종교·사회 소통, 생태 상상력 증장 '이슈'

만해정신의 세계화를 실현하는 2009 만해축전(이하 축전)이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풍성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됐다.

만해대상을 비롯한 각종 시상식과 각종 심포지움, 시낭송, 공연, 백일장 등 문학적 열정을 만해의 상생과 평화 정신으로 승화시킨 축전은 11일 오후 2시 만해시인학교 개교식으로 시작됐다. 이어 이촌 김재봉의 '만해 한용운의 채근담 서예전'이 개막됐고 '서양사상과 선'을 주제로 하는 시와 세계 심포지움도 열렸다. 노래패 철가방 프로젝트와 가수 안치환의 축하공연으로꾸며진 전야제와 시낭송으로 장식된 전야제는 밤이 깊도록 흥을 돋우었다.

### #불멸의 인간사 미래로 이어가야

축전의 하이라이트인 만해대상 시상식은 12일 오후 6시부터 진행됐다. 올해의 수상자는 평화부문에 시린 에바디(이란 변호사 인권운동가) 실천부문에 이소선(전태일기념사업회 고문) 학술부문에 김용직(학술원 회원, 서울대명예교수) 문학부문에 로버트 하스(미국 버클리대교수)와 김종길(시인, 고려대명예교수) 포교부문 빤냐와로(붓다넷 웹마스터) 등 6명.

시상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조계종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백담사 회주 오현 스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진선 강원도지사, 박삼래 인제군수 등 기관장과 고은 김남조 이승훈 시인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유자효 시인의 사회로 진행된 입제식과 시상식에서 지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지구촌을 휘어감고 있는 물신의 폭풍으로 모두가 힘겨운 시절"이라며 "중생을 애호하는 아름답고 용기 있는 인류의 연대만이 우리 시대를 구원하고 나아가 무상한 세월 속에서도 불멸의 인간사를 미래로 이어가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유인촌 장관은 "만해 스님의 애국사상과 문학정신이 우리 사회와 지구촌에 널리 알려져 어둠을 밝히는 환한 등불이 되길 바란다"며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김진선 지사는 "내년에는 도지사 직을 물러날 것이므로 한 관객으로 이 자리에 참가할 것"이라고 말해 청중들의 박수를 받았다.

평화부문 수상자 시린 에바디 변호사는 수상소감을 통해 "이란에서는 종교자유가 없다. 개종을 하면 사형에 처해진다"며 이란의 종교 사회적 억압과 인권 침해 등을 토로했다. 경찰에 의해 사무소를 폐쇄당하기도 한 그는 "만해대상평화상 수상자로서 인권운동가 사무소를 열 수 있길 바란다"며 한국과 세계인의 관심을 당부했다.

"나는 배운 것도 없어 얘기도 길게 못 한다"며 수상소감을 밝힌 이소선 여사는 참가자들을 숙연하게 했다. 이소선 여사는 "지금 이 나라를 이만큼 만드는 데는 노동자들의 피땀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이 상은 이소선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는다"고 말했다.

### #올해도 풍성한 프로그램

올 축전은 하버드대학에서 5월 15일 열린 '만해시조페스티벌'을 비롯 다양한 내외부 행사로 꾸며졌다. 올 축전의 주요 이슈는 시조의 부흥과 종교와 사회의 소통, 생태적 상상력의 증장 등이 꼽힌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 법정 스님 수필에서 '생태'를 건져 올리다

### 평론가 임헌영씨 발표문 주목… 불교문예 심포지움



만해축전에서 불교문학과 세상의 소통을 추구해 온 <불교문예>는 올해도 '불교문학과 생태적 상상력'을 주제로 심포지움을 열었다. 4대강 개발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 등을 놓고 국민적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생태적 삶은 문학에서도 커다란 화두가 된 것이다.

8월 12일 만해마을에서 열린 심포지움에서 문학평론가 임헌영(사진)씨는 '법정 수필에 나타난 생태적 상상력'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법정 스님의 수필이 문학평론가에 의해 분석되고 평가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임헌영씨는 법정스님의 산문집 13권 기행집 1권 번역서 4권을 다 읽었다. 그는 '무소유 사상'의 불교적 견해와 삶에 적응되는 가치 등을 살피며 법정 스님의 글 속에서 생태적 가치관을 도출해 냈다.

그는 "법정 스님의 수필이 보여주는 생태적 측면은 불교적 연기설에 입각한 공동체 의식"이라고 결론 지었다.

**임연태기자**



만해시인학교.



수상소감을 밝히는 이소선 여사.



축하만찬.





##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 108사찰순례

### 월봉사, 봉하마을로

울산 월봉사(주지 오심)는 8월 25일 108사찰순례를 맞아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넋을 기리기 위해 봉하마을로 떠난다.

오전 6시 월봉사에서 집결,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과 노 前 대통령 생가 등을 둘러보고 봉화산 정토원(원장 선진규)을 참배하는 코스다.

한편, 봉하마을에는 지난 5월 23일 노 前 대통령 서거 이후, 전국에서 수천만명에 이르는 추모인파가 마을을 다녀갔고, 유골안장식이 끝난 지금도 추모객이 끊이질 않고 있다. (052)251-4602

박지원 기자

## 화방복지원 남해병원 협약

사회복지법인 화방복지원(대표이사 이암)과 의료법인 남해병원(병원장 장명세)이 남해군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낙후된 보건 · 의료 발전을 위해 두 팔을 걷어 올렸다.

(사)화방복지원은 7월 23일 화방동산에서 남해병원과 협약식을 갖고, 복지원 입소 어르신들의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지원과 정기검진 등 지역 내 어르신들의 지킴이가 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은 복지원 내 입소 어르신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병원 측에서 신속 대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남해병원은 복지원과 5분 거리에 있어 빠르게 응급처치가 가능한 이점이 있다.

또, 주 1회 정기검진을 실시해, 입소 어르신 뿐만 아니라 복지원을 이용하는 모든 지역 어르신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화방복지원 대표이사 이암 스님(화방사 주지), 용문사 주지 성전 스님, 장명세 남해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지원 기자

# 송이송이 연꽃 피워올려

## 정토사 여름불교학교 성황… 140명 동참

울산 정토사(주지 덕진) '연꽃어린이 여름불교학교'가 올해로 46회째를 맞았다.

8월 8~10일 2박3일간 정토사와 운문사 일대에서 펼쳐진 이번 여름불교학교에는 울산지역 유치원생 및 초 · 중학생 140여 명이 참가해 여느 해보다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부처님 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이란 주제로 참선, 명상, 독경, 예불, 설법, 팔정도, 오계 수계식, 정근, 참배, 물놀이 등 즐거운 놀이를 통한 다양한 수행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첫째날인 8일 입재식을 시작으로 갑작스런 환경변화로 인한 긴장을 완화하는 레크리에이션, 우리절 지도 만들기 반별 수업, 주지 덕진 스님의 법문, 공원묘지 공포체험 등이 진행됐다. 둘째날에는 아침예불과 운력, 불교 교리수업, 주지 덕진 스님의 법문, 108배 및 수계식, 캠프파이어 등 사찰의 하루를 체험했다.

마지막 날에는 청도 운문사를 참배하고,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며 3일간의 여름불교학교를 회향했다.

이번 여름불교학교는 46회째를 맞은 만큼 어린이포교에 남다른 노하우를 갖고 있다.

공양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고학년에게만 발우공양을 지도하고, 저학년과 유치원생은 식판을 사용해 가정과 다름없는 익숙한 환경을 만들어 줘 건강한 식습관을 기를 수 있게 배려했다.

100명 이상의 어린이가 한자리에 모여 자칫 어수선한 분위기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숙련된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20여 명을 담임교사로 배치해 안전과 교육의 효율을 높였다. 또한, 생소한 불교교리 공부와 수행활동 사이에 레크리에이션과 물놀이, 묘지에서의 공포체험 등 이색프로그램을 삽입해 흥미를 유발했다. 평소 법회와 기도의 공간이던 설법전과 삼천불전에서 취침하는 등 사찰에서의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한편 정토사에서는 연꽃어린이 토요법회를 운영 중이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유치원 및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정토사 '연꽃어린이 여름불교학교'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진지하게 참선에 들어있다.

# 흑백 필름에 담긴 범어사와 삶

## 고은사진미술관, 10월말까지 '이상일展' … 오온시리즈 전시

사진작가 이상일씨가 번잡한 세상의 풍경 대신 범어사의 새벽, 깨어나는 만물을 향해 카메라를 들었다.

부산 고은사진미술관(관장 이재구)은 8월 14일~10월 31일 기획초대전으로 '이상일展'을 선보인다.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살아가고 있는 나'를 돌아보는 '으므니', 고향 사람들의 현재 모습을 통해 지난 유년의 기억과 대면하는 '기억의 거울-고향사람들', 새벽시간 범어사를 담으며 존재와 인식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오온'시리즈를 전시한다.

특히 '오온'시리즈는 근래 보기 드물게 최대 100×200㎝ 규모의 흑백 은영 프린트(gelatin silver-print)로 제작돼 단순한 인화방식을 넘어 작가의 물음에 관객이 보다 가깝게 다가설 수 있도록 만든 장치로 관객과의 소통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하다.

'이상일展'은 우리는 타자를 통해 '나'를 드러내며 세상과 소통하고자 한 작가가 그 역시 아상임을 깨닫고, 다시 내 안으로 돌아서 결국 나를 사진행위를 통해 벗어 던지고자 하는 사진가로서 고민의 여정을 만날 수 있다.



이상일 作 '으므니2'.

이상일 사진가는 1000년 광주비엔날레 재단에서 수여하는 '광주비엔날레 최우수 기획전상'을 수상하고, 올해 동강국제사진제 국내부문에서 동강사진상을 수상하며 활발히 활동중이다. (051)746-0055

박지원 기자

## '영양·정성 듬뿍' 삼계탕 공양

여름철 더위에 약한 어르신들의 보양을 위해 불교계 복지관들이 영양만점 삼계탕을 끓였다.

(사)불국토(이사장 혜총)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8월 13일 말복을 '삼계탕데이'로 정하고, 삼계탕 300인분을 어르신들께 손수 대접했다. 이날 점심시간에 용호동 지역 내 홀로 사는 어르신 및 결식 어르신 300여 명이 영양과 정성이 듬뿍 담긴 삼계탕을 공양했다.

이에 앞선 8월 7일 (사)늘기쁜마을(대표이사 지현) 두송복지관도 사랑의 삼계탕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BS부산은행 다대2동지점 후원으로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준비하고, 배식에 직원들이 참여해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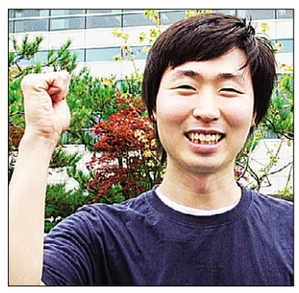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 류용선 지부장

# "부산불교 제2전성기는 대불련이…"

대불련 부산지부의 신임지부장이 7월 25일 2년만에 새롭게 선출됐다. 학우들을 향한 포교와 대불련 부산지부의 사활이란 무거운 숙제를 어깨에 짊어진 신임지부장 류용선(25 · 부경대 2 · 사진)씨는 주위의 걱정 어린 시선이 무색할 만큼 열정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



"종교동아리라고 하면 맹목적 믿음만 강요하는 재미없는 집단일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싶었어요. 큰스님들의 법문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또 불교적 수행이 학업과 삶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직접 겪어보지 않고 도망가는 학우들의 마음을 돌릴 겁니다."

이런 류용선 지부장의 자신감의 근원은 부경대학교 불교학생회에서 찾을 수 있다. 이곳은 등록된 회원만 40여 명이 넘는, 대학 내에서 유명한 인기 동아리다. 6평 남짓의 작은 동아리방에서 회원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공부를 하고, 학교생활과 취업 등에 관해 대화하고 정보를 나눈다. 출입문에는 그 옛날 선배들이 그렸을 멋스러운 달마도가 그려져 있고, 창가의 양지바른 자리에 부처님을 모셨다. 2주에 한 번씩 가지는 정기법회 때는 공간이 넓은 용당캠퍼스의 불교학생회실을 찾아가지만, 불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학생이라는 자부심은 대단하다. 현재 대불련에 소속된 대학은 부경대학교와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등 단 3곳이고, 이들 역시 정확한 회원수를 집계하기 힘든 형편이다.

"학교마다 불교학생회가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아서, 우선각 학교의 불교학생회장 및 전 회원 간의 인트라를 구축해 정보교류를 활성화해 상호 발전할 수 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교를 모르거나 어려워하는 학우들이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템플스테이 등의 다양한 신행프로그램을 개설해, 절에 가서 법문 듣고, 수행하고, 불교문화를 만나러 오도록 만들어야겠죠."

1년의 짧은 임기지만 류용선 지부장의 포부가 당차다. 2년만의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준 대불련 부산지부 총동문회(회장 홍상명) 선배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가르침이 있어 더욱 든든하다. 초량동 소림사에서 대불련 부산지부 정기법회에 참석해 큰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가을이면 동문체육대회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에 류 지부장은 "재학생들이 재기발랄한 행사를 준비해 선배님들을 초청해야하는데 거꾸로 돼 너무 죄송하다"며 "반드시 부산 대불련을 일으켜 세우고 옛 명성을 되찾아 이런 감사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산에서 대불련은 회생하기 힘들 것이란 몇몇의 만류를 들을 때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그 일을 한다'는 생활신조를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새겼다.

그는 "불교의 수행을 통한 자아성찰의 과정은 사고를 유연하게 해, 학업뿐만 아니라 회사 업무와도 근본적인 맥락이 같아 대학생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수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불교 제2의 전성기'를 위한 대학생불자들의 고군분투가 시작됐다. 이들을 이끌어 주는 것은 모든 불자들의 몫이다. (010)3927-0607 박지원 기자


#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 자동차용호신불

##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앞면 뒷면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쳐!**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반가사유상 호신불이다. 우리나라 호신불의 역사는 삼국시대 신라부터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했으며 호신불을 몸에 지니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해진다. 한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인 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수호신으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반가사유상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다. 생명보호와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동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차량구입시 사고예방과 생명보호의 선물**

가격45,000원

**신청전화 :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영험의 구슬



# 보궁여의주

##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것이 이루워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었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같아요, 어머니는 아들 형제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번 낙방만 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건강장수 하고 관료가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라고도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헤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는 구슬로 사갈라 용궁에도 있고 여의륜관세음부처님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워지는 비방의 법구로 삼고 있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문제로 인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준비를 하고, 승진시험도 승진심사날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보궁여의주는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하는 비방의 법구다.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길상원목으로 품위있게 제작하고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준다.

(신용카드분할가)

보시가격 : 9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 독일 태권도 대표도 청각장애우도 사찰로

## 금산사 · 우리는선우 · 송광사 · 포교사단 · 연화원 이색수련회 '눈길'

여름을 맞아 곳곳에서 수련회가 열리는 요즘, 김제 금산사 등 호남지역 사찰에서 이색수련회가 잇따라 열려 눈길을 끈다.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에서는 8월 8~10일 독일 청소년태권도 대표단(감독 홀거 분더리히) 20여 명이 불교문화체험을 했다.

독일 선수단은 숲 속에서의 명상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새벽예불과 맨발 걷기명상, 다도, 발우공양 등 불교문화를 경험했다. 또, 태권도 수련, 수벽치기를 관람하며 태권도의 본고장 한국의 전통무예를 익혔다.

줄리아 바란스키(17)는 "태권도의 본고장인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 가부좌를 틀고 앉는 것이 가장 곤혹스러웠지만 발우공양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주 우리는선우**(회장 오종근)와 **완주 송광사 청년회**는 6~7일 전주 송천정보통신학교(구 소년원)에서 2009년 여름 수련회를 개최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한 비행청소년 교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47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입재식에 이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108참회, 자비명상과 선체조, 찬불가 배우기, 불교문화 이해하기, 불교관련 영화감상, <부모은중경>을 통한 부모님에 대한 감사편지 쓰기와 서로 마음을 열고 이해하는 즐거운 오학시간이 펼쳐졌다.

특히 참가자들은 "~구나" "~겠지" "~감사하겠다"를 채우는 간단한 3줄 발언시간에 큰 호응을 보이며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성훈(가명 · 18)군은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 분이 엄마구나, 저 분의 마음이 우리 엄마마음이겠지, 감사하구나 우리 엄마 행복했으면 좋겠다"며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다.

정수철(가명 · 17)군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 며 "신경써주시는 여러 불자님들을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전주 송천정보통신학교는 120명의 10대 청소년들이 수용돼 중학교 과정을 배우며 지난날을 참회하고 범죄의 손길에서 벗어나 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교정교화1팀**(팀장 송영기 포교사)도 10~11일 광주고룡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 종교실 법당에서 원생 15명과 교정교화 포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했다.



8월 8~10일 김제 금산사를 찾은 독일 청소년 태권도 대표단이 발우공양하고 있다.



사회복지원 연화원이 8월 7~9일 정읍 내장사에서 개최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여름수련회.

행사는 포교사단 포교사들의 지도로 한글 <천수경> 독송과 참선, 불교 기초교리강의, 신행상담, 찬불가 연습과 사경, 108참회 정진, 영화보기 등으로 진행됐다.

이재언 포교사는 "허구한 욕망에 빠져 진실한 자기자신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원생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일반 가정과 사회에 안착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광주고룡정보산업학교는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수용해 규율 있는 생활 속에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건축환경설비, 중장비 운전, 자동화용접 등 기능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전문 소년원이다. 광주 지역단 포교사들은 96년 소년원 출범 당시부터 14년 동안 법회를 비롯해 여름과 겨울 불교학교 개최해 왔다.

**사회복지원 연화원**(원장 해성)은 7~9일 정읍 고내장사(주지 진공)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여름수련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37명의 청각장애인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내장사 · 백양사 참배, 예불, 탑돌이, 108참회, 발우공양, 수화 찬불가 부르기, 팀별 팔상성도 그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 자신의 신체적 장애가 자신의 삶에 어떠한 장애가 되는지, 그 장애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토론하고 격려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해성 스님은 "청각장애인들이 대중생활을 통해 도움을 주는 불제자로 자립하는 계기를 갖게 하고자 수련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청각장애인불자회장 한영진(36 · 서울 남가좌동)씨는 "농아인들은 보고 들을 수 없어 불교에 대해 너무 궁금해 하던 차에 이런 행사를 열어줘 고맙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완주 위봉사 관음회 박순자 회장

## "부처님 가르침 봉사로 사회 회향"

매월 4째주 일요일이면 전북 임실 제6탄약창 호국장영사를 찾는 장병들은 하나같이 들뜬 표정이 역력하다. '떡볶이 보살님'들이 방문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떡볶이 보살님들의 정체는 위봉사 관음회 회원들. 그들은 호국장영사를 방문할 때마다 신세대 장병들이 좋아하는 간식거리를 푸짐하게 준비해온다.



위봉사 관음회를 이끌고 있는 박순자(62 · 연화심 · 사진)회장은 이날도 자장면을 준비해 장병들의 기대에 화답했다

관음회는 1999년에 창립돼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애초에 위봉사 선원의 스님들과 제방의 선원에 대중공양을 위한 목적으로 창립된 단체로 매 안거마다 제방선원의 수좌스님들에게 대중공양을 해왔다.

한편으로는 독거노인과 소년소년 가장들을 보살피는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도 아끼지 않았다. 이런 관음회가 군부대와 인연을 맺은 것은 5년전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당시 관음회는 불자장병들에게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던 이성강 포교사를 통해 불자장병 200명에게 떡국을 제공했다.

"떡국을 맛있게 먹는 장병들의 모습을 보고 회원 모두가 군포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위봉사 관음회의 활동에서 군부대 방문이 빠질 수 없었죠."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연화심 보살은 군부대를 방문할 때마다 3일전부터 회원들과 함께 준비에 나선다. 떡볶이를 비롯해 자장면, 비빔국수, 냉면, 토스트, 감자전, 떡국 등의 메뉴가 정해지면 회원들과 함께 장을 보고 손수 준비해 장병들에게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다.

관음회의 활동에는 위봉사 주지 법중 스님의 후원 또한 큰 힘이 되고 있다.

반농반선을 실천하는 위봉사의 특성상 대중들이 소비하는 모든 식재료를 자급하는 위봉사의 채마밭을 돌보는 것도 신도와 관음회의 몫이다.

여기서 생산된 채소는 위봉사 대중 뿐만 아니라 정신지체 수용시설인 송광사 정심원, 인근 복지원, 불교회관의 경로식당에도 후원되고 있다.

관음회원들이 적극적인 봉사활동에 나설 수 있었던 것도 위봉사 법중 스님의 이같은 실천하는 행에서 비롯된 위봉사만의 가풍이 있었기 때문.

관음회가 모범적인 익산지역 신행단체로 인정받는 이유는 이외에도 회원들의 자발적인 보시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는 것은 물론 회원 가족, 거사님들도 자발적으로 함께 봉사활동에 동참한다는 것이다. 거사들은 봉사현장에 갈 때마다 운전은 물론 설거지는 의례 거사들의 몫일 정도로 적극 참여하고 있다.

연화심 보살은 "40년 전 외할머니의 심부름으로 절에 드나든 것을 인연으로 불교에 귀의했다"며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의 법문을 마음에 새기며 봉사를 통해 사회에 회향하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화심 보살은 "활기찬 병사들의 표정에서 위안을 삼는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 산사음악회에서 문화운동으로

### 무등산풍경소리 7주년 기념 콘서트 열어

종교와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작은 음악회 '무등산 풍경소리'가 7주년 기념 공연을 가졌다.

무등산풍경소리(이사장 지장)는 8월 8일 광주 증심사 취백루에서 '무등산 풍경소리 7주년 기념 피아노와 이빨 윤호간 콘서트'를 개최했다.

음악회는 하우스 힙합팀의 수트케이스 공연을 시작으로 무등산풍경소리 음악회의 기록을 담은 7주년 기념 영상 상영이 펼쳐졌다. 공연 도중 손세실리아의 시낭송이 이어지고 아름다운재단의 '참 좋은 나눔연주자' 제1호이자 피아노공연의 고정관념을 깬 피아니스트 윤호간의 공연이 이어졌다.

공연에 앞서 지장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무등(無等)은 차별이 없다는 뜻"이라며 "풍경소리를 단순한 산사음악회가 아니라 사람과 자연을 차별없이 대하고 생명과 환경을 사랑하는 문화운동으로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무등산 풍경소리'는 지난 2002년 7월 무등산 증심사에서 작은 무대를 만든 것이 계기가 돼 지금껏 공연이 이어지고 있다. 풍경소리는 다달이 무등산 자락 증심사 앞마당에서 생명사랑과 환경보전을 노래하고 얘기하는 마당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 '종교차별' 강좌

### 8월 22~23일

광주전남지역에서 종교차별을 올바로 인식하기 위한 강좌가 열린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성오)는 불교아카데미(이사장 전우희)와 공동으로 8월 22~23일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관에서 광주전남지역 사찰 및 신행단체를 대상으로 전문 강좌를 실시한다.

강좌는 지역내 불교 호법전문활동가 40여 명을 양성하고 조직화 하기위해 실시된다. (062)376-3223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 광주 최초 전통 구조 가람 탄생

### 증심사 사천왕문 복원불사 상량

광주지역 전통사찰 중 최초로 전통적 사찰구조(일주문-사천왕문-누각-대웅전)를 갖춘 가람이 탄생했다.

광주 무등산 증심사(주지 지장)는 8월 6일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증심사 사천왕문 복원불사 상량식을 봉행했다.

증심사 사천왕문은 1609년에 세워져 정문누각 취백루 1층에 사천왕 4기가 봉안돼 있었으나, 한국전쟁때 화재로 소실됐다. 상량식을 가진 사천왕문은 1998년 복원된 취백루에 이은 불사로 국비 5억원과 사찰부담 6000만원의 예산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형태를 갖췄다.

지장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지역에 전통적 사천왕문이 있는 사찰이 없었으나 이번 사업은 민족사의 우여곡절과 함께 사라진 사천왕문을 복원한데 의미가 있다"며 "전통사찰의 사격을 제대로 갖추게 되어 지역민들에게는 문화적 자부심을 지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의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사천왕문은 인간의 선악을 관찰하고 수행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불국정토의 동서남북을 관장하는 지국천왕, 광목천왕, 증장천왕, 다문천왕 등 사천왕상이 봉안돼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 "업장소멸 법륜대 복장 행사 개최!"

지금 법당 탁자위에 한분 한분 명단이 적힌 경책이 쌓여가는 이유가 있다. 부처님이 새겨져 황금빛으로 빛나는 초소형 경책을 법륜대에 복장하기 위해서다. 집안을 위한 금강경과 건강발원으로 약사경, 수험생을 위한 반야심경에 이름을 붙여 복장하는 독특함이 있다고 한다.

한분 한분 제각기 다른 소원을 가지고 돌릴때마다 공덕을 쌓느라 법당에 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양쪽 법륜대의 1080분 명단이 돌아감은 물론 이름 수대로 경책을 할 수 있어 이 시대 포교와 사찰경제 지킴이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혜택)

1. 순금 개금비만 도착 시 지불하시고(봉안시) 나머지는 연중 4회 (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는 혜택을 드립니다.
2. 한분 한분 명단 및 주소를 적을 수 있는 카드형 권선문을 드립니다.
3.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춤식 소법륜형, 보급형, 특대복장봉안작품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고 선택하시는 분에게 특별한 선물과 경책 견본을 드립니다.

**한분 한분 수작업으로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추어 직접 봉안하여 드립니다.**

불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중생의 업장 소멸법륜대를 가장 평안하게 봉안 할 수 있는 절묘한 기회입니다.
양쪽 법륜대 1080분의 명단과 복장 불사로(일억원) 사찰경제 기반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 佛法 바르게 전하는 '지혜의 대물림' 장엄하도다

## 양대 강맥 전강 대법회
## (兩大 講脈 傳講 大法會)

2009년 8월 9일 일요일 오후 2시, 석가모니 부처님의 78대손인 대원 문재현(大圓 文載賢) 전법선사(傳法禪師)님이 주재하는 정법도량, 경기도 포천의 국제 정맥선원에서 전강 대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국내 유일의 북방과 남방의 양대 강맥, 금강산 장안사 화엄종주(華嚴宗主) 회광 사선불(晦光 師璿佛)의 강맥과 가야산 해인사 용성 진종(龍城 震鍾) 대조사(大祖師)님의 강맥을 전하는 전강의식이 있었습니다.


대중을 향해 '할' 을 하는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

당대에 천지를 뒤흔드는 법거량으로 뭇 선지식의 아낌없는 인증을 받고 용성(龍城)문중과 만공(滿空)문중의 법을 한 몸에 받으신 '지혜제일' 전강(田岡)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大圓 文載賢) 전법선사(傳法禪師)님께 국내에서 유일하게 북방과 남방의 양대 강맥을 한 몸에 지니신 가산(迦山) 큰스님께서 양대 강맥을 전하셨으며 특히 양대 강맥을 전하는 신표로, 금강산 강맥의 불자(拂子)와 달라이라마로부터 받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함께 전하셨습니다.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과 가산 큰스님은 과거 가야산중의 사형, 사제로 함께 승려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가산 큰스님은 항상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의 법을 흠모해오던 중 불법문중에 깨달은 이가 없어 모든 경전과 조사어록이 눈뜬 안목으로 바르게 번역되지 못해 불법이 마설로 번지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큰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2009년 5월 9일 가산 큰스님이 국제정맥선원을 방문하여 용성 대조사님으로부터 봉암 대희(鳳庵 大喜) 대강백에게 이어져 다시 가산 큰스님에게 전강된 강맥이 봉암 대희 대강백으로부터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께로 직접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강, 바른 번역은 깨달은 이가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확철대오하여 일체종지를 이루어 77조 전강 대선사님으로부터 법맥을 이어받은 78대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께 봉암 대희 대강백으로부터 직접 받은 강맥을 내놓고자 하신 것입니다. 불경이나 선서 번역이, 법맥과 강맥을 함께 이어받은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에 의해 감수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께서는 후세에 법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있을 수 있는 잘못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끝내 가산 큰스님의 청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제인 가산 큰스님이 존경하는 법형인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께 양대 강맥을 전강하는 의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위법망구(爲法忘軀)라. 법을 위해서 당신이 받은 국내 유일의 양대 강맥을 아무 망설임 없이 내놓으시고 자한 가산 큰스님과 불법의 바른 전승을 위해 손쉬운 길을 마다하고 굳이 사제에게 전강을 받는 일을 기꺼이 감수하신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어느 쪽이 더하고 덜할 것 없이 불법을 위한 몸을 잊은 희생과 만인을 위한 자비의 보살심에 정맥선원 대중 모두는 불도를 수행하는 이들과 불법을 믿는 불자들을 대신하여 무릎 꿇어 우러러 찬탄하고 감사의 삼배를 올립니다.

부처님 당시에 불법의 바른 전승을 위해 가섭 존자와 아난 존자 사이에 사제가 제자가 되어 사형으로부터 법맥을 잇는 일이 있었으니 그것은 이변(깨달음)의 바른 전승을 위한 희유함이요, 이제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과 가산 큰스님 사이의 사제가 사형에게 전강하고 사형이 사제에게 전강을 받아 강맥을 잇는 이 일은 사변(깨달음을 전하는 경전 번역)에 있어서의 불법의 바른 전승을 위한 희유함이니 이 어찌 놀랍고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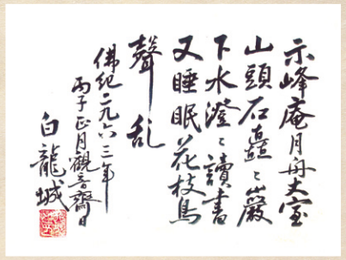
불법이 쇠퇴하고 서로 자리다툼과 이익다툼에 눈먼 이들이 많은 오늘날 법을 위한 부동의 지표, 금강의 나침반이 되어주신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과 가산큰스님께 다시 한 번 그 참답고 실다움을 찬탄하며 그 희유함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삼배를 올립니다.

### 백용성 대조사님이 봉암 대희(봉암 월주) 대강백에게 내린 전법게


백용성 대조사 진영

봉암 월주 장실에게 보이다

산머리 돌은 우뚝 솟구쳤고
바위 밑의 물은 맑고 맑도다
글을 읽고 또 조는데
꽃가지의 새소리 자자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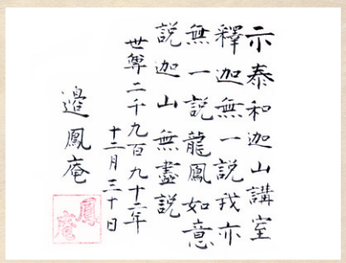


### 봉암 대희 대강백이 석가산 대강백에게 내린 전강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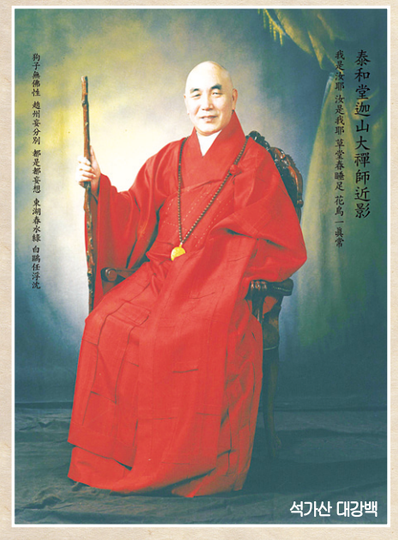

봉암 대희 대강백 진영

태화 가산 강실에게 보이다

석가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
나 또한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데
용성은 봉암에게 뜻과 같이 말했으니
가산은 다함없이 설하여라



### 석가산 대강백의 전강 법문 및 전강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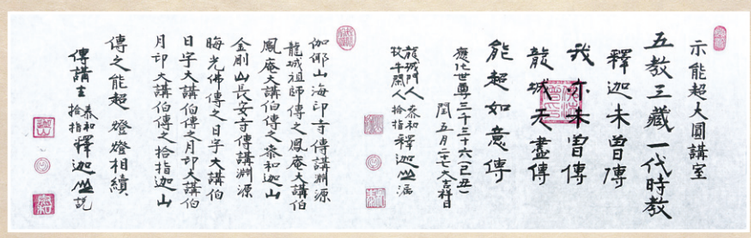

석가산 대강백

산승에게는 두 가지 강맥이 있으니 그 하나는 북방의 금강산 장안사 회광불이라고 일컬어지는 화엄종주의 강맥이며, 또 하나는 남방의 해인사 육신보살이라 일컬어지는 삼일 독립운동의 민족대표이신 용성 진종 대조사의 강맥입니다. 이 두 강맥을 산승은 송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께 전하고자 합니다.

능초 대원 강실에게 보이다

석가께서 일찍이 전한 바가 없고
나 또한 일찍이 전한 바가 없는데
용성은 다함 없이 전했으니
능초여 뜻과 같이 전할진저

▽ 전강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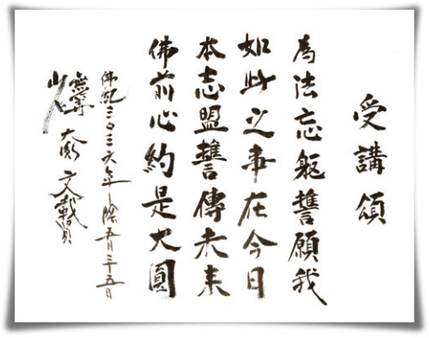

법단에 오르는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좌)과 석가산 큰스님 (우)

## "이 큰뜻 헛되지 않도록 정법위해 쉼없이 노력"

###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의 수강 법문 및 수강송

근대의 선지식 중 그 지혜가 밝아 유일하게 우주론에까지 조예가 있었던 백용성 대선사님의 강맥은 강맥 그대로가 법맥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금강산 장안사의 강맥 역시 국내에서 유일하게 석가산 대강백만이 받아 지닌 강맥이라 할 것입니다.
미래에 바른 불법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없는 역경(譯經)으로는 안 되기에, 지금으로부터 48년 전인 1962년 대구 동화사에서 전강 대선사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부처님의 혜명을 이은 이 사람이 이 양대 강맥을 꼭 받아 지녀야 한다는 석가산 대강백의 간곡한 청을 받아들였으니 이 큰 뜻이 헛되지 않도록, 정법을 위한 일들을 쉼 없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다짐하는 바입니다.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



### 수강송

법을 위해 몸 잊을 것 서원한
이 사람이기에
이와 같은 일이 오늘에 있음일세
근본 뜻을 맹세코 미래까지 전할 것을
부처님전 마음으로 약속하는
대원이니다



### 화엄수강송

동산에 뜨는 달 옥구슬 같고
서령에 지는 해 황금과 같네
언하에 곧바로 일없는 이라야
화엄을 누리는 대장부라 할 걸세

今日此事都歡喜 하야
林裏禽獸在歌唱 하고
山川草木讚嘆舞 인데
是會大衆會未麽 아
喝!
(柱杖二下)

오늘의 이 일을 모두가 기뻐들 하여서
숲속의 금수들도 노래를 저리들 부르고
산천의 초목들도 찬탄의 춤을 추고 있는데
이 모임의 대중들은 아십니까, 모릅니까?
악!
(주장자를 두 번 치다)



월서 스님의
## 주련 이야기 29

# 중생교화 위해 세상 소리 듣다

**[원문]**
一葉紅蓮在海中(일엽홍련재해중)
碧波深處現身通(벽파심처현신통)
昨夜寶陀觀自在(작야보타관자재)
今日降赴道場中(금일강부도량중)
–향일암 관음전

**[번역]**
한떨기 분홍 연잎 바닷물에 떠오르니
푸른 파도 깊은 곳으로부터 부처님이
현신하셨네.
어제 밤에 보타 낙가산의 관세음보살
금일 도량에 나투시도다.

**[선해(禪解)]**

우리나라에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사찰이 많다. 산속의 절은 넉넉하게 부처님의 자비를 품고 있고 바닷가의 절은 한 폭 풍경화처럼 다소곳하게 앉아 있다. 천년 동안 풍상(風霜)을 견디고도 온전하게 버티고 있는 것이다. 실로 자애로운 부처님의 공덕이 아닐 수 없다.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폐허가 된다. 세상의 모든 인위적인 것들은 그냥 그대로 두면 썩기 마련이다. 하물며 바닷가의 절이나 깊은 산속의 절도 스님들이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법당 마루를 쓸고 닦거나 부처님의 법신(法身)을 닦는 것도 승가에서는 하나의 수행이다. 스님들은 평생 그렇게 절을 자신의 수행처로 삼고 소중히 보존해 왔다.

그런데 이를 정부와 일반 국민들은 알고나 있을까? 더욱이 성보사찰인 통도사나, 해인사, 월정사 등 수많은 사찰에는 국보급 문화재가 엄청나게 많다. 이를 관리하는 스님들이 없었다면 이미 그것들은 도굴이나 도적질로 망실되었을지도 모른다.

오늘날, 사찰의 문화재들이 온전하게 보존돼 문화유산으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다 지극정성으로 관리하는 스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만약, 정부의 시각으로 그 많은 문화재를 온전하게 보존하려면 엄청난 관리비가 들 것이 자명하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정부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

절은 비단 스님들만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재산이다. 오늘날의 사찰은 국민의 정신적 휴양처가 되고 있다. 다만 스님들은 그 절에 머물면서 수행처로 이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절 관리의 대부분이 불자들이 내는 시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과연 알기나 할까? 숭례문이 전소되고 난 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하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요즘, 사찰의 운영도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 시주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사찰경제도 날이 갈수록 힘들다.

몇 년 전, 정부는 사찰입장료를 없애버리고 문화재관람료를 내게 했다. 물론, 국민들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방대한 성보 사찰의 운영을 위해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함께 내놓아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다.

정부는 사찰 문화재관리 보수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줘야 한다. 사찰은 당연히 그런 보호를 받을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이다. 그런 절을 스님들만이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다만, 부처님의 제자로서 스님들이 관리 보호하고 있다는 것은 마땅히 옳다.

이와 같이 사찰경내는 천년의 문화유산이자 역사공간이며 스님과 신도들의 수행공간이다. 따라서 휴식, 놀이, 운동, 레저를 위한 공원 관리 개념인 자연공원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문화유산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관세음보살은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
**중생은 일망무제 바다 보며 '공덕'을 기다린다**

그러므로 사찰과 불교유적 등 문화유산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면 현재 입장료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정부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오늘의 사찰 주련여행은 전라남도 여수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돌산도에 있는 향일암이다.

화엄사의 말사로서 금오산(金鰲山)이 바다와 맞닿은 가파른 언덕에 제비집처럼 자리 잡고 있는 아름다운 암자인데, 전라남도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불과 25년 전이어서 전각들은 현대식이다.

향일암의 난간에 앉아 먼 바다를 바라보면, 왼쪽에는 중생이 서원에 감응했다는 감응도, 앞바다에는 부처가 머물렀다는 세존도, 오른쪽에는 아미타불이 화현했다는 미타도가 한폭 그림처럼 앉아 있다. 이 암자는 <여수군지> 및 <여산지>에 따르면 원효 대사(元曉大師)가 659년(의자왕 19)에 원통암(圓通庵)이란 이름으로 창건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950년(광종 9)에 윤필(允弼) 거사가 이곳에 수도하면서 원통암을 금오암(金鰲庵)이라 개칭하였다고 한다. 조선시대인 1713년(숙종 39)에 당시 돌산 주민들이 논과 밭 52두락을 헌납한 지 3년 뒤인 1715년에 인묵(仁默) 대사가 지금의 자리로 암자를 옮기고, '해를 바라본다'는 뜻의 향일암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금오산 기암절벽 사이의 울창한 동백나무와 남해의 수평선에서 솟아오른 일출 광경이 천하일품이어서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알려져 있다. 경내에는 대웅전과 관음전, 칠성각 취성루, 요사채 등이 있다.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 팔작지붕으로 배흘림이 있는 기둥을 세우고 그 위로는 창방(昌枋)이 얹혀져 있으며 헛첨차를 결구하였다.

공포는 기둥 위에만 설치하는 주심포계이며 처마는 부연이 있는 겹처마이다. 대웅전 안에는 1987년에 조성한 청동석가모니불과 관음 · 지장보살이 있다. 1988년에 조성한 영산회상도와 금니(金泥)로 채색한 신중탱화, 1983년에 만든 소형범종 등도 봉안돼 있다. 관음전은 대웅전 뒤쪽으로 떨어진 커다란 바위 위에 앉아 있다.

정면 3칸, 측면 1칸의 초익공계이며 바람막이 판이 달린 맞배지붕이다.

1991년에 조성한 관음보살상과 관음탱이 있고, 관음전 옆에는 석조관음보살입상과 동자상이 있다. 대웅전 뒤에 있는 일명 흔들바위는 경전을 펼쳐 놓은 듯한 형상인데, 이 바위를 한 번 흔들면 경전을 사경한 공덕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다. 그럼 주련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일엽홍련 재해중 벽파심처 현신통.'**

관세음(觀世音)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살펴본다는 뜻이며, 관자재(觀自在)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재롭게 관조(觀照)해 보살핀다는 뜻이다.

보살(bodhisattva)은 세간과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성자이므로 이 관세음보살은 대자대비(大慈大悲)의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하는 보살이다. 향일암 난간에 앉아 먼 바다를 보면 마치 지금도 연꽃위에 관세음 보살님이 눈에 보이는 것 같다.

**'작야보타 관자재 금일강부 도량중.'**

<화엄경>에 의하면 관세음보살은 인도의 남쪽에 있는 보타락산(普陀落山)에 머문다고 알려져 있다. 보타락산은 팔각형의 산으로, 산에서 자라는 꽃과 흐르는 물은 빛과 향기를 낸다고 한다.

그 관세음보살님이 어제밤 향일암에 나투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원을 세워 발원하셨다는 뜻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풍광(風光)이다.

하지만 향일암의 해를 바라보는 것은 그저 중생의 마음일 뿐, 해를 품안에 안은 것은 부처님의 도량이다.

그렇게 중생들은 일망무제의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오늘도 부처님의 공덕을 기다린다.

■ 조계종 원로의원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 달마혈맥론 29

# 도는 닦고 증득할 것도 없다

**[원문]**

又云 見本性爲禪. 若不見本性 卽非禪也. 假使說得千經萬論 若不見本性 只是凡夫 非是佛法. 至道幽深 不可話會 典敎憑何所及. 但見本性 一字不識亦得. 見性卽是佛. 聖體本來淸淨 無有雜穢. 所有言說皆是聖人 從心起用. 用體本來空名 言尙不及 十二部經 憑何得及. 道本圓成 不用修證. 道非聲色 微妙難見. 如人飮水 冷暖自知 不可向人說也. 唯有如來能知 餘人天等類 都不覺知. 凡夫智不及 所以有執相. 不了自心本來空寂 妄執相及一切法 卽墮外道.

또 말하기를, "본성을 보는 것을 부처라 하니, 본성을 보지 못하면 부처가 아니니라. 천경만론(아주 많은 경론)을 설한다 해도 본성을 보지 못하면 범부일 뿐 부처의 모습이 아니니라. 지극한 도는 깊고도 멀어서 말로도 이해할 수 없는데 경전으로 어찌 미칠 수가 있겠느냐! 본성을 보기만 하면 일자무식이라도 부처가 될 수 있느니라. 자기의 본성을 보면 곧 부처이니라. 성스러운 본체는 본래 청정해 온갖 더러움이 없느니라. 온갖 말씀이 모두 이 성인의 마음에서 일어난 작용이니라. 작용의 실체는 본래 공(空)해 명칭이나 말이 미칠 수 없는데 12부경이 어찌 미칠 수 있겠느냐. 도(道)는 본래 완성돼 있는 것이라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느니라. 도는 소리나 물질이 아니며, 미묘하고 보기 어려운 것이어서, 사람들이 물을 마셔보아야 차가운지 따뜻한 지를 스스로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니라. 또 남에게 말하지 말지니라. 오직 여래만이 알 수 있지 사람이나 천상의 무리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니라. 범부는 지혜가 미치지 못하므로 상(相)에 집착을 하는데 자기의 마음이 본래 텅 비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이 사상(事相: 작용의 모습)과 온갖 법에 집착하면 곧 외도에 떨어지니라."


양정명(梁鼎銘) 作 '달오상(達悟像).

**[해설]**

'일상삼매(일상삼매)란 우주를 하나로 보는 자리를 말하지요. 과거로부터 익혀온 모든 습과 업을 녹여서 우주와 하나가 될 때 부처라 하며 경을 외우고 염불을 한다고 해도 성품을 보지 못하면 사견(邪見)이요 외도(外道)의 견해입니다. 본래 성품자리는 문자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이니, 어찌 경으로써 성품 자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정진을 통해서 성품을 본다면, 부처라 합니다. 부처 자리는 모양이 없는 자리이니 생도 죽음도, 늘어나거나 줄어듦도 없으며, 더럽고 깨끗한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양이 없는 자리이니 모양이 없다 해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경(經)은 길이니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신 이정표입니다.

'도(道)는 본래 완성돼 있는 것이라 닦을 것도 없고, 증득(깨달음)할 것도 없느니라.'

우주의 근본 실상 자리는 어떤 이름도 붙일 수가 없지만 부득이 달마 스님께서는 여기서 '도(道)'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근본 실상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없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겁니다. 본래 있던 것을 다만 깨달았을 뿐입니다. 도는 본래 있었던 것이므로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모두 마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소리나 물질이 아니며, 미묘하고 보기 어려운 것이어서, 사람들이 '물을 마셔봐야 차가운지 따뜻한지 알 수 있는 것과 같다'고 달마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그 자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본문에서 미묘하다는 것은 우주의 실상, 즉 모양이 없는 자리에서 온갖 것이 다 나오니까 미묘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주의 근본, 즉 하나의 마음으로 돼있는 이 자리를 '참 진(眞)' 자, '텅 빌 공(空)' 자를 써서 진공(眞空)이라 하는 겁니다. 참 공한 가운데 묘한 것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모양이 없는 마음자리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온갖 것이 다 들어있다 하기에 '미묘하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물을 마셔 봐야지 맛을 알듯이 설명을 아무리 해도 안됩니다. 체험을 해야지 내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체험이 안 되면 얘기를 한다고 해도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 전생에 남아있는 업을 녹이기 위해서 꾸준히 정진을 하셔야 됩니다. 달마 스님께서 깨달은 진리의 세계는 경험을 하지 못한 분들은 와닿지 않겠지만, 이 분의 말씀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 도리를 알 수 있기에, 일반 사람들이나 천상의 신들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분명 우리 육신은 지금 이 순간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지구도 일초에 37km의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으니, 육안으로 보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변하는 가운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마음 당체(當體)에 마음을 두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진리에서는 그 어떤 표현도 할 수 없는데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자체가 법상(法相)입니다. 상에 빠진 거예요. 어떤 문자어로도 표현 할 수 없는 그 자리인데, 중도(中道) 역시 아닙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 빙의 · 퇴마 ·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 교육 기간 _ 6주
• 모집 인원 _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_ 100만원
• 시간없으신 스님들을 위하여 2박 3일 실습위주로 교육 (hard training) 신분비밀보장, 숙식제공
★ 개인 특별지도 ★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스님들만 교육받는 유일한 곳
6주 24시간, 짧은 수련기간, 최면 시술사 완성이라는 문구에 "정말될까?"라고 반신반의 하면서 공부하셨던 100여분의 스님들이 전국 각처에서 활발하게 최면 시술을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람과 자부심도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스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 무초 정락 합장
특별상담환영
http://www.yuma119.com
(사)유마 최면 연구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26-20번지 ☎032)349-0666
수련원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한운리 171번지 백련사
010-5100-6612

佛 불영TV www.불영.kr
바르고 빠른 뉴스 불영TV!
뉴스,법문,다큐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불영TV!
불영TV는 사찰홍보,행사,불교 관련기업 홍보영상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방송으로서 타 매체보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한 걸음 더 다가서고자 합니다.
※ 불영TV에서 판매 중인 스님 법문 동영상 CD
◇ 원통스님 관세음보살보문품 동영상1셋트 CD30장
◇ 원순스님 원각경 동영상 1셋트 20장 CD
◇ 각성스님 능가경
주요사업 안내
1.홍보영상 제작
불영TV에서의 동영상 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세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릅니다.
2.사업분야
사찰홍보,행사,개인다큐,법문 등의 동영상을 제작해 드립니다.
3.프로그램 판매
불영TV 동영상 프로그램 구입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바랍니다.
□ 문의 |
02)2236-7208 / 017-207-7208
도암 합장

사) 대승불교 조계종 부산교구
범음,범패 의식 불교대학
제1기 학인 모집 안내
◆ 교 육 과 정 ◆
이론교육 : 본 종단 총무원장 한파스님 직강
실기교육 : 본 종단 강주 교육부장 성각스님
1. 기본과정 : 각단, 각청 불교제반의식
2. 49재 및 천도재 의식
범음범패, 상단권공 및 대령, 관욕, 시식
천수바라무, 오공양 작법무
⊙영남 의식을 기준으로 함.
◆ 개 강 일 : 양, 8월 21일 금요일
◆ 수강일정 : 매주 화, 수, 금요일
◆ 수강시간 : 오후 3시
◆ 교 육 비 : 개강일로부터 1개월 무료
◆ 타 종단 스님도 환영합니다.
◆ 범음대학 : 홍은사 대웅전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31-153번지
◆ 문의 및 접수처 : 홍은사 (051)243-3165
본 총무원 (051)527-7733
종단홈페이지 http://dsbuddha.org 참조 인터넷 검색사이트 (다음, 네이버) 에 대승불교조계종 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산교구 범음범패 불교대학 학장 유초 합장

대한불교 비구니 조계종
창 종
◆ 일시 : 불기2553년(서기2009년)7월27일
◆ 장소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583-20번지
◆ 문의 : 총무원 052)225-7378
H · P 010-7135-7378
◆ 창종위원회위원 : 무상. 지웅. 원정. 원각.
법향. 정법. 대기. 혜경. 보연
모시는 말씀
귀의삼보 하옵고
존경하는 전국 비구니 스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종단은 비구니 스님들께서 그동안 어려운 수행생활 속에서 마련한 사찰재산과 신분을 보장하고 부처님의 말씀 따라 불법을 널리 홍보하여 불국정토를 실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창종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 불국정토에 앞장서기 위하여 비구니스님들께서 뜻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뜻이 있으신 비구니 스님들께서는 연락바랍니다.
입 종 안 내
◇ 종단명 : 대한불교 비구니 조계종
◇ 종교단체등록 (26111-00154)
◇ 비영리법인고유번호 (620-82-67363)
◇ 총무원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583-20번지
◇ 연락처 : 052)225-7378 / FAX 052)277-0194
H.P : 010-7135-7378

buddhanews.com

# 오직 세상의 주인인 너만 있을 뿐…



## 안면암 지도법사 지명 스님

선지식을 찾아서 지명

## 내·외전 두루 공부… 국경 없는 포교로 세상에 회향
## 안면암 명물 부탑과 부교, 안면도 관광 명소로 만들어

소년은 뒷산에 올라가 멀리 햇빛에 빛나는 금강(錦江)을 보았다. 그렇게 본 금강은 기억 속에 한 조각 빛으로 남아있다. 산골의 작은 암자에서 살았던 소년의 하루 일과는 예불과 노동이었다. 예불을 올리기에는 어린 나이였지만 주지 노스님은 재받이 전문가로 자주 여기저기로 초청돼 출타했기 때문이다. 속세와 완전히 격리된 그 곳에, 바깥세상의 소식을 전해 주는 이는 몇 개월에 한 번씩 들르는 객스님과 방학 때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뿐이었다. 객스님들과 고등학생들은 소년의 선생이 돼 한문을 익히게 했고, 초등학생 수준의 국어와 셈본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어느 날 한 객스님이 소년에게 '큰 절에 가야 배울 것도 많고 진짜 중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그 길로 소년은 금산사로 갔다. 그 당시에는 행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있었는데, 노동력이 우선시됐다. 소년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쫓겨날 뻔했지만, 잘 할 수 있다고 울며 매달려서 간신히 행자 입방을 허가받았다. 소년은 행자 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금산사에 내려와서 며칠씩 묵어가시는 혜정 스님이 참으로 좋았다. 혜정 스님의 고요하고 자비스러운 모습을 멀리서 여러 번 훔쳐보았다. 혜정 스님의 인품을 존경했기에 은사 스님으로 모시겠다고 여쭈었고 허락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소년은 행자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혜정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고, 그 소년이 바로 지명 스님이다.

지명 스님을 만나기 위해 안면도에 위치한 안면암으로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다. 안면암으로 들어서자 다부진 근육질을 가진 금강역사와 제석천과 용, 긴나라, 가루라 등 팔부신장이 먼저 반겼다. 금강역사와 팔부신장은 안면암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을 지켜줄 것만 같다. 안면암 2층 법당에 서니 천수만이 내 집 안방처럼 훤히 내려다보인다. 원래 바다를 좋아하는 지명 스님은 이곳에 방생법회를 왔다가 바다가 한 눈에 들어오는 풍광에 반해서 절터로 잡은 것이다.

안면암은 기와를 올리고 단청을 한 그 햇수가 십년이 조금 넘는 신생사찰로 무량수전과 비로전, 나한전 등 여러 채의 당우가 들어서 있다. 비로전과 나한전에서는 바다를 보면서 기도를 할 수 있어 더욱 좋다. 안면암과 마주 보이는 바다 한가운데 여우섬과 조구널섬이라는 두 개의 작은 무인도가 있다. 안면암에서 조구널섬까지 오렌지색 부교(浮橋)가 놓여있고 그 너머에는 물에 뜨도록 만들어진 부탑(浮塔)이 있다. 부교와 부탑으로 인해 안면암은 안면도의 관광명소가 돼있다. 지명 스님은 안면도에 아무 볼거리가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서 안면암 주위에 부탑과 부교를 설치해 놓았다.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드는 저녁 무렵, 물결에 흔들리는 부교를 건너다보면 잠시 이 사바세계를 잊게 된단다.

지명 스님은 여름날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동탑을 조성하고 있었다. 동(銅)을 잘라서 직접 용접까지 하는 것이다. 세탑 육십을 넘어섰는데 그런 노동이 어렵고 힘들지 않느냐고 여쭈었더니 "어렵기는 하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라 답했다. 그동안 지명 스님이 조성한 탑은 안면암의 부탑을 비롯해 과천 포교당에서 동탑과 철탑 2점을 더 제작했다. 이 정도면 동탑 제작의 대가 반열에 들어서지 않을까 싶다.

지명 스님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 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보청기를 사용해야만 했다. 또 허리디스크와 간과 신장질환 등으로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지만 분명한 생사관으로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공기가 모든 공간에 꽉 차 있듯이, 병과 죽음 등 모든 재앙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질병, 죽음, 불의의 사고 등은 아주 공평무사하게 나타나는 것인데, 나만은 이 법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떼를 쓰지 않아야 합니다.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마음이 지은 모든 유위법(有爲法)도 끊임없는 생주이멸(生住異滅)의 과정에 있다. 생겨나서 조금 머무는 것 같지만 바로 달라지고 소멸된다. 뜻밖의 재앙이나 질병, 죽음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들이닥치긴 하지만 그것은 안 될 자리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질서가 부여한 본래의 자기 자리에 당당하게 나타나는 것이란다.

스님은 선사상 특징 중 하나인 무일물(無一物)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무일물은 '마음밖에 본래부터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한 물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연기법이나 공사상은 필연적으로 모든 사물의 영원한 존재를 부정하잖아요. 무일물에는 이미 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무상(無常)과 고정적이고 실체적인 나가 없다는 무아(無我)가 전제돼 있어요. 사물이란 것도 사람들이 제멋대로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부귀, 권력, 명예, 성공, 행복 등의 개념과 단어도 사람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본래부터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있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하루살이의 태어남과 죽음처럼 그 과정을 한 번에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무상이라든가 무아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들처럼 변화의 주기가 길 경우에는 무상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우리의 번뇌와 고통은 무상을 알아차리지 못하는데서 연유하는 것이다.

스님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는지'를 물었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근본적인 답은 제쳐둬야 할 것 같아 입을 다물었다.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자리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다면, 출세라는 자리를 위해서 돈, 명예, 권력에 매달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이 있다고 생각하고 남을 의식하기 때문에 자신을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무(無)사상은 이러한 우리에게 '타인은 없다. 오직 너만 있고 네가 바로 세상의 주인'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임제 선사는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라, 어디에서든지 주인공으로 살라'고 했다. 지명 스님은 주인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다.

"모자처럼 이름만 덮어 씌워진 주인이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조종하는 실세 주인도 있고, 현장에서 자기 소임을 다해 전체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주인도 있어요. 세상을 잔칫집으로 친다면 세상 사람 하나하나가 자기 나름대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치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친다'는 말은 '나 외에 따로 주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의 나를 주인으로 삼아라'는 뜻이란다.

은사 혜정 스님은 사미계를 받기 전에 상원사의 구정 선사 이야기를 해주셨다. 가마솥을 걸기 위해 아홉 번이나 허물고 다시 걸기를 반복했지만 불평 한 마디 하지 않았다는 구정(九鼎) 선사. 은사스님은 "구정 선사처럼 수행자로서 아홉 번이 아니라 백 번이라도 고쳐 걸 수 있는 마음으로 불도를 닦아라"고 일렀다. 이 말씀은 평생을 수행자로 살아가는데 큰 지침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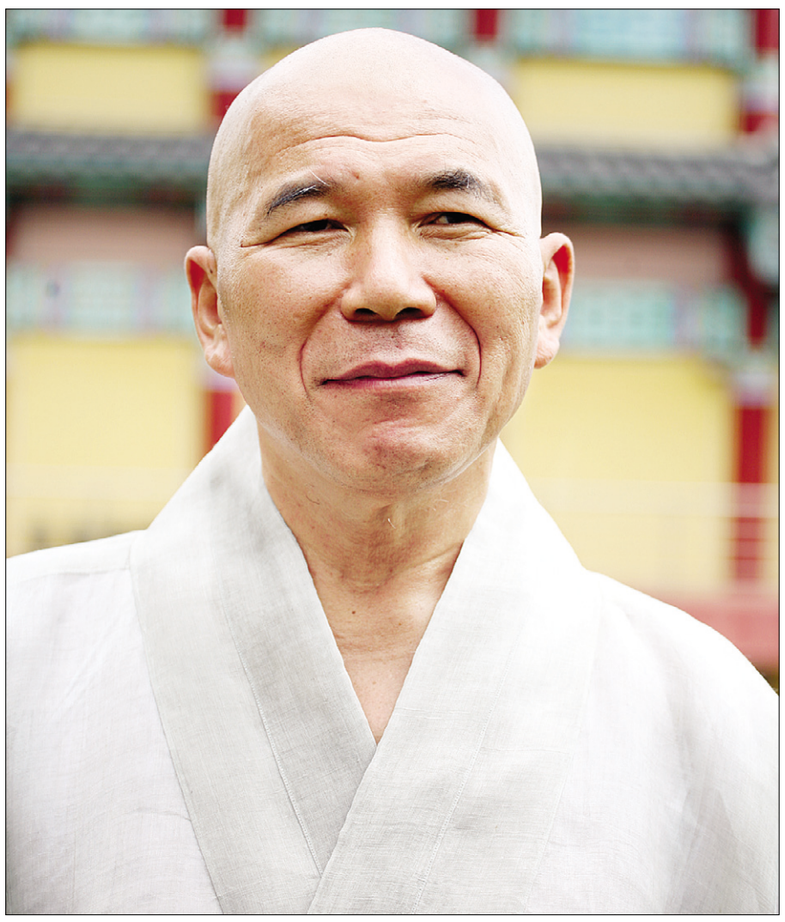
사미계를 받은 지명 스님은 범어사 강원에서 강고봉 스님, 혼해 스님, 변각성 스님으로부터 내전을 배웠다. 불경에 나오는 많은 보살 · 천왕 · 용 · 야차 · 귀신 등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으며,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천신이 나타난다는 그런 상징들에 믿음이 가지 않았다.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이들이 불경의 등장인물로 나오기 때문에, 불경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도 현실감이 들지 않았다. 그러다 강고봉 스님으로부터 <능엄경> 공부를 하게 됐다.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고, 보현보살은 행원을 상징하고, 관세음보살은 자비를 상징하고, 지장보살은 원력을 상징한다"는 이 말씀에 재발심하게 됐다. 요즈음은 이런 말씀이 특별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무척 가슴에 와 닿더란다. 여러 강백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지명 스님은 불학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좀 더 공부 하고 싶은 열망을 품고 서울로 올라와서 동국대 불교대학에 적을 두었다. 스님은 이어폰을 귀에 꽂고 영어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영어에 대한 갈증은 가시지 않았다. 영어에 대한 욕심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미국 LA의 한 포교당에 스님이 필요하다고 했다. 영어와 기독교에 대한 공부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


2010 불교달력출시
국6절 · 12절 · 두달 · 차걸이 · 미니 · 다이어리 · 탁상 · 한지
창립 35주년 기념으로 달력가격 대폭인하 !!!
3호 붓다의메아리 5호 연향이머무는곳 6호 천진미소 7호 가람의향기 41호 선의세계
불교달력과 불교용품을 직접 생산, 판매 [공장직영] ※ 달력카다록 · 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세요.
동진기획 · 붓다쇼핑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TEL (051)515-8888 FAX (051)508-0101
H.P 011-554-2988, 011-879-0889
E-mail dongjin8888@naver.com
불교용품 불교서적 불교달력
• 침향/주목/염주/염주주머니/양초/향
• 사경책/사경지/한지108사경/우리말사경
• 4· 8용품/등표/전선 · 전구/청사초롱
• 공단등/바림등/만월등/봉축 · 생일카드
• 예수재용품/영가옷/탑다라니/다포
검색창에 [붓다쇼핑] www.buddhashopping.com ※ 대량구입시 가격은 인터넷 또는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불교 최고의 신문!
현대불교신문사 충청지사는 최고를 지향합니다
불교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보도하는 현대불교신문은
연합뉴스, 뉴시스, 충청뉴스, 한국불교신문, BBS 청주불교방송, HCN 충북방송, 충청권 일간신문(충북일보,충청매일, 충청타임즈, 동양일보, 중부매일, 충청타임즈, 대전일보)에 실시간으로 기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충청지사
대전,충남,충북
+ 사찰의 법회, 행사 취재 보도
+ 사찰의 홍보 및 광고
+ 신문사(통신사)에 기사작성 제공 (연합뉴스, 뉴시스, 충청뉴스)
제보 · 구독 · 광고문의
• 충북지사 : 043-732-5560 • 대전지사 : 042-223-8214
• 지사장 : 010-9522-8453 (혜철스님) / E-mail : ksson108@hanmail.net
• 기자 : 010-5078-9748 (이한배 기자)
현대불교신문 1인 1부 구독하기 운동에 동참합시다.
최고를 지향하는 충청지사가 되도록 저희 임직원 일동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지동이체를 신청 하시면 편리합니다. (통장번호 / 주민번호 / 주소 / 연락처)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 죽음 대면해야 진정 깨달아



기에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때가 서른셋의 푸른 나이였다. 삼년 동안 절의 소임을 살면서 영어공부에 매진했다. 주변의 보살님들이 여기까지 왔으니 공부를 좀 더 하라고 자꾸 권했다. 그래서 지명 스님은 미국 필라델피아의 템플대학 종교학과에 진학해 석 · 박사학위를 마쳤다.

"교포 독지가의 후원으로 템플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었지요. 조금이라도 신세를 덜 지기 위해서는 학위를 빨리 마쳐야겠다고 생각하고 정말 밤낮없이 공부했어요. 학위를 마치고 나니 건강도 망가졌고, 얼굴엔 기미가 가득하데요."

지명 스님은 타국에서 힘들고도 어렵게 마친 공부를 사회에 회향했다. 1993년 불교방송에서 8개월간 <교리강좌>를 맡아 했으며, 이듬해인 1994년에 불교방송에서 <열반경>강의를 했다. 스님의 강의는 장안의 화제가 됐다. 일상사에서 겪는 고통과 번뇌를 예로 들어 쉽고도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기에 불교경전은 어렵다는 선입관을 무너뜨렸다. 이때 방송한 내용은 <허공의 몸을 찾아서> <깨침의 말씀 깨침의 마음> <큰 죽음의 법신> 등 여러 권의 책으로 묶어져 세상에 나왔다.

지명 스님은 2004년 무동력 요트를 타고 1만여km에 이르는 태평양 바다를 횡단했다. 미국의 샌디에이고 항에서 출발해 4개월에 걸린 대장정을 끝내고 부산항으로 귀환했다. 이를 두고 칼럼니스트 이규태(李圭泰)씨는 '사발 같은 통 배에 돗자리 펴 달고 신라를 떠나 동지나해, 남지나해, 벵골 만을 가로질러 갠지스 강 삼각주에 상륙한 혜초 스님'을 이야기하면서 '구법정신과 접목한 신라 프런티어십의 현대적 구현으로 불교인식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는 쾌거'라고 찬사를 보냈다.

"법문을 할 때 생사일여(生死一如) 혹은 생사해탈(生死解脫)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서 과연 생과 사에 끄달리지 않고 초연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어요. 편안한 일상에서 벗어나 죽음과 대면해야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지요. 출발할 때는 알라스카나 남태평양으로 밀려가서 고생하다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스님은 경전에서 읽던 제망찰해도 볼 수 있었다. 나를 당장 삼켜버릴 듯이 덤비기만 하는 파도나 바람이 계속 똑같이 무서운 얼굴로만 있지는 않다는 것을 체험하고는 공사상을 새로 정립했단다.

"집채만 한 파도도 몇 시간 또는 며칠이 지나면 견딜만할 정도로 변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바람이 전혀 없는 무풍지대에 갇히기도 했어요. '파도와 바람에게 고정 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공의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있던 파도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던 바람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없다'로 규정할 수만은 없음을 깨달았지요."

'바다에 파도와 바람이 있듯이 이 세상에도 많은 위기들이 있다'면서 아무리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언젠가는 가라앉게 돼 있으니, 일시적인 위험에 겁먹거나 포기하지 말고, 지혜롭게 극복해야 함을 강조했다. 삶의 시시처처(時時處處)에서 위기를 맞고 또 위기를 넘기는 것이 우리네 생이 아니던가.

높이가 5~6m나 되는 파도가 쉴 새 없이 들이치면 뇌리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가득 찼고, 그 공포감을 통해 망망대해에서 한 점에 불과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스님은 말미에 "지금 죽는다 해도 미련 같은 것은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스님은 생사를 온몸으로 체득했기에 산다는 것도 죽는다는 것도 한조각 구름에 불과함을 여실히 깨달은 것이 틀림없다. 태평양횡단은 지명 스님만의 또 다른 수행방법이었다. 스님은 태평양 횡단을 마치고 나서 종단의 이런저런 직책을 다 내려놓았다. 지금은 괴산 각연사와 안면암을 오가면서 수행과 포교에 힘쓰고 있다. 스님은 바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었다.

"바다는 더러운 물, 깨끗한 물을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모두가 본질적으로 평등하고 하나라는 가르침을 주는가 하면 바다에게는 적이 없어요. 아무리 끝이 날카로운 바위나 절벽이 앞을 가로 막더라도, 그것들과 직접적으로 대결하려 들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끊임없이 감싸고돌잖아요."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지명 스님은 ...**

부산 범어사 강원과 영천 죽림사에서 내전을 수학. 동국대 불교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 마침. 미국 템플대학 종교학과에서 석사, 철학박사 학위 취득. 의왕 청계사, 법주사 주지 역임. 중앙종회의원 역임. 1993년과 1994년 '불교방송'에서 <교리강좌>와 <열반경> 강의. 2004년 무(無)를 닦기 위해서 요트를 타고 미국에서 한국까지 태평양을 횡단. 지금은 각연사와 안면암을 오가며 수행과 포교에 힘쓰고 있다. 저서로는 <허공의 몸을 찾아서> <깨침의 말씀 깨침의 마음> <큰 죽음의 법신> <무로 바라보기> <그것만 내려놓아라>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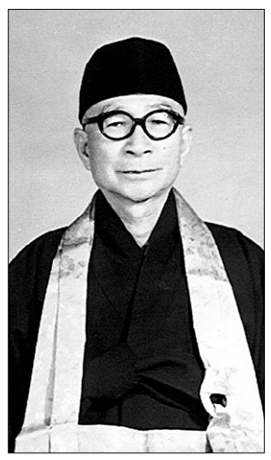
##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 57. 법시사 편집장 이희익 대선사

<법시(法施)>는 1972년 조흥은행장 정종원 거사님께서 명자 그대로 "진리의 베풂"을 위해서 창간한 잡지다. 사단법인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부이사장 이호성, 김인식을 비롯하여 김현갑, 김선필, 조서희, 김종오, 강창근, 전병극, 허복, 박두원, 송금엽, 백충흠, 이인식씨 등 재계, 경제계에 뛰어난 인물들이 한데 모여 <법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희익(1905~1990) 선사는 상임이사로 <법시>의 편집장을 맡고 있었다.

오랜 세월을 두고 <법시>에 글을 쓰다 보니 막역한 처지가 되어 자주 만나 공양도 하고 차도 마시게 되었는데, 그의 모습은 일본 선종 그대로였다. 일본에는 임제종과 조동종 두 가지 선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조동종은 위빠사나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10대 스님처럼 보이지만 다실에 앉아 정좌하고 앉으면 백년 수행자처럼 그 모습이 의젓하다.

"나는 소양인으로 성질이 급했는데, 선을 통해 그 마음을 교정



하였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도 느긋해 졌습니다. 법사님은 언제 어떻게 선을 접하였습니까?"

"1956년 송광사 삼일선원에서 살았는데, 보조 국사의 <수심결> <정혜결사문>을 보고 발심하였습니다."

"영가 진각대사의 <증도가>나 곽암 스님의 <십우도>를 보면 마음의 경계를 바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깨달음의 단계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앉으면 그냥 한 소식 얻은 것 같은데, 소식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 사람소식인지 부처소식인지 판가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하고 선종 4부록을 주셨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지만 오직 가리는(취사선택하는) 것을 꺼린다. 미워하고 좋아하는 생각만 없으면 훤하게 밝아 지리라."

3조 승찬 대사의 <신심명>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닦아야 할 것인가를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밝혀주고 있다.

또 영가 현각 대사의 <증도가>는 "배움이 끝난 도인은 망상을 제하지도 않고 참을 구하지도 않는다. 무명실성이 곧 불성(無明實性 卽佛性; 무명의 성품이 곧 불성)이고 환화공신이 곧 법신(幻化空身 卽法身; 허깨비 같은 빈 육신이 곧 법신)이기 때문이다"하여 깨달음의 경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십우도는, ① 소를 찾기 위해 나선 사람이 ② 그 발자국을 보고 ③ 소를 보고 ④ 찾아 ⑤ 소를 먹인다. ⑥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과 ⑦ 집에 돌아와서는 소를 잊고 ⑧ 사람도 잊고 ⑨ 본래의 상태로 돌아왔다가 ⑩ 다시 세상을 향하여 포교하러 나가는 장면이 두드러지게 부각된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되지 못했으면 어떻게 앉아 무슨 생각을

### "신발 바르게 정리하는 모습도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일"

한 묵조선(默照禪)이고, 임제선은 간화선(看話禪)을 배경으로 한 화두선이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선에 관심은 많았어도 실제 선에 대한 이론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선사께서 <신심명(信心銘)> <증도가(證道歌)> <십우도(十牛圖)> <좌선의(坐禪儀)> 등 선종 4부록을 내고 또 <임제록(臨濟錄)>을 발간하여 직접 강의를 함으로써 선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게 되고 삿된 길, 마군이 길을 막게 되었다.

선방에 가서 한 철만 나도 도인을 자처하고 선사들 근처에 갔다가 한 말씀만 들어도 한소식 얻은 것처럼 자랑하고 다니던 사람들이 선사를 만나면 쥐죽은 듯 조용히 앉아 귀를 기울인다. 옛날에 전혀 듣지 못한 소리를 듣고, 보지 못한 경계를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까만 장삼에 황금빛 찬란한 낙자를 매고 단정히 서 있으면 10대 스님처럼 보이지만 다실에 앉아 정좌하고 앉으면 백년 수행자처럼 그 모습이 의젓하다.

"나는 소양인으로 성질이 급했는데, 선을 통해 그 마음을 교정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부산지역은 부산농협 각지점 "신토불이 매장"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정토원 초코파이고봉스님

당뇨의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탁월한
당뇨에 좋은 웰빙 당조고추 개발




제일종묘사와 농촌진흥연구소 및 강원대와 공동으로 3년 연구 끝에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하는 AGI(A-Gluosidase Inhibitor)라는 기능성 물질을 다량 함유한 신 기능성 고추를 개발하였습니다.

AGI는 십이지장 등에서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율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어 당뇨 등 각종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에 이용되고 있는데 당조고추를 당뇨에 걸린 쥐에 투여한 결과 식후 30분 후 혈당치가 120-150mg/de로 평소 180mg/de에 비해 상당한 혈당강하 효과를 거두었다.

정토원 주지 고봉 스님의 당조고추
"현시대 불교는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농사를 찾던 중 새롭게 개발된 기능성 고추인 당조고추를 재배하게 되었다." 평소 농사를 수행처럼 생각하시던 스님은 대중들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당조고추에 천연항생물질(프로폴리스)을 살포하여 기능을 강화시키고 고추작물에게 나무아미타불 염불과 명상음악을 듣게하여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이 세상에 황금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일체 친환경농법을 사용하여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7월 초 첫 출하를 앞두고 농협중앙회 시품검사소에서 농약잔류검사를 의뢰하여 280성분수의 농약을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이 검출 되지 않아 적합 판정을 받았다.

당뇨에 좋은 고추라 하여 "당조고추"

✔ 크기 및 색상
고추명은 당뇨에 좋은 고추라 하여 "당조고추"라 하였고, 이 당조고추는 다른 고추에 비해 20-50% 가량 크고 색상은 파피색이나 연노랑에서 오렌지색으로 크며 익을 땐 일반고추와 같이 빨강색으로 익습니다.

✔ 맛
당조고추의 맛은 일반 고추 맛과 똑 같으며 안 매운 것과 약간 매운 맛으로 구분됩니다.

✔ 혈당저하 체험
당뇨환자들이 식사 전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를 하면서 당조고추 3-4개를 먹고 40여분 경과 후 혈당을 측정하여 보면 혈당 수치가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것을 직접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체험하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 성인병 예방에 효과
성인병 예방을 위하여 장기 섭취를 하면 각종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고 된장이나 쌈장에 찍어 먹어도 되며 파프리카와 같이 생식용이나 샐러드로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 품종
우리나라 고추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기능성고추입니다. A-Gluosidase Inhibitor 기능성 성분이 다량함유되어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으므로 세계최초 기능성 당뇨고추입니다. 농림부 산하 농림기술관리센터의 농림기술개발사업지원으로 육성된 품종입니다. 강원대학교 이해익 교수와 원예연구소 조명철 박사가 제일종묘농산과 공동으로 연구, 육성한 품종입니다.



■정토원 : 경북 군위군 소보면 복성리 22
☎ 054-383-0407

7월 부터 출하 된 "당조고추"가 필요하신 불자님들 전화주시면 "당조고추"에 대해 자세한 설명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김옥암 교수가 쓰는
# 자족의 경제학 <11>

# 경제성장 지상주의 탈피, 국민의식 변혁 필요

## 지구환경시대에 진정한 풍요로움과 새로운 경제사조 절실

경제학은 시대의 산물이다. 존 메이나드 케인즈의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도 예외는 아니다. 거시경제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일반이론>은 대공황이라는 사건이 없었다면 탄생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케인즈는 가격변수의 원활한 작용을 통해 시장이 항상 균형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아담 스미스의 경제이론 체계로는, 공황의 핵심적 요인을 분석해 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스미스가 경제의 총생산량은 수요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설명한 것과는 달리, 케인즈는 고용의 주체가 기업이므로 고용량은 노사간의 임금협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제전체의 수요의 크기에 대한 기업가의 예상에 의해, 즉 유효수요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유효수요의 크기는 소비성향 투자의 한계효율, 그리고 이자율을 결정하는 유동성 선호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주의가 진전될수록 저축성향이 높아져 수요가 감소하고 기업가는 투자를 망설이게 돼 결국 장기적으로 경제가 침체될 것 이라고 예견했다. 특히 불황기에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현금 보유를 선호하게 돼 이자율을 낮추기 힘들므로 민간부문의 투자수요가 진작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임금을 인하시키는 것은 오히려 실업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완전고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투자를 사회화해 각종 공공투자를 집행함으로써 유효수요를 늘려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완전고용의 균형만을 상정하고 분석하는 아담 스미스의 고전학파 이론을 특수이론이라고 부르고, 자신의 이론이 불완전고용상태의 균형분석까지를 포괄하는 '일반이론'이라고 주장했다.

케인즈는 또한 자신의 이론이 더욱 평등한 사회의 건설을 위한 철학을 포함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이자율이란 자본의 한계생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화폐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생산과정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금리생활자의 안락사를 유도하고 자본축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금리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완전고용이 달성될 때까지 높은 저축성향은 오히려 유효수요의 부족을 초래해 부자일수록 저축성향이 높으므로, 상속세를 강화하고 그만큼을 저소득층의 소득세에서 감소시키면 사회의 평균적인 소비성향은 증대돼 결국 국가의 자본축적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그는 부와 소득의 편중분배가 불황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체제를 유지시키는 사상을 타파하는 것만이 양식 있는 엘리트의 소명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케인즈 이론은 아담 스미스의 자유시장주의에 반하는 개입주의 정책론으로서 전후 활기찬 주류경제학의 흐름이 됐다. 그러나 1970년대에 문제가 발생한다. 케인즈 경제학에는 경기의 안정화라는 일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 된다. 때문에 경기가 좋은 때는 시장에 개입치 않고 사태를 관망해야 하고 지나치게 경기가 과열되면 긴축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만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호경기인데도 정부, 여당의원들은 '긴축'은 커녕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누구나 좋아하는 공공사업이나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계획을 내 놓았던 것이다. 케인즈 이론은 그런 정치인들에게 절호의 이론적 기둥이 되곤 했다.

그렇게 되면 케인즈 경제학이 이야기하는 '경기안정화'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고 오히려 경기 과열과 공적부문의 비대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실제로 미국경제는 경기과열에 의한 인플레이션과 거대한 재정적자, 그리고 공적부문의 비대화라는 '선진국 병'을 끌어안게 됐다.



그림 · 김필헌

1970년대 초 설상가상으로 오일쇼크가 일어나고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병존하는 상황이 된다. 그 결과 70년대 후반에 들어가면서 '큰 정부'에 대한 비판이 서서히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케인즈 경제학으로부터 '작은 정부' '시장원리' '자기 책임'을 중시하는 머니터리스트(monetarist)나 '합리적 기대형평학파'로 불리는 신자유주의로 변해갔다.

신자유주의자들이란 한 마디로 케인즈적인 경기대책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적부문을 비대하게 만들어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상실시키므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실업과 물가의 동반상승)이 해소대책으로서 오히려 유해하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점차 유력한 정책사상으로 실제 경제에 적용되고, 결국 신자유주의 사조와 그를 지식기반으로 하는 경제제도의 개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갔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의 결과로 신자유주의 경제제도를 받아들여야 했다. 전통적으로 사회민주주의 전통이 강했던 유럽대국도 신자유주의의 비중이 높아지고 우경화경향을 보인다. 프랑스에서 우파인 사르코지의 집권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그렇다면, <자본론>에 의거한 마르크스주의는 어떤가? 전술한 바와 같이 지금 세계경제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결국 마르크시즘의 예언대로 굴러가고 있는 듯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경제학은 현상에 대한 분석의 틀이 있다 해도 불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하느냐 하는데 대한 변혁의 이론이 결여돼 있다. 위기에 빠진 세계경제와 현대경제학 각각의 분야에서 그 나름의 노력이 축적돼 왔다고는 하나 아직도 그 위기로부터 탈출하기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오늘의 경제학은 통틀어 혼미와 정체 속에서 부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어쩌면 시대인식이 결핍돼 있는 탓은 아닐까? 경제성장시대에서 21세기의 지구환경시대에로 크게 전환해가고 있는 이때 과연 진정한 풍요로움이란 뭔가를 다시 되묻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은 변혁에 새로운 경제사조가 절실한 때이다.

이러한 시대인식 없이는 21세기가 요구하는 과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사상을 창조하고 구축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다. 더구나 좋지 못한 현재의 경제 사회 현상을 어떻게 변혁시켜나가느냐 하는 개혁적인 문제의식을 결여한 채로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는 어렵다. 지구환경의 보전과 새로운 풍요관의 재구축이 최우선 과제인 시대가 요구하는 경제사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근대 공업문명 그 자체인 대량생산 – 대량유통 – 대량폐기 – 환경파괴라는 경제구조의 악순환과 그것을 뒷받침해 온 이데올로기로서의 경제성장 지상주의를 탈피하는 일이며, 그 상호 결탁의 고리를 끊고 국민의식의 변혁으로 이끌기에 족할 경제사상이어야 한다. 그러한 경제사상의 출발은 결론부터 말하면 불교사상인 '소욕지족(小欲知足)'과 고대 중국의 철인 노자(老子)의 '만족(滿足)함을 아는' 사상과도 무관치 않을 것 이다. 이것이야 말로 새로운 경제사상의 출발점이 아닐까 싶다. ■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⑪ 코칭과 사장학

# 허달의 불교와 코칭

## 도전 · 창의력 · 협동력 · 성공체험의 선순환 필요

이번 회에서는 코칭과 경영의 관계를 필자가 경영자로 근무하였던 SK의 실례를 들어 살펴보기로 하자.

회사를 구성하는 구성원 각자의 자발적, 의욕적 두뇌활용(Brain Engagement)이 기업경영의 핵심임을 강조한 SK그룹 특유의 경영법은 돌아가신 최종현 선대 회장이 만든 것이다. 이병철, 정주영 회장 등 카리스마가 강한 전설적 재벌 회장들과는 다른 의미의 학구적 경영 스타일을 정립했던 분인데, 자신이 만든 경영법을 '사장학'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를 즐겨 했다.

기업 경영의 주된 요소인 일과 구성원의 관계를 잘 정리해서 그 사이에서 창의력과 시너지를 창출해내면, 그것을 가지고 회사는 이윤을 만들어 지속적인 안정과 성장을 이루고, 구성원은 자기 성취와 성공체험을 통해 자신감을 보유한 탁월한 능력자로 발전해 기업과 구성원이 승-승(Win-Win)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최종현 회장은 가끔 투박하게 웃으면서 "어떤 회장들은 자기 고유의 경영법을 숨겨두고 하나씩 카드를 꺼내 들어 '이건 몰랐지'식의 경영을 하지만, 나는 이렇게 다 글로 써서 공유하고 나도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이를 실천하는 열린 경영을 한다"고 자부하면서 이 사장학으로 SK를 세계일류기업으로 만들 것인데, 이 방법을 국가 경영에 활용하면 우리나라를 세계일류국가로 만들 수 있다고 강한 의욕을 보였었다.

어느 날은 필자가 이 분 앞에서 사장학 경영법에 의한 경영성과를 브리핑하는데, 회장 가까이 배석했던 주력 계열사 사장이 머리를 회장 쪽으로 크게 끄덕이며 졸고 있었다. 모두들 민망해 있는데, 회장은 개의치 않는다는 듯 우리를 향해 질문을 던졌다.

"자네들, 사장이 왜 저렇게 졸고 있는지 아나?" 대답이 없자 자문 자답. "회장 앞에서까지 졸고 있다는 것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증거야. 그러니 단전호흡을 하도록 하면 좋겠군."

이날의 해프닝은 결국 각 사업장에 단전호흡 수련장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임직원의 건강 관리와 업무의욕 고취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리더가 갖는 덕목, 타인에 대한 배려를 잃지 않으면서 자기 의견을 관철하는 용기는 승-승을 이루는 좋은 성품인데, 이 경우는 그 성숙성(Maturity)이 잘 드러난 사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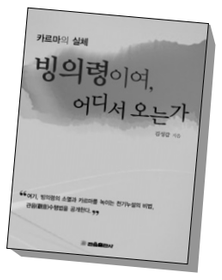
사장학의 요체라는 구성원의 자발적, 의욕적 두뇌 활용은 어떻게 하면 얻어질 수 있을까? 경영직에서 은퇴한 뒤 SK아카데미 교수 시절, 필자가 강의하던 SK경영법에는 이에 대한 해답이 '기업관', 즉 기업경영에 대한 철학을 공유함에 따른 전 구성원의 한 방향 정렬, 의욕, 관리역량, 코오디네이션, 커뮤니케이션, 경영자의 자세 등을 신장시키는 다섯 가지 '동적(動的) 요소'의 관리, 탁월 그 너머의 목표를 끝까지 추구하는 'Super Excellence(Supex) 추구', 일을 중심으로 마케팅, 생산, R&D, 지원팀을 묶는 '유기적 조직운영', 'Can Meeting'에 의한 '전원 참여 경영' 등 여러 가지로 체계화 되어 있지만, 한 마디로 '코칭적 리더십'이라고 단순화시킬 수 있겠다. 구성원 개개인의 의욕 수준까지 읽어내고 이를 지지하는 리더의 배려 깊은 맥락적 경청, 자아의 개입이 없는(Egoless) 열린 질문과 메시지을 통해 구성원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어 내는 코칭 과정이 곧 자발적, 의욕적 두뇌활용 프로세스이다. 그 결과로 얻어지는 개인 단위, 팀 단위 창의력을 시너지로 묶어 전원 참여의 집단 창의력으로 융합시키면, 불가능해 보이던 높은 목표가 오히려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하는 촉매가 돼 마술과 같은 모두의 성공체험이 일어나게 된다.

필자가 경영하던 기업에서는 이 방법을 적용해 대규모의 포상을 하고 또한 영예의 전당에 헌액하는 'Supex 추구 상(賞)' 제도를 운용했는데, 그 상의 심사기준을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엄격히 정해 통상의 경영성과들로부터 가려내도록 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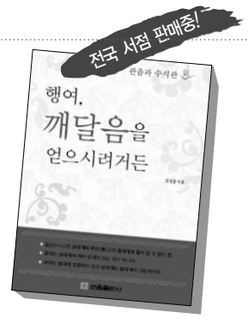
첫째, 높고 큰 성과에 패기를 갖고 도전하여 성취했는가? 둘째, 장애 요인 제거에 통상적 문제해결 방법을 뛰어 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의력을 발휘했는가? 셋째, 팀의 모든 구성원이 성과에 참여해 시너지를 창출했는가? 넷째, 성공체험이 선순환을 이루어 다른 Supex 추구 활동에 공헌했는가?

최종현 회장이 사장학을 국가경영에 확대 적용하려 시도했던 것처럼, 이 정신을 기업경영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외연(外延)하면 어떻게 될까? 인드라의 찬란한 그물, 상의성(相依性)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대승적 '일류의 삶'을 생각해본다.

■ 한국코칭센터 고문

화제의 신간
〈카르마의 실체〉
빙의령이여, 어디서 오는가?
마음공부는
마음을 비우는 것.
그때 맑음이 온다.
맑음은 법신이다.
여기, 빙의령의 소멸과
카르마를 녹이는
천기누설의 비법,
관음(觀音)수행법을
공개한다.


김성갑 지음 / 신국판 / 336쪽 / 정가 12,000원

〈관음과 수식관 氣〉
행여, 깨달음을 얻으시려거든
법신(法身)은 순백의 맑음.
기(氣)는 법력이 아닌
에너지일 뿐이다.
생각을 작게 하는 것은
일심법의 핵심.
하지만 무상정득정각은
무심만이 얻을 수 있다.


김성갑 지음 / 신국판 / 288쪽 / 정가 12,000원

숨이 배꼽근처에서 멈춘다
오쇼 라즈니쉬 지음 / 길연 옮김
신국판 / 242쪽 / 12,000원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4×6배판/양장본/70,000원

이게 풍수다
신국판/성재권 지음/15,000원

新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송월스님 지음/5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 전호일 공저/25,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35,000원

적천수 형의(上·下)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40,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신한은행 110-012-066080 예금주(소광호)

# 탈 종 공 고

- 사 찰 명 : 성도사
- 성도사 주소 : 충북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546번지
- 창 건 주 : 최명신
- 창건주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98-8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창건주로서 탈종을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9일

대한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 주지 해임공고

- 사 찰 명 : 성도사
- 주 소 : 충북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546번지
- 주 지 : 도명 (허정)

위 도명 스님은 장기간의 병고로 주지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바, 창건주로서 주지 해임을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9일

성도사 창건주 최명신

# “참선은 본래면목으로 돌아가는 인간 혁명”




혜암은 자신과 ‘이 뭣고’ 화두가 하나 되는 타성일편의 경지에서 설악산 오세암과 태백산 동암에서 3년을 보냈다. 자신의 감정과 의지와 상관없이 ‘이 뭣고’가 순일하게 성성한 경지였다. 이러한 체험은 견성성불을 이루는 데 참선공부가 지름길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그래서 훗날 혜암은 누구를 만나든 ‘참선은 본래면목으로 돌아가는 인간 혁명의 길’이라고 자신 있게 설법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해인사 방장이 되어 원당암 달마선원에 모인 재가불자들에게 설한 다음과 같은 법문도 같은 맥락이었다.

‘참선이라는 것은 본래면목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혁명적인 깨달음의 길입니다. 불교는 인간에게 최상의 혁명입니다.

본래의 길에서 탈선돼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안 죽는 길, 살 길로 찾아가는 길이 바로 불법이고 참선입니다. 하나가 틀리니 모두가 틀려지는 것입니다. 뒤바꾸어 보고 들어 아는 것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 나를 보고, 바로 듣고, 바로 깨닫고, 바로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보물인 것 같아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깨달은 뒤에는 이것이 보물로 변합니다. 보물은 여러분한테 다 있는데, 이것 때문에 큰 보물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래 마음은 밝기로 말하자면 일월보다도 밝고, 덕으로 말하자면 천지보다도 더 덕이 많고, 천지의 조화보다도 더 조화가 많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고 귀중한 보물을 찾는 공부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선을 무엇 때문에 하는 줄 모르니까 참선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보면 현상 그대로가 실상이면서 진리인 것입니다. 깨쳐 놓고 보면 똥덩어리도 부처이고, 개도 부처이고, 닭도 부처이고, 돌멩이도 부처이고, 모두가 나입니다.

참선은 아는 데서 출발해 모르는 데 이르는 것이며, 알고 모르는 것이 없는 자리이니 도(道) 자리에 가서 알고 모르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중생들은 낮에는 밝은 것을 의지하고, 저녁에는 어두운 것을 의지해서 살지만 우리 마음은 상대가 끊어졌기 때문에 짝이 없습니다. 내 본심은 성인도 아니고, 범부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그른 것도 아니고, 착한 것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복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아무 것도 붙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느 날은 참선공부를 하면서 확신을 갖지 못한 재가불자들을 위해 이런 법문을 들려주기도 했는데, 시키는 대로 하는 바보처럼 소금을 지고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라고 설법했다.

‘공부를 지어 가는데 알래야 알 수 없는 대목, 재미도 없는 대목으로 한결 바늘 끝처럼 날카롭게 분별심 없이 ‘이 뭣고’만 물 흘러가는 것 같이 파고들어 갑시다. 쉴 새 없이 들어가면 도(道)는 나오지 말래도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서울 가는 길을 가는데 어찌 서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공부는 미묘법이고 비밀법입니다. 세상 공부공식하고 달라서 격외선이라고 합니다. 도 닦는 공부는 특수법으로 상대가 있는 세상 과학이나 철학과는 다릅니다. 상대가, 대(對)가 없는 데로 들어가니까 분별심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근기가 약한 사람인 데다 아는 것이 좀 있으니까 파리처럼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는 공부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공부는 양심을 속이지 않고 참다워야 합니다. 어중간한 사람이 제일 공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알려면 그냥 확실히 알던지, 모르려면 아무 것도 몰라시키는 대로 소금을 지고 물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도를 빨리 깨닫습니다.

그런데 중간치기는 백여우같이 이리 한 번 따져보고 저리 한 번 따져보기만 하다가 공부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미련한 사람이 들어가기가 쉬운 법입니다. 꾀를 내지 마십시오. 따지지 마십시오. 그래야 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래도 백여우 노릇하겠습니까. 그냥 재미없고 알 수 없는 자리만 머무십시오. 무슨 수가 생길 것입니다.

나는 여자니까, 병들었으니까, 노인이니까, 법문을 모르니까 공부가 안 되는 것 같다. 이와 같은 모든 이유들은 마구니들이 공부하지 못하게 꾸며대는 말입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화두가 안 뭉쳐지고 힘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전부 마구니의 조화인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공부는 오늘 배운 만큼 한 권 알아지고 내일은 두 권, 한 달 후는 열 권 알아지고 쌓이는데, 이 도 닦는 공부는 버리는 공부인 줄 알아야 합니다.

스님네들이 계율을 배우는 것은 행동을 배우는 것이고, 글을 버리고 말을 떠나는 것은 참선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육조스님은 나무장사로써 글자 한 자 몰라도 도를 깨친 까닭에 그 법문은 부처님과 다름없고, 천하의 학문이 많은 사람도 절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천태 스님이 도를 닦다가 크게 깨치니 스승 남악 스님이 ‘대장경을 다 외우는 아무리 큰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너의 한없는 법문은 당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칭찬했습니다. 팔만대장경을 다 알아도 안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깨치기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부처님 마음과 뜻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고봉 의 한 제자가 출가해서 경을 배우는데 3일 동안에도 한자도 기억하지 못해 대단히 슬퍼했는데, 누가 이를 보고 전생에 참선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해 참선을 시켜보니 과연 남보다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 스님은 크게 깨치어 고봉의 당당한 제자가 됐다고 합니다.

세지총명(世知聰明)이란 말같이 똑똑하고 재주가 있고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똑똑한 척하지 마십시오. 재주를 부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지옥으로 갈 일을 만들 수가 있으니 재주를 부리지 마십시오.

세상일을 잘하려고 하는 것은 진흙으로 옥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진흙이 옥이 되겠습니까. 불쌍한 사람들의 짓입니다.

‘이 뭣고’하는 자리가 부처님 마음하고 딱 합쳐진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석가모니 부처님도 있고, 약사유리광 부처님도 있고, 문수보살, 지장보살, 관세음보살도 다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뭣고’하는 자리에 다 모여 있습니다.

화두 당처가 불성(佛性) 자리입니다. 부처님 마음 자리입니다. 그러니 부처님 계신 곳은 먼 곳이 아닙니다.’

혜암의 설법은 힘이 있었다. 자신의 실참에서 비롯된 지혜의 말이기 때문이었다. 특히 36세 때 늦은 봄에 들어간 태백산 동암에서의 정진은 수좌로서 분기점이 됐다. 그 무렵부터 태백산에는 여러 수좌들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입산해 정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1955년에 태백산 동암에는 혜암이, 태백산 도솔암에는 일타가 수행했다. 그리고 법전은 문경 묘적암에서 일여의 경지를 체득한 뒤, 파계사 성전암의 성철에게 인가받고 나서는 바로 1958년에 태백산 홍제암으로 들어왔다.

어느 여름 날, 세 사람은 정진 중에 한 자리에 모여 산중 절터의 당간지주 아래서 나이순으로 혜암이 가운데 서고 일타가 오른쪽, 법전이 왼쪽에 자리 잡고 한담을 나누며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밀짚모자와 장삼은 같은 모양이었지만 그때 신은 각자의 신발에도 그들의 가풍이 그대로 드러났다. 기념사진 속의 일타는 귀한 운동화를 구해서 멋들어지게 신고 있었고, 법전은 겨울에 신던 털고무신을 여름에도 한결같이 신고 있었고, 혜암은 깔끔한 성격대로 흰고무신을 단정하게 신고 있었던 것이다.

서로 한 암자에 모여 살지는 않았지만 각자가 분심을 내며 탁마하고 정진했다. 그 결과 일타는 도솔암에서 6년 동굴불출의 정진 끝에 깨달음의 노래를 했다.

**몰록 하룻밤을 잊고 지냈으니**
**시간과 공간은 어디에 있는가**
**문을 여니 꽃이 웃으며 다가오고**
**광명이 천지에 가득하구나.**
**頓忘一夜過 時空何所處**
**開門花笑來 光明滿天地**

성철에게 인가받고 뒤늦게 홍제암으로 들어온 법전은 입산시(入山詩)를 읊조렸다.

**그대 보지 못하였는가**
**배움이 끊어진 하릴없는 도인은**
**망상도 구하지 않고**
**참됨도 구하지 않으니**
**무명의 참 성품이 곧 불성이요**
**허깨비 같은 빈 몸이 곧 법신이로다**
**법신을 깨달음에 한 물건도 없으니**
**근원의 자성이 천진불이라.**

혜암은 태백산에서 다시 오대산 사고암으로 가서야 확철하게 대오했다. 깨달음이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 혜암은 동암에서 정진할 때보다도 고행을 더 계속했던 것이다. 훗날 혜암은 그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기도 했다.

“사고암은 임시로 네 치각기둥으로 흘집을 지어놓으니 추위에 못 견뎌 누구든 살지 못했습니다. 산승은 좋은 계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양식도 불 땔 나무도 없이 냉방에 나무토막 하나 갖다놓았습니다.

그 방에서 한 끼에 잣잎과 콩 열 개, 물만 마시고 밤낮으로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월정사에서 쌀을 보내 와서 필요 없으니 가지고 가라 해도 안 가져가기에 새나 쥐들이 먹으라고 마루에 두었습니다. 5개월 동안 금식하고 정진했더니 신심일여가 됐습니다.”

구렁이나 멧돼지를 봐도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았다. 한 산중에 사는 대중으로 여기어 서로 즐겁게 살자고 발원할 뿐이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멧돼지는 사고암의 감자밭을 해치지 않았다. 감자밭 주위만 뒤지기만 해 보는 사람마다 놀랐다.

그 무렵 혜암의 건강은 정상이 아니었다. 몇 해 전 가슴에 가격을 당한 상처가 심해져 사경을 헤매던 중이었다. 상원사에서 살 때 체격이 우람한 한 수좌가 혜암을 오해해 중상을 입힌 것이 원인이었는데, 혜암은 그 고통을 전생의 업보로 여길 뿐 미혹한 마음을 쳐부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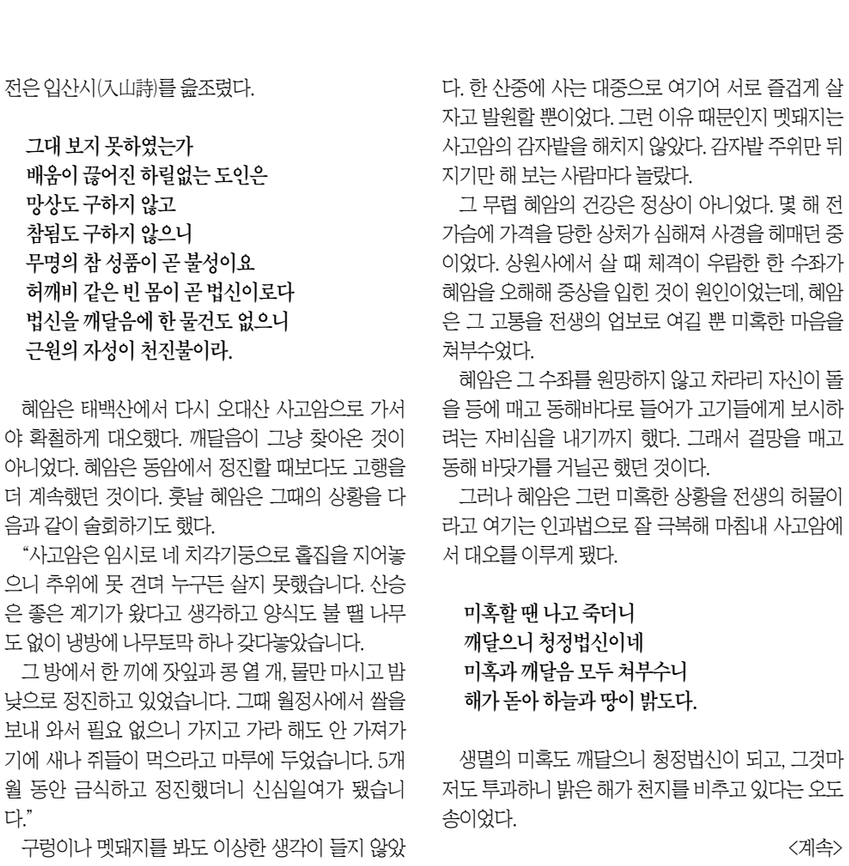
혜암은 그 수좌를 원망하지 않고 차라리 자신이 돌을 등에 매고 동해바다로 들어가 고기들에게 보시하려는 자비심을 내기까지 했다. 그래서 걸망을 매고 동해 바닷가를 거닐곤 했던 것이다.

그러나 혜암은 그런 미혹한 상황을 전생의 허물이라고 여기는 인과법으로 잘 극복해 마침내 사고암에서 대오를 이루게 됐다.

**미혹할 땐 나고 죽더니**
**깨달으니 청정법신이네**
**미혹과 깨달음 모두 쳐부수니**
**해가 돋아 하늘과 땅이 밝도다.**

생멸의 미혹도 깨달으니 청정법신이 되고, 그것마저도 투과하니 밝은 해가 천지를 비추고 있다는 오도송이었다.

〈계속〉


그림 · 최문정

## “모르려면 아무 것도 몰라야해 소금 지고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도를 빨리 깨닫습니다”

## 사고암에서 5개월 동안 금식하며 정진 인과법으로 미혹한 상황 극복 ‘대오’ 이뤄



## "금강경을 만나면 참나를 만날 수 있다"

### 청운 스님 '육조혜능과…' 펴내


청운 스님

부처님이 <금강경>을 설한 이후, 정확하게는 아난존자가 결집에서 '여시아문'하고 입을 열어 <금강경>의 가르침을 전한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해석했다. 역사적으로 600명이 넘는 선지식들이 자기의 견해로 <금강경>을 풀이한 것으로 추측될 정도다.

최근에는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금강경>을 풀이한 서적이 자주 출간되고 있다. 인문학이나 과학 혹은 경제학자도 자신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금강경>의 눈으로 살피거나 <금강경>의 눈으로 자신의 전문분야를 해부하기도 한다.

그런 추세 속에서 선수행자의 안목으로 <금강경>의 새로운 면모를 드러낸 책이 나왔다. <육조혜능과 금강경 오가해>는 50년간 <금강경>을 화두로 삼아온 청운 스님(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교육홍보위원장)이 <금강경>공부의 가장 핵심적인 대목들을 간추린 것이다. 육조 혜능 스님의 해설을 기본으로 했지만 규봉과 야부 등의 '목소리'도 외면하지 않음으로 경의 대목마다 자세한 해설을 베풀었다. 또 청운 스님이 궁구하여 얻은 '결과'를 오가(五家)의 해설 말미에 덧붙여 오늘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지름길이 되게 했다.

"강을 건너는 데는 모름지기 뗏목을 쓸 일이고 언덕에 이르러서는 뗏목을 사용하지 않는다."

부처님도 <금강경>에서 법을 뗏목에 비유했고 육조도 부대사도 한결같이 법에조차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설파했다. 청운 스님은 이 대목을 두고 "인식 너머에 있는 참나(眞我)인 진여불성과 하나 되는 것"이라며 연기법과 사상(四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타파를 강조하고 있다.

대둔산 태고사의 도천 스님 문하에서 수행에 매진해온 청운 스님은 이미 <길을 묻는 나그네에게>를 통해 수행의 바른 길을 제시해 왔다. 스님은 "<육조혜능과 금강경 오가해>를 통해 불교가 지향하는 깨달음의 길이 보다 분명해 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출판사 펴냄 | 1만5000원 **임연태 기자**




## 그가 든 횃불은 나라를 구했지만 그의 생애는?

### 조영록 교수 '사명당 평전' … 방대한 자료로 연구 범위 넓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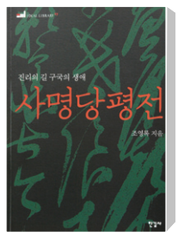
영웅은 난세에 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영웅의 이야기는 변질되기 십상이다. 확대되거나 신비화되기도 하고 묻히거나 얼토당토않게 왜곡되기도 한다.

임진왜란이라는 7년 전쟁이 낳은 영웅 사명당 유정(惟政, 1544~1610)의 경우도 그렇다. 우선, 임진왜란과 결부된 사명당의 선입견은 도술을 부려 왜장을 물리치고 일본으로 건너가 무쇠로 달군 방에 서리를 내리게 했다는 등의 도인(?)으로 회자돼 왔다. <임진록>이라는 민간 설화집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따지고 보면 <임진록>의 잘못도 아니다.

충무공 이순신이나 권율, 서애 유성룡 등 제도권 속의 영웅들도 전란이 끝난 직후에는 위정자들로부터 큰 대접을 받지 못한 터에 사명당과 영규 대사 등 승병장들에 대한 권력가들의 평가는 소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은 유교의 시대였고 위정자들은 사대사상에 젖어 있었을 뿐, 구국의 횃불을 밝혔던 초야의 수행자를 향해 경배의 몸짓을 보낼 리가 없었다.

그러한 분위기는 오래 지속됐다. 사명당에 대한 연구는 사학계와 불교학계 공히 폭넓게 전개되지 못했다. 간헐적인 연구와 자료발굴로는 해당 연구를 활발하게 이끌지 못했던 것이다. 10년 전에 발족한 사명당기념사업회는 바로 500여 년 동안 역사의 뒤안길에 방치됐던 사명당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혁혁한 업적을 바르게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명당기념사업회 발족 때부터 학술분야에서 활동해온 조영록 동국대 명예교수는 사명당과 같은 밀양 출신이다. 꼭 그래서만은 아니었겠지만 조 교수는 사명당 연구에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 지난 10년의 연구를 종합해 <사명당 평전>을 묶었다. '평전'이라는 틀이 암시하듯 사명당의 생애와 사상을 일관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수많은 자료들을 망라했다. 사명당 관련 서적으로 가장 광범위한 자료와 객관적인 평가를 담은 것이다.




조 교수는 다양한 각도에서 사명당을 조명하고 있다. 우선, 임진왜란이라는 난세를 배경으로 호국불교를 대표하는 수행자로 본다. 호국불교는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환경에서 자생한 독특한 전통이다. 삼국시대부터 싹을 틔운 이 한국적 불교사상이 사명당에서 그 정점을 이룬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또 외교적 측면에서 보는 사명당의 풍모도 매우 우뚝하다. 전쟁 중은 물론이고 전후에 왕명을 받들고 일본으로 건너가 포로들을 데리고 귀국하는 대목은 '외교의 달인'이 아니고는 해내기 힘든 성과였다. 그래서 사명당의 일대기 가운데 일본에서 체류하는 동안 신비화된 이야기가 많다.

그렇다면 수행자로서의 사명당은 서산 대사 청허의 직계제자로 자리하고 있는 사명당의 위치는 선종사에서도 매우 높다. 17세에 부모의 상례를 다 마치고 밀양에서 김천 직지사까지 걸어가 출가한 사명당은 이듬해에 승과에 응시해 선과(禪科)를 당당하게 통과했다. 유학자들과 폭넓은 교분을 유지하면서 선리를 참구하는데 게으르지 않았고 봉은사 주지자리를 버리고 묘향산 보현사에서 서산 대사의 질정을 받으며 수행에 매진했다. 사명당의 선풍은 이미 세간과 출세간을 넘나들며 활달자재 했던 것이다. 난세를 맞아 구세의 횃불을 들었어도 세상을 밝히는 빛을 추구했던 것이지 어둠을 찾아다닌 적이 없었다.

사명당은 시문(詩文)에도 뛰어났고 초서로 대표되는 서체도 당대 최고의 경지로 찬탄 받았다. 조교수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다양한 자료와 역사적 전거를 제시하며 흐트러짐 없는 수행자의 내면과 외연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사명당 평전>은 67세를 살고 간 사명당의 생애를 18장으로 나눠 상술하고 있다. 그간의 연구 성과를 통한 새로운 해석의 범위를 최대한 세분화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묘향산 보현사 사명 대선사 진영

한길사 펴냄 | 2만7000원 **임연태 기자**

## 지금 얼마나 행복하세요?




**불교복지, 행복과 대화하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지음
학지사 펴냄
1만3000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이 불교의 사회적 위치와 그 정체성을 확보하고 불교복지활동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불교복지, 행복과 대화하다>(학지사)를 출간했다.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유승무 교수, 불교생협연합회 이정호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총 7명의 사회복지학 전문가들이 불교의 기초적인 교리를 함께 곁들여 불교적 행복, 불교적 복지에 대해 설명한다.

이 책은 부처님의 중생 구제 원력과 자비사상 등의 교리에 기반 한 불교계 사회복지활동의 정당성을 불교적 행복론이라는 주제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 대중에게 불교는 편안하고 좋긴 하지만 다가서기 어렵고, 그래서 더욱 이해하기 힘든 난해한 종교로 여겨진 것은 사실이다. 이 책은 그런 불교의 이미지를 삶과 복지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일상적 삶으로 소개하기도 한다.

더불어 이 책은 우리들이 삶 속에서 늘 만나고 고뇌하는 욕망, 소외, 불평등, 스트레스, 진정한 행복 등의 문제에 대해 불교가 어떠한 해법과 감동을 줄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해준다.

**이나은 기자**

## 계율을 알아야 불자다




**나를 일깨우는 계율 이야기**
이자랑 지음
불교시대사
1만2000원

불자와 비불자의 기준은 무엇일까? 수계(受戒) 여부다. 재가의 삼귀의 계, 신도5계, 보살계로부터 승가의 각종 계를 받았느냐 아니냐가 불자와 비불자의 기준이다. 계를 받지 않은 사람은 불자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정작 계는 받는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지켜야 한다. 지켜지지 않는 계는 무법천지의 법률과 같아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계율에 대한 불자들의 인식은 다소 부정적이다. 금기사항만 잔뜩 늘여놓고 구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계율이 지키기 어려운 금기사항들이라면 불교는 오늘날까지 그 전통을 지켜 오지 못했을 것이다. 계와 율은 개인의 수행과 정진, 출가와 재가 집단의 형성과 유지에 뼈대 역할을 해 왔다. 계율에 대한 편견을 빨리 버릴수록 불교는 건강해 진다. 지키기 어려운 것이란 생각보다 지킴으로써 더 편해지는 것이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나를 일깨우는 계율이야기>는 계율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의 근간을 제시하며 각종 계율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젊은 계율연구자의 섬세한 안내가 계율의 세계를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 깨달음을 여는 열쇠




**선화 상인의 능엄신주 법문**
정원규 편역
불광출판사 펴냄
1만2000원

현대 중국의 고승 선화 상인(1918~1995)은 모친의 묘 앞에 움을 치고 3년 시묘살이를 한 스님이다. 그는 시묘살이를 하는 동안 하루 한 끼만 먹고 저녁에도 눕지 않았으며 <화엄경>에 절하고 정토참법으로 참회를 했다.

1949년 홍콩으로 건너가 전법의 길을 걷다가 1962년 미국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1974년에는 캘리포니아주 유키아에 만불성성(萬佛聖城)을 건립한 후 27개의 도량을 건립했다. 수행자로서의 모범과 함께 인류의 행복을 위한 메시지를 전해 온 그는 계율의 수지, 참선과 염불예참, 경전연구, 대중화합 등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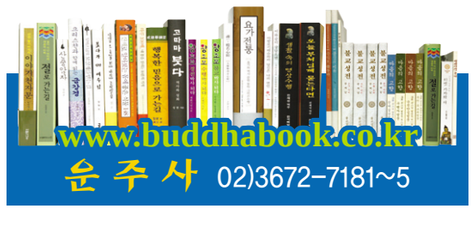
그가 능엄신주를 설할 때는 언제나 "현세나 내세의 복락을 누리기를 구할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어 성불할 것을 목표로 삼으라"고 가르쳤다. 그의 엄준한 가르침이 녹아 흐르는 이 책에서는 능엄신주의 여섯 가지 주요 작용(성취법 증익법 식재법 구소법 항복법 길상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오대심주도 소개하고 있다.

무엇보다 능엄신주 기도를 하며 가피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불가사의한 힘을 느끼게 한다.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일기일회 | 법정 | 문학의 숲 |
| 2 | 아름다운 마무리 | 법정 | 문학의 숲 |
| 3 | 일곱 번의 작별인사 | 무비 | 불광출판사 |
| 4 | 법륜스님의 즉문즉설 | 법륜 | 정토 |
| 5 | 답답하면 물어라 | 법륜 | 정토 |
| 6 | 쉬고 또 쉬고 | 무여 | 새로운 사람들 |
| 7 | 삼천년의 생을 지나 당신과 내가 만났습니다 | 성전 | 마음의 숲 |
| 8 | 세어본 소만 존재한다 | 월호 | 운주사 |
| 9 | 깊고 깊은 연꽃 가르침 | 혜국 | 사유수 |
| 10 | 지리산 스님들의 못말리는 수행이야기 | 천친 현현 | 불광출판사 |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초발심자경문
이 초발심자경문은 한문을 새기는 힘인 문리를 터득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의역하지 않고 직역하였다. 대원 선사님의 살아있는 수행지침도 실려 있다.
초발심자경문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법회안내
이번 달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서울, 부산, 광주 법회는 전강 대법회 및 사막화 방지 사단법인 창립기념 행사로 인해 연기되었습니다. 9월 전국 법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성황리에 마친 전강 대법회 소식도 들을 수 있습니다.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핀란드에서 온
100% 야생블루베리!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기능성 색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을 폭격하던 영국공군 조종사들이 야간비행 전에 블루베리를 주식으로 먹었습니다.
이후 물체식별이 향상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블루베리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량의 안토시아닌 덕분에 블루베리는 우리몸의 젊음을 지켜주는 과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할인판매






블루베리 파우더 ~~35,000원~~ ⇒32,000원
블루베리 주스 ~~46,000원~~ ⇒42,000원
크랜베리 주스 ~~46,000원~~ ⇒42,000원
YADANBEOPSEOK 야단법석 구입문의:010-5318-0704 www.01053180704.com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 ‘성심성의’ 정맥 이은 불화 만나자

## 만봉불교재단, ‘만봉불화회고전’ 26일부터 화봉갤러리서


故 만봉 스님.

2006년 5월 세수 97, 법랍 81세로 봉원사 운수각에서 열반에 드는 순간까지 붓을 놓지 않고 불화 조성에 전념한 만봉 스님은 전통불교문화의 맥을 계승하는 동시에 현대불화 발전에도 큰 족적을 남겼다. 영국의 대영제국박물관과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 소장될 정도로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미술의 거장이자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제48호 단청장)였던 만봉 스님(1910~2006)의 불화 회고전이 열린다.

만봉불교재단(이사장 이용국)은 8월 26일~9월 1일 서울 인사동 화봉갤러리에서 만봉 스님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불화 회고전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고전에는 만봉 스님의 대표작인 팔상도와 극락도 등 150여 작품과 스님의 제자 10명의 작품 10점, 기타 유품 62점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전시에 대해 임영주 전통공예미술관장(前 문화재위원)은 “만봉 스님의 독특한 기법은 색상이 유독 화려하다는 것과 초(草)가 다양하고 세밀하다는 뚜렷한 개성이 돋보인다”며 “한 번은 만봉 스님에게 기법에 대해 물었을 때, ‘성심성의(誠心誠意)를 다해서 전통의 정맥을 이어가는 게 기법이라면 기법이랄까’ 이 한마디로 자신의 기(技)를 일축한 적이 있다”고 평했다.

한편, 만봉불교재단은 오는 2010년 강원도 영월군 만경사 인근 3000여㎡ 규모의 만봉불화박물관을 건립해 만봉 스님의 작품을 상설 전시하고 불화제작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만봉불화의 세계’ 주제학술세미나 개최, 만봉불화도록 발간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만봉불교재단은 박물관 건립을 계기로 만봉 스님 불화 소장품을 기증받고 있다. 현재 재단에 기증된 작품은 모두 193점. 만봉전승회 최복숙 회장이 150점, 만봉 스님 제자 진월 스님(봉원사)이 불화초(草) 40점, 부산 관음사가 영산회상도 1점, 밀양 영암사가 괘불탱 1점, 김대원 재단 사무국장이 십이지신도 1점을 각각 기증했다. 재단은 기증작품의 경우 작품 고증 및 만봉 스님 회고작품전 출품, 기증자 명패 제작과 함께 불화박물관에 영구 소장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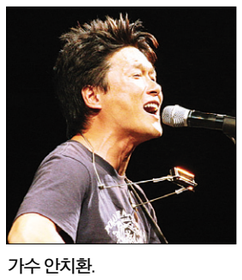
만봉불교재단 최복숙 이사(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는 “이번 전시회는 만봉 스님의 작품을 갤러리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많은 이들이 불화를 친견해 감상하고 영월에 조성되는 박물관에도 직접 찾아와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02)333-9331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만봉 스님 유작 ‘나한도’.

# ‘우리의 남은 인생을 위하여, 박수!’

## 노래꾼 안치환과 밴드 ‘자유’ 8월 21~27일 공연


가수 안치환.

우리 시대의 노래꾼 안치환과 그의 밴드 ‘자유’가 4년만에 소극장 공연을 펼친다. 8월 21일부터 1주일 동안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콘서트 ‘우리의 남은 인생을 위하여, 박수!’를 여는 것.

안치환은 이번 콘서트에서 ‘자유’ ‘너를 사랑한 이유’ ‘당당하게’ ‘인생은 나에게 술 한잔 사주지 않았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위하여’ 등 히트곡을 비롯해 신곡도 선보인다.

특히 이번 공연은 요란한 볼거리 보다는 노래와 사운드에 집중해 관객의 몰입을 유도해내는소통의 무대로 펼쳐진다. 익숙했던 노래들을 새롭게 편곡된 사운드로 들려주고 밴드 음악의 거친 면과 전자음을 최대한 줄여 자연스러운 울림과 어쿠스틱한 느낌을 살릴 계획이다.

안치환은 “쇼적인 모습 보다는 저의 땀방울 하나하나는 물론, 연주자들의 세밀한 모습까지 보여주는 등 오직 음악으로 진정한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정호승 시인의 작품을 노래로 옮기며 두 번째 시노래 앨범인 9.5집을 발표했던 안치환은 내년 상반기쯤 10집을 발매할 생각이다. 4만~4만 4000원, 1544-1555

김성우 기자

# 네팔 만다라 선보여

## 네팔관광청 나무갤러리서

네팔의 불교예술품들이 인도양을 건너 한국 불자들을 찾아온다.

네팔관광청은 9월 2~15일 조계사내 불교중앙박물관 나무갤러리에서 네팔불교예술품 전시회를 연다.

이번에 전시되는 80여 점의 네팔 불교미술품은 만다라와 탱화가 중심을 이룬다. 만다라는 신성한 단(壇 · 성역)에 부처님과 보살을 배치한 그림으로 우주의 진리를 상징화한 불화다. (02)2011-1965

김성우 기자

옛 그림 속 茶 이야기 ② 다구

# 두육의 詩 ‘천부’ 다구 언급한 최초의 기록

지금으로부터 약 1700여 년 전인 중국의 서진(西晉, 265~316)시대, 차를 주제로 한 시 한 편이 전하고 있다.

〈중략…〉

**물은 민강의 것**
**흐르는 맑은 물 길러**
**다기는 잘 가려 월주 도기로 해야 한다네.**
**표주박으로 찻잔을 삼은 건**
**옛 조상님들이 하던 그대로라지**
**바야흐로 첫탕을 달이니**
**차 가루는 살포시 내려앉고**
**다정은 그윽하게 떠오르니**
**빛나기는 흰 눈 같고**
**환하기가 봄 햇살 같다네.** (역: 석도윤)

‘천부(荈賦)’는 두육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는 차를 주제로 한 시인 동시에 좋은 다구(茶具)에 대해 언급한 최초의 기록이기도 하다. 여기서 시인은, 찻잎의 성질과 채취방법, 사용하는 물과 차의 빛깔을 섬세하게 헤아려 고상한 정취로 묘사하고, 제다의 전체적인 과정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청자화형탁잔(青磁花形托盞)’ 중국 영파시박물관 소장.

지금의 시각에서 본다면 차의 성격에 맞는 다구를 선택하고, 문화로서 이를 향유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러나 이처럼 고급의 문화로 차를 이해하고 즐기게 된 것은 두육이 활동하던 시대 이후의 일이다. 그렇다면 차가 식욕을 돋우는 음식을 넘어서 고상한 아취를 지닌 문화로 자리 잡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차나무는 수천 년 전부터 존재했으나 인류가 처음으로 차를 마시기 시작한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삼황시대의 신농씨는 차를 우연히 발견해 해독의 기능으로 활용했다고 한다. 이것은 차의 기원이 상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만큼 유구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차나무의 원산지는 중국 서남부에 해당하는 파 · 촉 지역이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은 오래전부터 찻잎과 쌀로 죽을 끓여먹었던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

후한(後漢)의 〈동군록(桐君錄)〉에는 ‘서양, 무창, 진이릉에서 좋은 차가 나오고, 파동에서는 좋은 향을 지닌 차가 있다’라는 기록으로 보아 후한시대의 차는 식용이 아닌 음료로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위진남북조시대(221~589)는 차 문화에 있어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때이다. 고염무(顧炎武)가 지은 〈일지록(日知錄)〉에는 ‘진(晉)나라가 촉(蜀)나라를 멸망시킨 후, 촉의 영향으로 차를 마시는 풍습이 확산됐다’라는 기록이 있어, 이 시기에 차 문화가 황하유역으로 확산됐음을 알려준다. 또한 〈남제서(南齊書)〉의 기록에 따르면 제사 때에 살아 있는 동물을 대신해 떡, 차, 술을 바치도록 하는 제도가 생긴 것으로 보아 당시 차가 귀족문화의 발달과 함께 고급문화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진남북조시대는 차에 있어서 문화적 기틀이 형성되기 시작한 때이며 이후 수준 높은 당 · 송대의 차 문화를 예고하는 시기인 것이다. 두육이 ‘천부’를 쓴 시기가 바로 이 무렵이다.

**‘다기는 잘 가려 월주 도기로 해야 한다네(器擇陶揀 出自東甌(越州)).’**

두육의 시에서 월주요 자기를 언급한 것처럼 차 문화의 발전은 청자의 확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월주요청자는 한대(漢代)부터 시작해 북송대(北宋代)까지 약 1000년 간 중국 청자의 주류를 이루며 한 시대를 풍미했다. 이러한 월주요의 청자기술은 9 세기경에 유입돼 고려청자의 모태가 됐고, 고려 차 문화 융성의 밑거름이 됐다. 따라서 월주요가 우리의 차 문화에 미친 영향도 간과할 수는 없을 듯하다.

차 문화를 제대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차의 맛과 빛깔을 가장 잘 살리고, 음다에 알맞은 다완이 무엇인지 항상 심사숙고하게 된다. 아무리 그 형태가 아름답다 해도 차의 특성을 잘 보존해 담아내지 못한다면 다완의 첫 번째 덕목을 잃게 되는 것이다. 중국 영파시박물관 소장의 〈청자화형탁잔(青磁花形托盞)〉은 월주요에서 제작된 청자이다. 비색이라 칭송받던 이 푸른 다기에 맑은 홍색의 차를 붓고 바라보면 담황색으로 변해 그 빛이 무척 아름다웠다고 전한다.

이랑 · lang312@hanmail.net ·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연구원

현대불교현불샵 입점 기념 특별 세일전
전통오동나무참숯반닫이에 소중한 물건을 보관하세요!!!

주의!! 서랍장 큰 충격을 주지 마세요.
사용하기 전 7일 이내 반품 가능합니다.

옛고방 전통오동나무 참숯반닫이 (압축 참숯부착)


대형 size


참숯판부착 된 내부모습

- 대한민국 명장 가풍국선생(명장04-14호)께서 디자인 하시고 직접 검수 후 검수필증 부착.
- 습기를 피해 쾌적한 수납공간을 제공하는 고급 반닫이(숯판부착).
- 장마철에 주의해야 할 옷이나 수의도 안심보관.
- 제기 및 제수용품 보관함, 보석함, 고가의 도자기 등 귀중품 보관으로도 OK!!!

전통 오동나무 참숯 반닫이의 특징
고급 가구재인 오동나무와 참숯판을 접목시켜 습기제거, 탈취, 항균 등의 기능을 더한 고급 반닫이입니다.
더운 여름 장마철에 습기때문에 보관하기 어려운 수의, 제기, 옷, 서류 등 귀중품 보관이 용이합니다.
집안 어디에 놓아도 보기좋게 어울리는 인테리어 효과 만점입니다.


수의 등 수납한 모습


제기 등 제수용품 수납한 모습

· 가 격 : 대형 ₩238,000 ⇨ ₩198,000 (17% DC)
[가로 73cm × 세로 41cm × 높이 65cm]
소형 ₩198,000 ⇨ ₩158,000 (17% DC)
[가로 59cm × 세로 41cm × 높이 65cm]
· 재 질 : 오동나무, 오동나무합판(뒷면), 신주장식
참숯판(굴참나무 100% 국내산)
· 원산지 : 한국 · 제조원 : 옛고방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40 밥은 기행

# 밥보다 맛난 화장실의 푸진 글귀

20대에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유럽배낭여행을 떠난 적이 있다. 마지막 정착지인 파리에서 한국인 부부가 운영하는 인정 많은 민박집에 머문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장기 투숙하는 유학생 한 명이 눈을 반짝이며 내게 물었다.

"베르사이유 궁전 가보셨어요? 어땠어요? 샹제리제는 어때요?"

파리에 온 지 2년이 다됐다는 유학생이 20일짜리 여행객에게 하는 질문치고는 이해가 가질 않아 물으니, 그녀는 학교와 집만 오가는 생활을 해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른다며 겸연쩍은 미소를 지었다. 지금 내 신세가 딱 그렇다. 때늦은 학구열로 경주까지 유학 온 지가 반년이 건만, 그 유명한 첨성대며 안압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좋다고들 말하는 계림이며 남산도 '언젠가는 가볼 날이 있겠지' 라는 생각만 지니고 있던 차에, 멀리 일본에 있는 친구에게서 전갈을 받았다. 영국 유학시절에 만난 지도교수 부부와 경주에 오게 됐으니 안내를 잘 해보라는 얘기였다. 난감한 일이었다.




한정식집 '요석궁'은 조선시대 경주 최부잣집의 터로 최부자 형제가 일제시대 독립운동의 주체가 돼 지원을 해왔던 곳이기도 하다.

"최부잣집 알지? 경주에서 유명하다는데 거기 요석궁이라는 식당이 있다나봐. 저녁7시에 예약하려고 하니까 시간 괜찮으면 그리로 와라."

친구가 도착한 날, 느지막이 전화가 왔다. 경주를 잘 아는 후배가 동석해 이미 명소 두어 곳을 들러 근처 공방에서 도자기체험까지 하는 중이란다. 가이드를 동행했으니 걱정도 한시름 놓인 데다 이참에 나도 그 덕을 볼까싶어 횡재라도 한 기분으로 택시를 잡아탔다.

"거기가 3,40년 전만해도 유명한 요릿집이었어요. 한 상에 최하가 7만원이었는데, 당시 웬만한 사람들 한 달 월급이었지. 옛날 통행금지 시절에 경주는 유일하게 통행금지가 없어서 인근 사람들이 늦게까지 술 마시러 많이 왔어요. 이젠 그 집이 옛날 그대로라 운치 있는 거지, 그 집에서 밥 한번 먹어봤는데 음식은 별롭디다. 그 옆에 최부잣집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10대가 부자를 유지한 집이라 유명해요."

저 멀리로 보이는 천년 고목의 계림과 신라건축의 조형미를 대표하는 월정교 복원사업에 최부잣집의 역사까지, 기사아저씨의 신바람 난 입담 덕에 택시가 요석궁 앞에 도착할 즈음에는 이미 경주의 반은 둘러보고도 남은 느낌이었다.

요석궁 안에 들어서니, 한옥의 운치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옛 건물들과 마당의 정경이 덩기덩기 울리는 가야금 가락과 달빛아래 멋스럽다. 단아한 한복과 앞치마를 두른 직원들의 부산하되 조신한 몸놀림에 한 상 가득 차려진 성찬 앞에서는, 오랜만에 보는 친구는 말할 것도 없고 그의 낯선 일행들의 만남도 반갑기만 하다. 친구의 지도교수인 영국인 후크선생님은 한국의 잡채 맛에 반해 한 접시를 후딱 비우고는 추가주문을 하고, 그의 일본인 부인은 한국의 낯선 찬에 이런저런 궁금증을 쏟아놓는다. 그 와중에 후크선생님은 그와 내가 같은 왼손잡이라는 사실에 동질감을 부여하며 낯설음을 금세 친숙함으로 바꾸더니, 오바마를 비롯해 역대 왼손잡이들의 활약을 손꼽아가며 연신 유쾌한 웃음을 지어낸다. 그의 호방한 마음과 연륜이 고풍스러운 한옥의 정취와도 잘 어울렸다. 푸진 저녁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에 들러 변기에 앉으니, 화장실 문짝에 이런 글귀가 붙여져 있었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얼음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신을 낮추어라.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라.'

마지막 글귀엔 이런 추신도 곁들여져있었다. '부탁드립니다. 가방에 담아가지 마시고 마음에 담아 가십시오.'

나는 이런 화답을 남기고 싶다. 요석궁 화장실에는 밥보다도 맛나고 푸진 글귀가 차려져있다.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 만행화 발전의 큰 힘이 되는 조언들

한국적인 디자인의 만행화를 만들기 위해, 보다 편하고 보다 나은 신발로 만들기 위해 노력에 노력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신발일지라도 인지도를 높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인지도를 높이고 수행하시는 스님들을 위한 신발인 만큼 신발에 대한 스님들의 자문이 절실했습니다. 저에게 항상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전 포교원장 도영 큰스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스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도영 스님은 "스님을 교육하는 교육원에 가서 자문을 구해보세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며 불학연구소 국장이셨던 철우 스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도영 스님의 말씀대로 공부를 하시는 스님들께서는 신발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신발의 유형들과 보편적인 신발의 사이즈 등 최고의 만행화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조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스님들은 "많은 이들을 위해 이렇게 좋은 신발을 만들어 편히 신을 수 있게 해주어 고맙다"며 저의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따르릉~!" 철우 스님의 전화였습니다.

"며칠 후에 본말사 주지스님 연수교육이 중앙승가대학에서 3박4일간 진행됩니다. 벽산 거사님의 훌륭한 신발을 연수원에 오신 많은 스님들께 한번 마음껏 선보여 보세요."

아마도 그날의 감동과 설레임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소식에 제 주변사람들과 우리 보살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저와 보살은 뛸 듯이 기쁜 마음을 짐과 함께 꾸려 중앙승가대학으로 내려갔습니다.

본 · 말사 주지스님 연수교육장에 도착해 연수국장 스님께서는 친절하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일러주셨습니다.

신발을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스님을 시봉하는 행자의 모습으로 교육받고 계시는 스님들을 불편하게 해드리면 안 되겠다 다짐, 다짐, 또 다짐을 했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사소한 말실수라도 있을까하여 공손하게 마음을 다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곳에서 선지식 스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뵙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넘치는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큰 스님들은 연수 후 피곤에도 불구하고 만행화에 개선점을 일러주시며 선뜻 구입도 해주셨습니다.

이 글을 빌어 수 십 켤레를 구입하시면서 힘내라며 등을 토닥여주셨던 충주 석종사 혜국 큰스님, 연수교육장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교육원장 청화 큰스님과 불학연구소 국장 철우스님, '항상 발전하는 만행화가 되었으면 한다'며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스님들께 정말 너무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언제나 큰 힘이 되어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스님들의 고마움을 생각하며 앞으로도 조금이나마 불교에 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을 잘 다져나가며 항상 노력하고 정진하겠노라 다짐하여 봅니다. (02)733-5715

행복한 삶을 위한, 선과 禪 심신건강 心身健康

46 뇌신경전달물질과 성격

박지숙 박사 한·양방 의료센터 salm 마인드힐링연구소

# 성공위해 갖춰야 할 백신, 없애야 할 바이러스

●긍정백신과 부정적 바이러스

성공을 꿈꾸는 모든 직장인들과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부와 명예를 얻고 싶어하고 멋있는 CEO를 꿈꾼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부정적인 에너지에 집중하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 이상적으로는 "~~되고 싶고, ~~도 하고 싶고, ~~도 원해"라고 바라지만 늘 되뇌고 입에 달고 사는 말들은 "도대체 왜 이런 거야, 난 완전히 망했어, 파산이야, 돈 없어 죽겠어, 이번 달에는 또 뭐로 먹고 사나…"등의 걱정과 한숨 그리고 불만이다. 그러나 걱정, 한숨, 불평불만을 쏟아 놓을수록 우리 삶의 에너지는 점점 더 원치 않는 부정적인 것들을 끌어당기는 결과만 초래할 뿐.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말의 파워는 생각보다 엄청나서 우주는 집중하고 내뱉는 말과 생각대로 이루어지게 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감정은 흡연보다 인간생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긍정적인 감정 교류는 수명을 평균 10년 정도 더 연장 시킨다"고 한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은 수명을 줄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생활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람들은 하루 깨어 있는 동안 약 2만 번의 개인적인 경험을 한다고 한다. 순간 매초마다 일어나고 있는 그 개인적인 경험들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느끼느냐에 따라 우리 일상과 삶이 지배받게 된다.

"난 정말 힘들고 화나, 그러니 알아서 잘들 해봐"라는 등의 냉소와 무관심, 부정적인 마인드는 자기 스스로를 훼손하는 길이자 상대방에게도 그 에너지를 전달해 조직과 관계를 순식간에 낙담시키고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조금만 더하면 A를 달성하는 것도 문제 없겠어. 그러니 다들 조금만 더 힘내보자"라는 밝고 긍정적이고 따뜻한 마인드는 자기 스스로를 격려하는 길이자 조직 내 사람들 간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환하게 만들어주며 그 에너지는 일의 성과에 있어서도 당연히 효율성 있게 작용하기 마련이다.

●열정백신과 게으름 바이러스

미국의 성공적인 기업가 중의 한 사람인 잭 웰치는 입사 20년 만에 미국 거대기업인 제너럴일렉트릭(GE)의 CEO가 되고 그 후 다시 20년 동안 회사의 시장 총 가치를 무려 41배나 키워놓은 전설적 인물이다.

'살아 있는 경영학 교과서'로 불리는 잭 웰치는 최근 펴낸 책 에서 기업에 필요한 인재의 조건으로 '4E + 1P'라는 것을 제시하며, 이런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최근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당선을 두고도 그는 "오바마의 성공 비결은 바로 '4E + 1P'에 기반을 둔 리더십에서 나왔다"고 분석했다.

4E의 E는 첫째 에너지(Energy), 둘째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능력(Energize), 셋째 결단력(Edge), 넷째 실행력(Execution)을 의미하며, P는 바로 이를 가능케 하는 열정(Passion)을 말한다.

특히 이 열정은 4E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자 전염성도 강해서 A라는 조직에서 열정이라는 불이 붙어 일이 놀라울 정도로 추진되면 B라는 조직, C라는 조직 등으로 함께 매우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더불어 여기에 유머와 밝은 웃음이 겸비된다면 더할나위 없는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겠다. 유머와 웃음은 효율적인 일의 성과를 불러들이기도 하지만 여유와 건강함의 표현이다. 그리고 내면적인 행복의 표시이기도하다. 그러므로 이는 여유로운 생활과 건강함 그리고 조직의 화합을 이끌어 내는 촉매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전 CEO 허브캘러허는 펀(fun) 경영을 통해 직원 개개인들의 마음을 얻고 일체감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어 빛나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펀 경영의 도입이후 항공사는 업무능률이 3배나 높아졌고, 기업경쟁력 또한 월등히 높아졌다는 것을 본다면 유머 또한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02) 576-7575




현대불교 현불샵

생활도자기 특별기획전

전화주문 ☎ 02)2004-8215~6

도자기의 본고장 경기도 이천에서 도자기의 생활화를 목표로 순수자연원료로 제작된 도자명품 생활자기입니다. 우리 도자기의 품질로 완성된 생활 명품입니다. 도자기 접시와 찻잔(머그잔, 커피잔), 다완, 퇴수기, 화병, 화로 등 다양하고 품격 높은 생활자기는 불자님들의 생활을 더욱 향기롭게 할 것입니다.

· 퇴수기는 흔히 물버림 사발이라고도 하며, 버리개라고도 합니다. 다관과 잔을 데운 물을 버리거나 다관을 엎어 찌꺼기를 버리는 그릇입니다. 입구가 넓으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3단도라지꽃합접시
大20,000원/中10,000원/小5,000원


둥근3꽃접시3종세트
판매가 35,000원


4발접시
판매가 45,000원


검정사각흰꽃접시
판매가 45,000원


청자수반퇴수기
판매가 50,000원


분청퇴수기
판매가 80,000원


이도덤벙퇴수기
판매가 40,000원


분청동그리화병
大 40,000원 / 小 20,000원


분청하얀꽃화병
大 60,000원 / 小 40,000원


벚찌화병
大 100,000원 / 小 80,000원


보리꽃커피잔
판매가 18,000원


카키색흰물고기찻잔
판매가 8,000원


카키색도라지꽃찻잔
판매가 16,000원


백자도라지꽃찻잔
판매가 16,000원


하트모양커피잔
판매가 15,000원


연꽃백자커피잔
판매가 18,000원

현대불교@장터
www.HyunbulShop.com
이외 다양한 상품은 현불샵(www.hyunbulshop.com)에서 만나보세요.

#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법성사 불사기금 마련을 위해 사찰에서 직접 담아 보급합니다**
황토 전통메주, 죽염장, 죽염된장, 매실 고추장, 국내산 대두콩 100%
새마을금고 : 2918-09-002988-0
예금주 : 조정환
전남 장흥군 관산읍 용전 2구 80-1 법성사
전화061)867-2331
010-8643-6680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연락처 010-2606-5121

**불자결혼 상담소**
국내 : 초혼, 재혼, 친구, 연인
국제 : 필리핀, 베트남, 한족
성실男 미모女 상담환영.
30대女 무료, 70세까지 (남녀)
아현역 2번출구 (원갑사)
02)365-1345
010-9114-434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전문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학개인지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짧은 시일내에 실제감정위주로 신수와 영가탈 배워 천도재 지낼 수 있도록 강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우주大광명 천기(氣)도법**
우주 氣편지 받고 부처님 신통력 업장소멸
- 건강, 인생, 우환, 사업이 잘 안되는 분.
- 영적장애, 신내림 등 고통받는 불자, 수행자.
- 빙의, 신병, 정신질환, 치매, 우울증 등
- 병원치료, 최면술, 천도재를 해도 안되는 분.

031)321-9555
011-586-6091일광사

**출가 수행 예비자 모집**
인천의 사표가 될 조계종 승려 예비자를 모집합니다.
자격 : 40세 이하 남. 녀
지원 : 조계종 전 교육 지원
상담 후 종립에서 행자 생활 수행.
011-737-2658

**보 살 선 방**
- 1인1실 : 방1, 주방, 거실, 욕실 / 방1, 주방, 욕실
- 부부실 : 방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재)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각종불공 범음·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예수재, 수륙재,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 주역, 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영업하실 분 모집**
- 남,녀 연령제한 없음
- 높은 능율급 지급
- 취급품목 : 불교서적, 작품, 불교 달력, 각종서화, 표구 액자 전문
- 불교계 활동하시는 분 환영

부산불교문화사
051)202-8770

**원정스님/가치료/운명상담(무료)**
1. 모든 질병, 우울증, 틱장애, 게임, 알콜중독
2. 빙의, 퇴마, 전생, 신병, 헛것이 보이고 헛소리가 들리는 사람
3. 학생진로상담, 운명팔자바꾸어 줌, 전생, 부부문제

신비의 손, 눈 초월감각으로의 초대
010-5790-2351

기도하며 염불(49재의식) 배우며 기도하실 행자 · 비구스님 모십니다
▷대전지역
018-220-0566

50세 미만 기도스님, 공양보살(55-65세) 모십니다.
▷경기 시흥 도각사
011-314-9848

기도스님 구합니다
▷비구, 비구니 스님 가능
055)311-2911
010-7385-1080

기도스님 모십니다
▷비구스님, 경기도
011-9317-9181

제반 조건으로 법문하실 큰스님 모시기 어려운 적은 사찰에 작은 스님이 정성껏 법문 최소의 보시금으로 보시 하겠습니다
010-2871-6668

**쉼터** 약수암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수암 비법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010-7232-0384

학승이나 기도스님. 평생 함께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평생 함께 할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경기도 양평
010-4746-5927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40-50세) 양평 용문면
010-7484-6885

조계종. 노승은 홀로 정진하다 쉬고싶어 산사수려한 고려 9승지로 꼽힌 지장보궁에 참으로 좋게 지은 정진도량 답사 후 평생 운영 관리할 4-50대 비구니를 건당 상좌뵐 인연제자. 전화 기다림. 또한 4-50대 신심있는 후원 관리할 공양주 속히 구함. (식구없음, 답사후 보시금 결정함)
소백산 내원암
054)653-1180
010-6353-1180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속초 보광사
033)633-2920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합천군 대병면 청강사
016-9506-5706

**부전스님 초빙**
신심으로 함께 수행 정진하실 조계종 소속 기도스님을 모십니다.
연락처 051)853-5486~7
범어사부산포교원 여여선원 부산불교회관(부산시청 옆)

**28숙기도 (대방등 대집경)**
-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법당을 모신 거사나 보살
- 위치 : 백선사 절 (지하철 1호선 부천역 하차)

☎ 032)664-0048 / 011-741-0867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4개월 : 중급4개월 : 연구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7시~10시,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9~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동대문구 T: 2243-9598. H.P: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하루 저녁에 깨우치는
**패철 보는 법**
문학박사 전 용 원 저
개정 증보판 2만 5천원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2만 5천원 입금, 전화(1688-1137) 주시면 책에 저자가 직접 사인과 낙관찍고 월간역학(8천8백원) 무료봉봉, 함께 보내드립니다.

**불자가 정성스럽게 만든 수 제품입니다**
**요술연꽃 촛대 (불자 및 가정용)**


요술연꽃세트(홍련→백련)


장수거북연꽃세트

특 징(티라이트전용)
1. 경제성 : 1회용이 아닌 반영구성
2. 친환경 : 천연왁스만을 태움
3. 다양성 : 커벨레온 기능(요술)
4. 메시지 : 종교적 의미(홍련 → 백련)

가 격
- 요술연꽃세트 15,000원 (연꽃, 받침대, 티라이트 1개 포함)
- 연꽃크기 : 직경 8㎝
- 장수거북연꽃세트 2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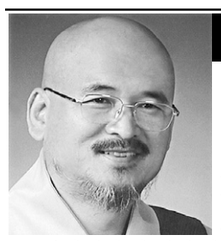
egaart www.egaart.co.kr ☎031)882-0512 Fax. 031)881-620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역학공부**
집에서 간편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확실하게 공부하세요
인터넷 동영상 강의 www.kbs.cc
사주 관상 풍수 수상 육효 자미두수 주역
사주 전과정 45만원부터. 수료증 자격증
한국역학협회 / 전화 1688-1137

**오 가 피 뿌 리**
오가피가 몸에 좋은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정직한 수행자가 경북 안동에서 생산한 오가피 뿌리를 갈근, 두충, 당귀, 대추(이상 국산), 감초(중국산)와 함께정성껏 다렸습니다.
60팩 1박스 10만원(3박스 이상 구매시 9만원)
주문 후 입금 확인되면 3일 이내 배송해 드립니다.
농협 121022-56-217821 정부연
경북 상주시 모서면 백학리 526 유일한농원 머슴 정원규
011-886-1256 070-7743-1258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이름 작명
작명. 개명. 상호. 회사명. 아호. 단체명. 모든 분야 이름
문의 051)867-8438
부산경상대학 졸업. 김해가야대학교 졸업
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국가공인한자1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명리학 개인지도 속성*
부산시경 뒤 시청 어린이집 뒤편 삼화탕 옆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성공하실분 노크하세요.(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21세기형 행자교육!!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 ·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 추석 · 기일 · 영가 천도일에 천도 축원 해드립니다.
- 문의 : 010-6296-0108

**단기 출가나 및 사미, 비구계 미득도 스님 모집**
- 현재 비구, 비구니 스님으로 사미, 구족계를 받지 못하고 활동 중인 스님.
- 출가는 하였으나 예불과 천도의식에 자신이 없으신 스님.
- 출가를 하고 싶으나 세수가 많아서, 혹은 어려운 행자생활에 자신이 없으신 분, 또는 시간이 없으신 분.

(본 선원은 30년의 역사를 가진 종단소속으로 득도 및 단기 출가자 교육 전문도량입니다. 단기출가자는숙박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소정의 교육비가 있습니다. 단기 교육 후 사미수계를 받으며 수계증명원과승려증, 사찰등록도 가능합니다)
한국불교의식대학 거한선원 043)853-9798

**어린이 법회 교사를 모십니다**
전남 여수 석천사 어린이 불교학교는 어린이를 사랑하고 불교에 관심 있는 어린이 지도자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상 - 어린이를 사랑하는 20세 이상의 건강한 남, 여 누구나
■자격
◎ 불교 기초교리 이수자, 다년간 불교 신행 신도
◎ 어린이 지도 경험 및 어린이 법회 운영 경험자
◎ 불교 어린이 지도에 뜻을 가진 자
■독신자는 숙식제공 가능
■보수 - 상담 후 결정
■문의
전남 여수시 덕충동 1830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마래산 석천사

Tel : 061)662-1607, 663-2220
Fax : 061)664-8054

**명당 탐지기**



대한민국 특허청 등록상표
**심룡척!!**
심룡척은 명당에서 정확히 옆으로 90~180도 회전한다.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고 있는 문학박사 전용원(나경 사용법 저자)이 1970년대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로도 판매 된다. 이미 국내외 유명지사들이 사용 중이며 100% 정확하다. 사찰, 집터, 건물터, 묘터를 잡거나 감정할 때 꼭 필요한 기구로 설명서대로 하면 누구나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 심룡척은 88만원이지만 지금 구입하시는 분께는 66만원으로 할인+케이스(2만원)+수맥탐지봉(1만 5천원)+월간역학 1년 구독(10만 5천 6백원) 등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구입방법: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66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 주시면 즉시 안전하게 택배 또는 등기로 보내드립니다.
*<패철 보는 법 책(2만 5천원)>도 판매합니다.
구입 시 월간역학(8천8백원)도 함께 무료 증정.
*역학공부: 저렴한 비용, 집에서 간편 신속 확실히 사주 관상 풍수 수상 육효 주역 자미두수 동영상 강의 수료증 자격증 한국역학협회 www.kbs.cc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 전화 1688-1137

**월간역학**




창간 20주년 기념 이벤트
월간역학은 1990년 7월 창간하여 주역 .사주 .관상 . 풍수 뿐만 아니라 유.불.선의 심오한 내용을 알기 쉽게 수록하여 매월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월간역학은 2010년 창간 20주년을 맞는 기념 이벤트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지금 회원가입 하시면 총 120만 5천 6백원을 단 10만원으로 할인해 드림.
1년 구독료 10만 5천 6백원+월간역학 <해설위원> 광고(1년 50만원)+ 월간역학 인터넷 광고(1년 50만원)란에 사진, 사찰명 한의원이나 역학자 기타 업체 상호와 영업내용, 주소, 전화번호 1년간 게재+수맥탐지봉 1세트(1만 5천원) = 120만 5천 6백원. 이 행사는 10년만의 행사로 다음 기회는 2020년에 있음.
2. 회원증(호화 금박, 가로 42cmx세로 30cm), 해설위원 위촉장 보내드리며, 본사 발행 모든 도서 20% 할인, 타 출판사 취급 도서 10% 할인 해 드림.
3. 국내외 학회 및 토론회, 풍수기행 등의 행사에 초청 받으시는 외에도 많은 혜택을 드림.

가입방법: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10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사주 관상 풍수 수상 육효 주역 동영상 강의- 저렴 속성 완성
한국역학협회 월간역학 www.kbs.cc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 전화 1688-1137

**기문명리학강의안내**
[사주, 작명, 택일, 풍수, 단시, 병방]

교육장소
-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문의 02-961-0870~2)
-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문의 031-201-3377)

개강일시 2009년 9월 15주 과정
- 매주 수요일(서울) : 사주명리학(오후 7시 - 9시 기초과정)
- 매주 목요일(서울) : 기문명리학(오후 7시 - 9시 해단 및 양택)
- 매주 금요일(수원) : 기문명리학(오전10시 - 12시 해단 및 택일)

원서접수 2009년 8월 31일까지 선착순 마감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 및 인터넷 접수
수강과목 기문명리학(서울·수원), 사주명리학(서울초급)



담당 교수 : 손 혜림
(동국대학교불교대학원 6기)
민강기문명리원장
02)3476-3433,3430
www.gimun.net 대표

기문명리학 이란?
일반적인 명리학이 단지 운명을 추측하여 추정하는 추명학이라면, 기문명리학은 정해진 운명의 바코드를 정확히 읽어내는 정명학입니다. 본 강의는 단군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정통의 특수 비법을 전맥자 이론에 의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전수해 드립니다. 수 천년을 진해온 학문인 만큼 누구에게 어떻게 배우느냐가 기문학을 성공적으로 배울 수 있는 관건이 됩니다. 카운셀링이나 심리요법을 하는 분들, 환자를 치료하는 분들, 종교사업 운영이나 사주상담원을 하는 분들, 특히, 혼미한 세상의 등불이 되고자 하는 사명감을 지니신 분들께는 참으로 필요한 진리의 학문입니다.

손혜림 원장 특별개인지도 문의 010-2376-3433

#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접수마감 : 매주 수요일 오후. 다음주 금요일 게재

##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부지 : 78평
- 가액 : 2억8천

- 위치 : 부산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부지 : 2000평
- 가액 : 4억5천 (급양도:조정가능)

- 위치 : 부산
- 법당 : 35평
- 요사 : 100평
- 부지 : 135평
- 가액 : 13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시내
- 부지 : 100평
- 법당 :지상4층(160평)
- 시내최고자리고찰
- 급양도가 : 20억

- 위치 : 서울
- 대지 : 86평
- 인법당 : 25평
- 요사 : 20평
- 가액 : 6억5천

- 위치 : 경기,포교당
- 시내요지
- 법당 : 50평
- 요사 : 50평
- 가액 :4000/15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구입자금 융자 알선해 드립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인연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2221-2807/02)723-4082

##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 사찰 및 토굴안내

바다 전망 좋은 절

- 총대지 : 약 1300평(국유지 2000평)
- 법당 (목조) 35평, 공양간 50평
- 요사채 2동, 대종각 및 산신각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기암괴석)
- 사찰주변 대단지 아파트 및 주택가
- 가액 : 14억

- 위치: 지리산 아름다운 절
- 대지 총평수: 420평
- 법당(와가) 20평, 요사채3동
- 도량주변 산세, 풍광, 계곡물 최고
- 주차장 및 텃밭 마당넓은 절
- 가액 : 1억8천(은행 5천 포함)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 토굴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 명 당 토 굴

- 위치 지리산 청학동.
- 평수 : 대지 약150평
  건평 약32평
- 수양 및 기도처 겸 양택 최고의 명당
- 가격 1억2천만원

010-2029-2932

## 암 자 안 내

- 위치 :경북 봉화군 상운면 문촌리 148번지
- 법당 30평, 요사채 24평
- 주차장 넓음, 전답도 사용가능
- 가액: 전세 3500만원
- 시설비 없음

010-9004-7212
054)672-8231

## 사 찰 ( 급 ) 안 내

- 위치 : 서울 보문동
- 대지 160평, 법당 45평
- 토굴 : 산신기도 40평
- 요사채 : 130평(해우소 별도3개)
- 2층 건물 중 1, 2층 모두사용
- 서울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큰 사찰
- 전세 5억(시설비포함)금액조정가능

010-8577-1811

## 사 찰 ( 급 ) 안 내

- 위치 : 충남 아산시 (국도에서 5분 이내 거리 위치)
- 충남에서 가장 발전하는 아산시와 천안시에서 가까움
- 면적 : 전 2,400여 평,대지 : 총 800여 평(현재 법적으로 종교부지 300여평 정도밖에 허가 받을 수가 없지만 이미 800여평을 허가받았음)
- 건물 : 신축 법당 33평, 요사2동 80여평
- 시설 : 법당 여러 불상과 탱화 등 완벽함
- 가액 : 25억원 (직접 만나 조정 가능함)
- 특징 : 산세와 계곡이 좋은 최적의 명당 산사 (지금 좋은 사찰터를 구하는 것이 힘들고 많은 건축비용 등이 부담되는 분에게 가장 좋은 조건이 될 것임)

010-3415-2245 / 070-7135-7241

## 한 국 불 사

- 서울 약 50평 9억
- 경기도 4억 8천만원 외 매물 다수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양수 하실분 전화 상담하여 드립니다
※재개발 지역 보상문제 상담환영

02)6674-3535
010-3154-3535

## 토 굴 안 내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 평수: 236평
- 임법당: 13평, 방2개, 주차장 넓음
- 스님 혼자 기도하시면서, 법회하실분 언제든지 걸망만 풀면 법회할 수 있음
- 가액: 7000만원

010-6357-5860

## 포교원 안내

- 위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교대입구 1분거리
- 평수: 30평, 삼존불, 각단탱화 모셔있음, 종무소 법당 에어컨완비
-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500만원 월40만원
- 시설비: 1천만원

010-8653-3216

## 전통사찰(급) 안내

- 납골당
- 관광사찰
- 가액 : 45억(금액조정불가)

017-227-5965

##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성북구 석관동
- 평수: 3층 건물 2층 42평
- 구조: 법당 25평, 방2, 주방, 간이 사무실, 화장실
- 시설: 불단(원목) ,영단(영구위패 500개) 1년연등(500개)등 최고급 시설
- 가액: 5,500만원(보증금 2천 시설비 3,500만원 월 85만원)

010-7609-0920

##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촌IC에서 10분이내
- 부지: 9630평 (1600여평+임야 8000평)
- 한옥신축대웅전, 신축황토방 요사채 ,조립식건물+산신각
- 추가건축허가유(고층질수있음)
- 바로앞 홍천강 경관과 기도도량
- 가액: 15억(절충가능)

011-9888-1563

##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 후문 부근
- 5층 건물에 3층 약 40평
-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85만원
- 시설비 2,500만원
- 상담하시는 스님 최적지

02)887-2138
010-9940-9779

##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김천시 김천역 10분거리
- 법당, 요사채 각 2층
- 대지 170평, 법당 45평 요사채 60평
- 김천 혁신도시, 고속철 역사 도로 개입
- 가액: 7,000만원 인수 (대출 승계 조건)

054)435-3816

##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시내 중심가
- 평수 : 약 45평(2층건물)
- 삼존불
- 가액: 보증금 15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700만원(시설물 최상)
- 현재 법회중 꼭 하실 분만 연락주세요

010-4176-0772

## 토 굴 안 내

- 위치: 청도 비슬산 자락
- 부지: 1400평
- 가옥: 황토집(58평)
- 창고: 22평
- 특징: 산속 청정계곡 참 좋은터
- 가액: 6억 5천만원

010-9057-2112

##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 6,500평 (실등기 5,000평)
- 법당 20평, 요사2동 2동 중 황토방 1개, 산신각, 실내외 화장실3개
- 가액 : 5억 5천만원

011-816-9104
011-815-9104

##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기도 군포시 군포역전 시장 앞
- 5층건물 중 2층 전체
- 약 80평.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13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8811-7599

## 사찰(급)안내

- 위치: 포천시 송우리(의정부경계)
- 총평수: 430평
- 1. 2층 건물 중 1층 명부전 50평(위패단 및 극락도량) 2층 대웅전 34평
- 2. 별채 1호 80평 중 1층 휴게실, 2층 산신각 및 선방 1칸
- 3. 별채 2호 150평중 일부 주차장 일부 60평 중 종무실, 매점, 공양실, 선방2칸, 화장실4평
- 모든집기 일체 양도합니다
- 가액: 15억 5천만원

010-9757-7245

## 토 굴 안 내

- 위치: 경북 포항 북구 심광면 흥곡2리 518번지
- 대지: 101평 건물 30평
- 특징: 부처님 모셔져있음. 붉은 벽돌에 내외벽에 황토를 입혔음. 지붕은 기와함석, 심야 기름보일러, 비구니 스님 수행하시기에 적합
- 가액: 9천만원

011-9235-0720

##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 밀양시 무안면 땁 흘리는 표충비각에서 5분거리, 국도변 위치(교통편리 시내외 정류소 옆)
- 대지: 230평사용(등기 192평), 주차장 넓음
- 요사채: 적벽돌 슬라브 60평 (2층증축가능), 최고급 원목 실내 시설, 태양열 설치
- 법당 18평 1동 (삼존불 및 후불 35평형 탱화)
- 가액: 2억 3천 8백만원 (은행융자 8000만원 포함)

010-8678-9575

##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도 주문진
- 법당: 60평(2층)
- 요사채: 60평(1층)
- 가액: 2억 8천만원(절충가능)
- 자연경관수려, 지하천연수 시설 최고 완벽

016-347-5308
033)661-5308

##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김제시 납골공원 내 있는 절
- 법당 15평
- 삼존불, 시설일체
- 전세 500만원

063)543-5551
010-4427-2256

##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광안3동
- 2층, 30평
- 가액: 보증금 300만원 월 50만원
  시설완벽
  시설비: 2000만원

051)752-5856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역 근교(4층) (지하철 5분거리)
- 평수 : 약 30평
- 보증금 2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700만원
- 모든시설완비,즉시법회가능

010-5280-0260

##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
- 4층건물 중 2층
- 평수 40평
- 완벽한 시설, 즉시 법회 가능
- 스님 사정으로 급 안내
- 가액: 보증금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2500만원

051)501-2723

## 포교원(급)안내

- 위치: 마산 운동장 옆 산호시장 부근
- 평수: 30평(3층 중 2층 전체)
- 삼존불, 신중탱화
- 즉시법회 가능
- 가액: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5백만원
- 스님 부재 중으로 급 안내

055)232-7151
019-550-9725

##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중구 유곡동
- 대지 50평, 건평 50평
- 모든 시설 완비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010-9990-5234

##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궁유면 운계리(문수사)
- 부지 총 1,700평중 540평 종교부지
- 건물: 임법당, 요사채, 산신각포함 100평
- 현재 총공사비 약 4억소요되었음
- 스님의 건강악화로 2억에 급히 양도함
- 특징: 조그만 암자나 교통편리한 다른 건물교환 가능합니다.

055)572-0405
011-9850-8208

## 도심사찰(급)안내

- 위치 :충북 청주시 우암산중턱
- 대지60평, 건평 80평
- 특징: 현재 신행과 포교 활성화 된 도량, 주변 주차장, 소방도로, 공원 등 여건 좋음
- 가액: 2억 5천만원 (대출금 5천만원 포함)

010-2259-6314

##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 유성구 장대동 금호고속 부근
- 2층 건물 약 40평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37만원 시설비 500만원

042)825-3020

##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산 122-6
- 임야 2315㎡ 대지 : 등기건물평수(45평)
- 법당,요사채,접견실,승방,
- 화장실,신도숙소(등기건물 외 건물 약 30평)
- 가액 : 3억 5천만원(절충불가) 본인에게 직접 상담요망

019-379-9999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 휴식공간 30평 사무실1, 방6개, 시설 최상급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상담 후 절충가능

010-4199-0047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
- 대지140평, 텃밭 28평, 법당 25평
- 요사채 30평(방4), 스님방 1, 창고 大, 小 2개, 건물 90평정도 단독지하수 사용
- 화장실 겸 샤워실2, 부엌겸 거실1, 바깥큰부엌, 1, 마당까지 주차가능
- 가액: 1억1천 5백만원
- 꼭 필요하신 분만 전화요망 주지스님 건강 관계로 '급' 양도

010-9466-1191

## 포교당 안내

- 위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교대입구 1분거리
- 평수: 30평
- 삼존불, 각단탱화 모셔있음
-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500만원 월4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10-8653-3216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 우척산 무위사
- 평수: 대지 220평, 요사채1(22평, 방3) 요사채2(공양간, 목욕실, 화장실)
- 법당25평 (임시 하우스 법당) 산신각 4평.시설일체완비
- 가액: 1억 1천만원 (융자3천포함)

010-8327-3808

## 사 찰 안 내

- 위치 : 하동군 묵천면 직전리 산 70-3번지
- 대지: 1,000평
- 임법당: 16평, 삼존불, 마애불 (도 문화재 지정 사찰)
- 현재 공양간, 요사채 토목공사중
- 가액: 1억 2천만원(절충가능)

055)882-7887
010-2428-3663

## 사찰터안내

- 위치 : 춘천시 남산면
- 교통: 가평 터미널에서 10분 강촌 나들목에서 12분
- 특징: 완벽한 기도처, 현 산중턱 독립펜션운영중
- 평수: 700평, 가옥 50평 사찰터에서 펜션을 운영하니 사정상 사찰을 하실분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 가액: 5억 3천만원(주변 땅은 매입 가능함)

033)263-1719
019-9177-1084

## 암 자 안 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약 일백년 된 좌청룡 우백호 산세 좋은 명당터
- 신축 요사 35평인 법당,심야 기름 겸용, 삼성가 목조 5평
- 자연석 조경 및 돌탑 잘 되어있음, 큰 도로 시내버스 정류소 300m
- 교통 : 원주시청-충주시청 4차선 전용도로 개통 시 약 10분거리 위치 중간에 있음(현재 부분개통사용)
- 땅 : 1230평, 시세 : 평당 40만원, 현지답사 후 절충가
- 주지스님 건강 문제로 급매,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주세요

011-371-5567

## 전원주택 · 토굴안내

- 위치 : 강원도 인제군 원통터미널에서 15분거리
- 총 1400평, 대지 300평, 건평 25평, 텃밭 1개
- 산중턱 황토집, 심야보일러
- 집근처 강이 흐르고 경치가 아주 좋고 , 조경 잘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음
- 가액: 3억 3천만원

033)462-9734
016-337-9736

## 신도시부근사찰

- 경기북부 시내중심(도보10분거리) 풍치 수려한 절
- 부지 680평(실사용 천평이상)
- 대웅전 20평, 요사채2동 (100평 30평) 창고2동. 시설좋음
- 전철역(2블럭) 개통예정
- 잠실,강북 30분거리 포교와 수행의 최적지
- 가액: 인근 그린벨트 주택가 평당 500만원 선이나 상담후 절충가

011-393-0013
011-710-7294

## 포교원안내

- 부산시 북구 만덕 2동 (도심있으며, 대형A근접)
- 법당: 2층 60평(전체 100평)
- 방: 3개(1개 (大) 는 법당. 방 겸용) 사무실 1개
- 교통:전철역, 버스정류장 3분거리. 전용주차장 有
- 가액: 1천만원(월 70만원)시설비: 답사후 절충 입주후 즉시 법회가능,스님 사정으로 급안내

051)542-9983
010-2652-9983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함창읍
- 대지: 총776평(대지238평, 전538평)
- 건물: 요사채 29평, 법당 22평, 창고 10평, 산신각 2.5평
- 기도도량, 유실수 100주이상 (3년~4년생)
- 2006년 10월 등기,대문까지 차량 진입
- 함창읍에서 2분~3분거리,접촌에서 5분
- 가액: 1억2천만원 / 꼭 하실 분만 연락바람

011-522-9391

## 콩만한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부림면 감암리(용암사)
- 대구에서 50분 창영에서 20분 합천에서 25분 부산에서 80분) 진주에서 대구가는 국도 20번에 접합
- 100M 차량 출입가능
- 대지: 200평+200평...평당 약 20만원
- 건물: 법당(목조 13평 6천소요)
- 요사채(신축 32평: 슬라브일부기와. 평당 300만 소요)토목 및 석축 옹벽에 많이 소요되었음
- 가액 : 몽땅 1억 4천만
- 스님 부재로 운영곤란 하여 양도 하려고 합니다

011-9329-4241(처사)

##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광안 해수욕장 5분거리
- 3층 건물 중 2층 법당 60평, 방2, 화장실2, 주방
- 삼존불,산신,후불,신중,칠성,소불 200불
- 전세 1억 3천만원(사글세 가능) 시설비 없음, 주인 직접
- 스님 사정상 급양도

010-3019-2236

# 모든 종교, 방법 달라도 추구하는 진리는 '하나'

강 사 : 시린 에바디(노벨평화상 수상자)
일 시 : 2009년 8월 9일
주 제 : 종교간의 평화와 화해
장 소 : 서울 여해문화공간
주 최 : 아시아 기자협회

시린 에바디(Shirin Ebadi · 62) 변호사는 이란 최초의 여성 판사, 이슬람권 최초의 여성 노벨상 수상자이다. 그러나 그의 인생 역정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2003년 노벨평화상을 받는 등 세계적 인물로 부상했지만, 정작 그의 조국 이란에서는 여전히 요주의 반체제 인물이자 정권의 눈엣가시이다. 당국으로부터 활동을 중단하라는 압력과 거듭되는 투옥, 수차례 암살명단에 올라 위협을 받았지만 "이란의 인권 향상은 이란 스스로가 이뤄야 한다"며 자주적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노벨 평화상 수상 뒤에도 에바디의 고난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에바디는 "이란과 같은 경직된 사회에서 여성의 몸으로 인권운동을 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확신한다면 그 길로 나가는 게 두렵지 않다"고 말한다. 약자의 인권개선과 세계평화를 향한 열정과 헌신을 보여준 그녀가 만해대상(평화부문) 수상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신정(神政)체제의 이란에서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에바디가 말하는 '종교 평화와 화해'의 비전은 어떤지 살펴보자.



서울 장충동 여해문화공간에서 '종교간의 평화와 화해'를 주제로 강연하는 시린 에바디.

**시린 에바디 Shirin Ebadi는…**

1947년 6월 21일 이란 출생.
학력-테헤란대학교 법학
수상-2003년 노벨 평화상(여성과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 투쟁한 공로)
2001년 노르웨이 라프토상
경력-1999 이란 테헤란대학교 법학 강의, 1974~1979 이란 테헤란시 법원장.

## 종교 바탕한 정권 있을 수 없어… 이슬람 본질 왜곡돼
## 이데올로기 구실로 자유에 대한 믿음과 신념 무시 '안돼'



강연 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 이슬람과 인권이 공존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슬람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슬람과 인권이 함께 공존 할 수 있는가?' 일부 사람들은 이슬람과 민주주의가 함께 공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두 그룹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이슬람의 비민주적인 정부와 정치인이고, 두 번째는 이슬람의 급진주의자들입니다. 이슬람의 비민주적 정부는 민주주의를 서양에서만 찾아볼 수 있을 뿐 이슬람에서는 공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정부의 권력이 종교에서 오는 것이지 투표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오직 자신들의 관점을 표현하는 이데올로기의 입장에서 이슬람을 이야기할 뿐 순수 무슬림들의 생각은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슬람 정부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이슬람이나 무슬림에 대해서도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정부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정치와 종교 분리돼야**

종교를 바탕으로 한 정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는 것에 기본을 두고 나라를 세워야지, 자신의 신념만을 가지고 나라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은 미국의 민주주의와 이슬람이 공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의 새뮤얼 헌팅턴(Samuel Huntington)입니다.

그가 주장한 이론은 '문명의 충돌'입니다. 그는 이슬람과 동아시아 지역의 유교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장애물로 규정하면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발상지가 서양임을 강조했습니다. 즉, 이슬람과 중국 등 비기독교 문명권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9대 문명권에 포섭되지 않는 독자적인 민족 · 종족들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의 증거로 드는 것이 일부 이슬람 과격파들의 테러리즘이나, 이슬람 국가의 비민주성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이론이 서구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구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이 끝나자 이 이론이 생겼습니다. 공산주의와 냉전이 없어지게 되면서 서구는 자신들의 무기를 팔 상대를 찾아야 했고 따라서 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 '문명의 충돌'은 서구의 주장일 뿐**

이슬람은 과거에 공산주의에 반대했기 때문에 서방세계와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명의 충돌이라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슬람 과격파도 미국의 지지 하에 운영됐습니다. 구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군사적으로 점령했을 때 미국의 재정지원을 받아 탈레반이 설립됐습니다. 탈레반은 미국의 무기와 힘을 이용해서 아프가니스탄을 자신들의 권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친분관계에 있었던 이슬람과 서구는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 갑자기 적대적인 사이가 됐습니다. 저는 이 이론이 이슬람세계에 무기를 팔고 싶어하는 서구의 필요에 의해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슬람세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슬람의 비민주적 정권들은 민주주의를 오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이고 신사고를 가진 이슬람 사람들은 현 정권에 투쟁을 하려고 합니다. 이 그룹의 특별한 이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지도자도 없습니다. 중심이 되는 브랜치(branch)와 사무소도 없습니다. 그 힘은 무슬림들의 정신과 머릿속에 있습니다. 신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슬람의 본질적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비민주적인 이슬람정권은 민주주의가 선택돼 자신들의 정권이 정복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 이슬람은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종교**

이슬람은 실제적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종교입니다. 이슬람의 성경인 <코란>은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코란 109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합니다. "당신의 종교는 당신을 위한 것이고, 나의 종교는 나의 종교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코란 99장에는 "만약 하느님께서 이 땅에 믿음이 있길 원한다면 억지로 종교를 가지라고 강요할 것인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느님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했다면 하나의 종교만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의 선지자인 무하마드는 이 땅에 다양한 종교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슬람 근본 원리는 이것입이다.

**#종교 구실로 인권 억압해선 안돼**

이슬람 정당은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허락하신다면 민주주의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란 과거의 정의를 들어보면 '대다수의 지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많은 독재자들도 다수의 지지에 의해 정권을 잡게 됐습니다. 히틀러도 선거에 의해서 정권을 잡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거에서 이긴 것이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표를 받고 선출된 사람들은 인권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민주주의의 틀이라는 것은 '인권을 관장하는 규칙'입니다.

어떤 정부든 종교를 구실로 해서 사람들, 특히 여자들을 억압해서는 안됩니다. 어떠한 정부도 이데올로기를 구실로 해서 자유에 대한 믿음과 신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자신들의 합법성을 사람들과 인권에 대한 존중에서 찾아야 합니다.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문화적이든, 이데올로기적이든 인정돼서는 안됩니다. 인권에 관련된 원칙은 국제적인 것입니다.

**#종교의 공통점은 모든 이의 행복추구**

어디에서나 한 가지입니다. 서양에서나 동양에서나 차이가 없고 한가지의 원리가 있을 뿐입니다. 또 무슬림이나 기독교인들에게나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양한 종교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 다양한 종교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그 길에 이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살아야할 것인가?' '더 잘 살아야 하는 문제' '사회에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것'. 우리는 이웃사람이 굶어 죽는 것을 보면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나라가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기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이 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종교에서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불교, 힌두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 차이가 없습니다. 다양한 종교들은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뿌리를 살펴보면 차이가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한국도 빨리 통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산가족도 모이길 바랍니다. 항상 평화롭게 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박선주 기자 sunjoo0802@naver.com


**불자정보** 745호 |
TEL 02) 2004-8213(直) 732-1522
FAX 02) 737-0696

**사찰안내**
● 위치 : 울산 중구 유곡동
● 대지 50평, 건평 50평
● 모든 시설 완비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010-9990-5234

**사찰안내**
● 위치 : 부산 서구 8부능선
● 평수: 대지 50평 건평 45평
● 가액: 2억 2천만원
010-4578-8277
010-9998-2926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 부지: 총 1650평,대지 300평
● 건평 100평
● 구조: 법당 요사채 2동 산신각 용신각, 황토벽돌 .
● 요사채 1동은 구들방으로 된 황토 귀틀집임(방 5개)
● 가액: 3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4320-8842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중구 동성로
● 3층건물 중 3층. 옥상, 인법당.
● 실내전용면적 40평
● 불교대학운영적합 비품일체양도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170만원 시설비 4000만원
011-536-6430

**사찰 부지 안내**
● 경관이 수려하고 사찰로 쓰는 매우 양호한 명당조건을 갖추었음
● 부지 : 15,000여평
● 위치 : 지리산 악양면 해발 약 500m (옛 사찰터 임)
011-9637-3872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천안시 성정동 쌍용대로변 4층 건물 중 3층 전체
● 평수 : 70평(법당 30평, 방 2)
●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 1천만원, 월 88만원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016-850-1208

**대형포교당(전세및양도)**
● 위치: 경기도 지역 고속터미널 부근 (부천)
● 100만 신도시아파트 상가밀집지역
● 평수: 220평 14층 / 5층
● 법당전체와 모든 방사 고급나무문양인테리어됨
● 법당앞에 2010년 지하철개통,주차장 100대 가능
● 가액: 융자포함 5억 양도 가능 시설비 절충가능
011-707-5552

**포교원안내**
● 위치 : 마산역 시장 내
● 포교원 인수하실 분
● 방2, 삼존불, 탱화모셔져 있음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약간 있음
011-9696-0949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중생구제와 자비실천을 함께하실 스님, 포교사,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정대행 총무원장 월산 혜봉
※ 준비서류 및 서류 발급
◆ 종단 입종신청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 입종하시면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
※ 각 지역별 간부직 소임자를 우선 모십니다. 연락바랍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전화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혜봉스님 직통 011-545-5060

**테이프로 공부하는 四柱 특강**
四柱는 감정(鑑定)이 기본이요 핵심이다. 감정의 원리와 요령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설명하므로 강의를 들을수록 실감이 날 것이다. 역학(易學)은 본래 어려운 학문이 아닌데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고전 命理學者들이 주장하는 格局과 用神 때문이다. 四柱는 단지 陰陽과 五行의 변화법칙일 뿐 用神을 몰라도 정확하게 운명을 감정할 수 있다. 초보에서 최고과정까지 철저히 이해시키는 독특한 강의는 들을 수록 감명과 실감이 날 것이다. 20여 년간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후진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선생의 강의를 듣는 순간 눈이 활짝 열릴 것이다. 10년을 공부해도 用神 잡기가 어려운 命理學을 녹음-테이프로 하루 한 시간씩 2개월이면 완성할 수 있다. 재운이 있느냐 없느냐, 관운은 있느냐 없느냐, 시험은 합격하느냐 못하느냐, 사업운이 있느냐 없느냐, 배우자 덕이 있느냐 없느냐, 해로하느냐 이별하느냐, 궁합은 좋으냐 좋지 않으냐, 교통사고는 어느 달에 생기느냐, 관재 구설수는 언제 일어나느냐, 나에게 맞는 직업은 무엇이냐,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위기의 해와 달은 언제인가? 등을 확실하게 감정할 수 있다. 비록 테이프로 공부하지만 선생님의 강의를 생생하게 직접 듣는 것과 같다. 더욱이 실존했던 有名人士들의 四柱를 상세하게 풀이 하였으므로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현재 대구에서 23기 강의 중. 수강희망자 환영)
◆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면 속달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 테이프와 교재대 포함 : 20만원 (단, 스님 및 포교사는 15만원)
◆ 著者 : 孫中山 (75세)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會長
◆ 계좌번호 : 농협 100080-56-022361 (손선영)
◆ 주문전화 : 053)324-2468 / 326-4585

# 웃음보살 불등거사 <57>

구성 : 김흥인




## 선인(仙人)을 보고 활을 쏜 아버지 <백유경(百喩經)>



옛날 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길을 가게 됐다. 아들은 숲에 들어갔다 곰을 만났고 그만 곰 발톱에 몸이 찢겨 황급히 숲을 나와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버지는 아들의 몸이 몹시 상한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물었다. "너는 어째서 그런 상처를 입었느냐?" 아들은 대답했다. "몸의 털이 긴 어떤 동물이 와서 나를 해쳤습니다." 아버지는 곧 활을 가지고 숲으로 가서 털이 긴 어떤 선인(仙人)을 보고 활을 쏘려 했다. 옆 사람이 물었다. "왜 그를 쏘려 하십니까? 저 사람은 아무 해가 없습니다. 허물이 있으면 다스려야 합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도 그와 같다. 비록 그가 법복을 입고 무도한 자에게 모욕을 당했다 하더라도, 함부로 선량하고 덕이 있는 사람을 해치면 그것은 곰이 그 아들을 해쳤다 해 아버지가 억울한 선인을 해치려 하는 것과 같다.

옛 판화의 세계

## 신인이 땅을 희사하다
## 신인사지(神人捨地)



고판화박물관소장 선씨원류(釋氏源流)중 신인사지(神人捨地) 편 불암사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180mm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마조도일(馬祖道一)이 도깨비가 나타나는 곳에 자리를 잡고 교화를 시작하자 신인이 나타나 땅을 희사해 청정도량을 가꾸게 했으며, 그 이후로는 맹수와 독사들이 길들여지는 장면을 판각한 작품이다. 마조도일(709~788) 스님은 당나라 때 선승으로 혜능 문하의 남악회양의 법을 이었다. 그가 이룬 홍주종(洪州宗)파는 후에 임제종(臨濟宗)으로 발전하게 된다. 평상심이 도요, 마음이 곧 부처라는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 즉심즉불(卽心卽佛)'을 주창했으며 교리 설명을 담은 <어록(語錄)>이 전해진다. 회양 선사께서 회상(會上)을 열어 법을 펴시니, 마조가 와서 신심을 내어 용맹정진 했다. 그런데 마조가 좌선하는 것만을 고집해 자리를 뜨는 법이 없자, 선사께서 마조에게 말을 건네셨다. "수좌는 좌선해 무엇 하려는고?" "부처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자 선사께서는 암자 앞에서 벽돌을 하나 집어와서 마조 옆에서 묵묵히 가시기 시작했다. 마조가 그것을 보고 여쭈었다. "스님, 벽돌은 갈아서 무엇 하시렵니까?" "거울을 만들고자 하네."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들 수 있습니까?"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지 못할진대, 좌선을 한들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를 수레에 매서 수레가 가지 않을 때 수레를 쳐야 옳겠는가, 소를 때려야 옳겠는가?" 마조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선사께서 다시 말씀을 이으셨다. "그대는 좌선(坐禪)을 배우는가, 좌불(坐佛)을 배우는가? 앉아서 참선하는 것을 배운다고 한다면 선은 앉거나 눕는데 있는 것이 아니니 선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앉은 부처를 배운다고 한다면 부처님은 어느 하나의 법이 아니니 자네가 부처님을 잘못 알고 있음이네. 무주법(無住法)에서는 응당 취하거나 버림이 없어야 하네. 그대가 앉은 부처를 구한다면 부처를 죽이는 것이고, 앉은 모습에 집착한다면 선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 것이네." 마조는 여기에서 크게 뉘우치는 바가 있어서 행주좌와(行住坐臥) 가운데서 일여(一如)하게 화두를 참구해 순일(純一)을 이루어서 마침내 크게 깨쳤다. 마조 스님은 이 깨달음을 계기로 선사상의 혁신을 이룩해 조사선을 확립하고 선을 중국에 토착화시켰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 詩가 있는 도량 ▪ 아, 금수강산

이름 하여
금수강산이다
수려하고 장엄하면서도
아기자기한
그 풍광은
다른 어디에서도 보기 어렵다

산과 들을 감싸 안으며
굽이굽이 흐르는 강을 보라
금수강산이다

신의 축복이다
자비다

하많은 세월동안
산하를 따라
만물이 삶의 터전을 이루었다.
그것은 자연이요
평등이며 자유다
신의 모습그대로다
금수강산이다

우리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모든 생령들과 함께 이 땅을 지켜왔다
배달이다
홍익인간이다

단기4342년 8월8일
혜민

–혜민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 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 네 나무를 네 뿌리가 돕지 어느 누가 돕겠느냐

(지난 호에 이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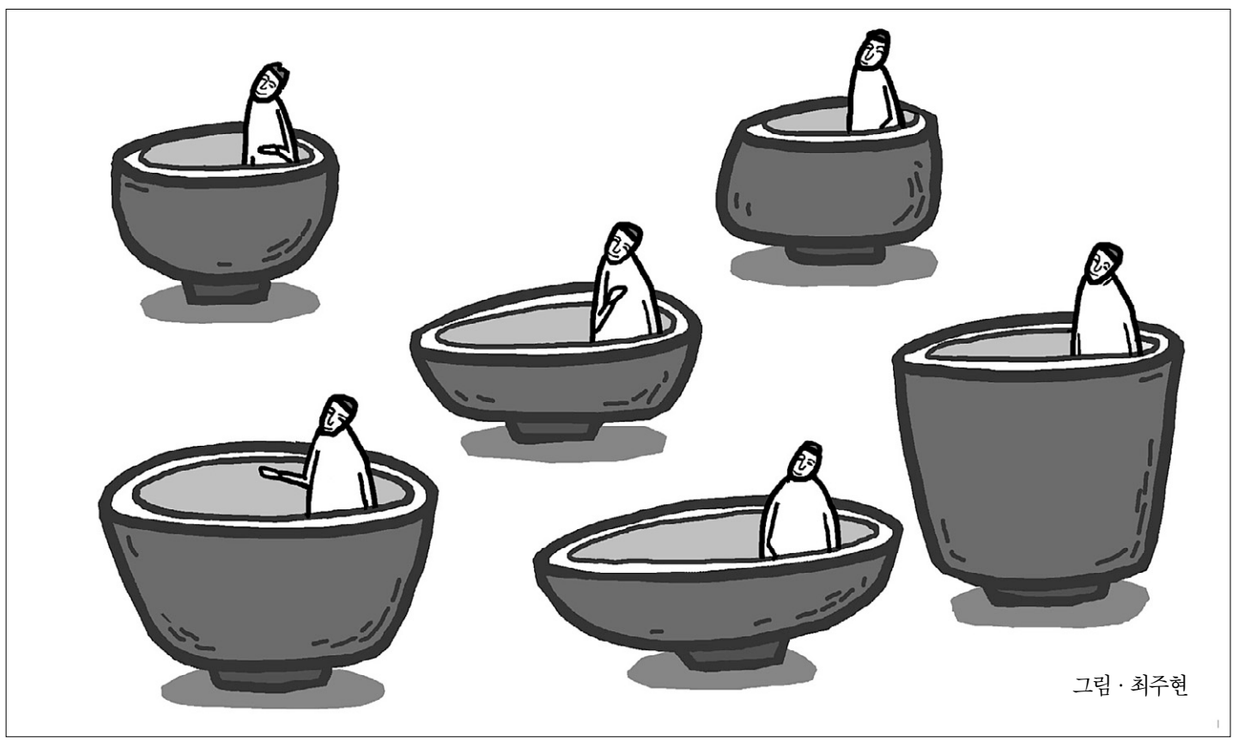
**질문자2(남)**: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 대해서 궁금하게 느껴져 여쭙고자 합니다. 육신이라는 집이 있고 그 집의 주인인 마음이 있고 한데 마음 외에, 또 영혼(靈魂)이 있고 혼백(魂魄)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영(靈)과 혼(魂)과 백(魄)이 그 뜻이 다르다고들 일반적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마음 외에 영과 혼과 백의 활동이나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질문이 혼돈스럽지만 잘 정리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영이라는 거하고 혼백이라는 건 둘이 아닙니다. 혼백이라는 건 옛날 분들이 혼백이라고 했고, 지금 시대 사람들은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혼백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로 보지 마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영혼 자체가 바로 육신과 둘이 아닙니다. 이 육신과 영혼이 있는 데다가 그 불씨 에너지, 원소 자체가 있어서 즉, 작용할 수 있도록 마음을 내 주게 하는 겁니다. 이 영혼이라는 그 자체가 마음속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신이라고도 하고, 악신이라고도 하고 선신이라고도 하죠, 마음을요. 마음을 잘 쓰면 바로 선신이요, 마음을 악하게 쓰면은 악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도 악신으로서 삶을 악하게 살았으면 아주 악의적인 영혼이 되고요, 선의적으로 지혜롭게 대치를 해 나가고 마음을 넓게 잘 쓴 사람들의 마음은 악신이 아니라 선신으로서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마음 한군데서, 이 영혼이 악신도 나오고 선신도 나옵니다. 영혼 자체가 자기 근본은 아닙니다. 영혼은 악신이 될 수도 있고 선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그냥 이름일 뿐입니다, 영혼이라는 이름. 마음을 잘 쓰는 데서 나오는 선신도 영혼이요, 악신도 또 영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그 자체는 바로 자기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혼백이라는 게.

그래서 옛날에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돌아가시면 재를 곱게 쳐서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도환생을 했으면 발자국이 나타난다거나, 독사가 됐으면 독사 흔적이 나온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악행을 한 혼백이라면, 귀신이 머리를 풀어서 산발을 한 모양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양을 보더라도 그렇고,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불씨가 아니라, 그 마음을 내 주는 반면에 마음속에서 나와서 행동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거를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업식' 이러죠.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만 영혼의 업식은 따라간다고요. 자기의 불씨는 항상 밝아서 여여한데 그 업식 영혼이 그냥 얼기설기 얽혀 가지고 업식이 돼서 현실에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림 · 최주현

**질문자2(남)**: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지수화풍으로 돌아가고, 마음은 결국은 신으로 변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큰스님:**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악신도 되고 선신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악신으로서 너무 악하게 했다면 진짜 악신으로 활동을 할 거고, 선신으로서 행했다면 선신으로 활동을 할 겁니다.

**질문자2(남)**: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런데 우리가 공부시키는 거는 악신이고 선신이고 몽땅, 악신이 나오면 악신인 대로 거기다 놓고, 선신이 나오면 선신이 나오는 대로 감사하게 거기 놓고 이렇게 하라는 얘깁니다. 업식이 다 이 몸속에 들어 있으니까 악신으로서 악행을 하게끔 이 마음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악신으로서 행이 나올 때는 '어, 이것도 네가 저지른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해!' 하고 거기다 놓고, '이것도 공부고 재료지.' 하고 거기다 놓고요, 또 잘되고 싱그러운 일이 생기면 '이것도 감사하구나!' 하고 감사하게 거기다가 맡겨 놓고요. '참 감사하구나!' 하는 생각만 해도 맡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음을 그렇게 먹었으면 죽어서도 영혼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건지고자 백종(百種)을 마련해 놓았고 칠석(七夕)을 해 놨죠.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사람이 죽으면 악행을 했든지 선행을 했든지 간에 그 모든 문서를 그냥 해결해 버리고 불씨를, 그냥 여러분이 땅을 갈아서 돌을 주워 내 버리고 골라 놓는다면 이 스님네들은 씨를 거기다가 심어 주는 겁니다. 백종이 그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성껏 부모, 조상 영가들을 써 가지고 오시면 그게 밭을 갈고 밭을 고르는 거나 같은 거죠. 밭을 골라 놓으면, 봉투에다가 모두 이렇게 정성껏 해 가지고 오시는 건 그러한 작업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 밭에다가 불씨를 심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인도환생을 해서 싹이 나죠. 싹이 나는 것이 인도환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인도환생하는 것도 그 자손들이 얼마나 정성껏 잘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잣집으로 태어나느냐 가난한 집으로 태어나느냐 하는 것도 있죠. 또 깡통의 차원이라서 깡통끼리 태어나게 하느냐? 하하하…. 선신이라서 선신끼리 태어나게 하느냐? 가족의 모든 것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을 때는 배우면서 지혜롭게 넘어설 수 있고 업을 면제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잘 생각하고 계속 지극하게 수행해서 자기 무명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죽으면 더하고 덜함도 없기 때문에, 그게 새로이 의복을 다시 갈아입고 나오는 때라 교차로가 되거든요. 교차로에서는 어떻게 자기가 더 배우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하고 덜함이 없죠. 이 몸, 모습이 없으니까 부딪침이 없고, 부딪침이 없으니까 상대가 없고, 상대가 없으니까 배울 게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살아 있을 때 꼭 이 도리를 배워야 된다는 얘깁니다.

**질문자2(남)**: 예. 영혼세계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앞으로도 많이 있고 더 문의할 사항이 많지만 시간 관계로 다음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질문자3(남)**: 저는 몸이 아플 때 우선 약을 생각하고 병원을 찾습니다. 그런데 큰스님께서는 아픔도 주인공에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맡기기 전에 약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인공에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 얘기를 하시니까 웃음이 나는 얘기가 생각납니다. 상원사에 있으면서 실험을 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하루 몇백 명씩 이렇게 달려들었습니다. 산에 개미 행렬처럼 쭈욱 그냥 하얗게 줄을 섰습니다, 하여튼. 그럴 때 나는 토굴 안에서 얼굴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말만 하고 가는 거죠, 그냥.

그런데 말입니다, '약을 먹어라, 먹지 마라' 할 게 없습니다. 그거는 두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무슨, 맡긴다 안 맡긴다도 없을 거란 말입니다. 진정으로 믿는다면, 즉 자기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 몸을 자기가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떡하누?' 하고 그냥 그럴 테죠. 그러면은 그대로 그냥 모두 작용을 해서 고쳐요. 자기가 형성시킨 기계니까 자기가 너무나 잘 알겠죠. 그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인부들이 그 작업장의 기계를 만들어 놓기도 했기 때문에 더 잘 아니까 작업을 해서 빨리 고쳐 내놓죠. 그러나 약을 먹는다 뭘 한다 하면 통신이 되지를 않아요. 통신이 되지를 않아서 캄캄하니까 병원에도 가야 하고…, 남을 믿고 가는 거죠, 뭐.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죠. 만약에 이 도리를 진짜 알고 진짜 믿는다면 병원에 가는 것도 약을 먹는 것도, 밥을 먹는 거나 똑같이 행한다. 그런데 벌써 내가 먹고 싶지 않은 거는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 이만하면 이거는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모두가 받아들이는 거죠. 이거는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각자 여러분 생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생각이 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한 사람에 한해서만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진실해서 약을 먹어도 밥과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만이 모두

☞26면으로 계속

학인 모집

영남범패불음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8기 신입생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 입교일시 : 2009년 9월 17일 〈목요일〉 오후 3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1. 각단 불공 및 재의식 2. 사물다루는 법 3. 바라 및 승무작법
•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수 강 일 : 매주 월, 목요일 오후 3시~6시까지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교육장소 :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이현상가 406호 〈서진주 I C에서 5분거리〉
• 카페안내 :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쳐 보세요
• 문의전화 : 055)747-8419

영남범패불음원

영남불교예술대학 신입생모집

한국 범음범패 전통을 자랑하는 사) 부산어산회의 맥을 이어 종합불교예술로 승화된 영남불교문화예술대학에서 의식교육 3기생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모집학과 및 정원

| 모집학과 | 강 의 내 용 | 요일 | 시 간 | 모집인원 |
|---|---|---|---|---|
| 1.의 식 기초반 | 이론 및 실기 (조석예불 및 불공) | 화 | 2시~5시 야간반7시 | 30명 (6개월) |
| 2.의 식 전문반 | ⊙이론및실기, 사물다루는법 각종사찰행사전문반 ⊙전통예능(범음범패:삼신이운,진언성,복청게,원강도량,운심게,오공양소리,진령게,사다라니,옥건이,실개수공발보리,칭양성호,관욕게,합장게,영산작법소리등,30여곡) | 목 | 2시~5시 | 20명 |
| 3.작법무반 | 바라,나비,사찰학춤 | 금 | 2시~4시 | 30명 |
| 4.곡악기반 | 태평소,단소,대금 (영산회상,청성곡등) | 금 | 4시~6시 | 30명 |

◆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159-1 백화도량 관음사내 영남불교예술대학
◆ 접수 연락처(교학처) : 051)327-5095 / 010-2314-1279
◇ 기숙승방 운영(선착순 우선):단기 수련 후 심사 거쳐 이수증 발급
◇ 성적우수한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우선추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보존회 부설
嶺南佛敎藝術大學
Young Nam Buddhism College of arts

★ 각종 사찰행사 전문으로 하는 스님 전국에 배정되어 여법하게 집전해 드립니다.
마음의 힘이 모이면 어두운 길에 환한 등불이 됩니다.
(보시금중 일부는 어려운 불자 자녀들의 장학기금에 쓰입니다)
010-2314-1279 , 051)327-5095

한방(韓方)치료로
간경화, 간질
갑상선항진증, 결핵성 임파선염
백납, 뇌수종
산후풍, 수족냉증
불임, 갱년기(울화)병
한솔한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423-중-5041호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buddhanews.com

# 살아 있을 때 이 마음도리를 꼭 배워야

☞25면에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약을 먹어도 먹는 사이 없이 먹고, 이 소립니다. 일을 해도 하는 사이 없이 일을 하고, 소를 한 마리 잡아먹어도 잡아먹은 사이가 없이 잡아먹고, 이럴 줄 알아야 소 무명을 거둘 줄 알고 소를 환토를 시켜서 인간으로 화하게 만들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게 약만 찾는다고 한다면 물질로다가 치우쳐 올라가니까 안 되는 거죠. 아이, 생각을 해 보세요. 형성시킨 것도 안에서 형성시켰고, 지금 작용을 하고 나가는 것도 안에서 작용을 하고 나가고 나를 움죽거리게 하는데, 한쪽만 굳어져도 육신이 쓰러지고 송장이 되는데 딴 데로 자꾸 마음을 둬 보세요, 어떤가?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해 놓고 약을 먹고 이래도 못 믿으니까 통신이 되질 않는 때가 많은데….

약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약이 약이 아니고 그냥 영양으로써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밥도 약이 아닙니까? 밥을 약이라고 안 먹습니까? 밥은 항상 먹는 거니까 그냥 그저 밥이다 하고는 약이란 소리는 안 하죠. 영. 그런데 그것도 약이에요. 먹어야 사니까요. 물도 약이고 모두가 약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약이 아니고 이거는 약입니까? 내가 몸에 좋아서 먹는다면 바로 그것도 약 아닌 약이죠. 그게 얼마나 마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건데 마음으로, '아이구, 내가 약을 먹으면 안 낫겠지. 약을 먹으면 뭐 더하겠지. 무슨 이거를 이럭하면 안 되지, 되지.' 그냥 논란이 벌어지면서….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이건 떼려야 뗄 수 없는 주인공 자기 뿌리예요. 잘되든지 못되든지, 안된다 된다를 떠나서 이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뿌리예요. 자기 영원한 뿌리, 불씨 말입니다. '나는 주인공을 찾아도 안되더라.' 이런 사람은 벌써 그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형성된 자체가 바로 주인공 때문이 아닙니까? 소가 있으니까 달구지가 있듯이 말입니다. 소가 없으면 달구지도 만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질문자3(남)**: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가르침 잘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존 유산 법찰'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한때 부처님이 사부대중을 거느리시고 어느 산을 지나가시다가 한 자리에 앉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가 좋은 명당이니 이곳에 큰 법찰을 하나 지으면 좋을 것 같다." 하시니 제석천왕이 앞에 나타나서 풀 한 포기를 땅에 꽂고는 "법찰이 다 지어졌습니다." 하니 부처님이 빙그레 웃으셨다고 합니다.

웃으신 뜻이 무엇인지 또 제석천왕은 무슨 뜻으로 땅에 풀 한 포기를 꽂았는지 가르침 주시길 바랍니다. 그 제석천왕의 법거량이 벽지불의 경지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경지인지, 저희들이 공부하는 데에 도움이 되게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부처님이 여기다 절을 짓겠다 한 것도 그놈이 한 것이고, 제석천왕이 풀 한 포기 꽂은 것도 그놈이요, 사찰을 지은 것도 바로 그놈이요, 웃은 것도 그놈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벌써 이 풀 한 포기 딱 꽂을 때는…, 뭐라고 그랬죠? 뭐가 뭘 꽂았다고 그랬죠?

**질문자3(남)**: 풀 한 포기를 땅에 꽂고는 '범찰이 다 지어졌습니다.'

**큰스님:** 아니요. 그 꽂기 전에 이름 말입니다.

**질문자3(남)**: 아, 제석천왕이….

**큰스님:** 예, 제석천왕! 입에서 나오면서도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제석천왕이라는 것은, 내 비유를 하겠는데, 그러면 선생님 몸 안에 선생님이 많이 들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이 제석천왕이 아닙니까? 혼자 사찰을 짓는 게 아니죠? 사과 하나를 잡숴도 혼자 먹지 않죠? 여러 명이 먹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석천왕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체제불의 마음, 그 일체 중생의 마음이 한데 합쳐진 거를 제석천왕이라고 합니다. 천왕이거든요. 이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풀 한 포기 딱 꽂았느니라.' 하는 건 생각을 딱 거기다가 집중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음이 집중을 한 거죠. 한마음이 집중을 하니까 그 사찰이 그대로 지어졌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빙긋이 웃었다. 바로 그놈이 그 놈이요, 그놈이 한 거니까 그냥 웃는 게 대답이죠, 뭐. 그러니까 혼자 웃은 게 아니죠, 또 그것도.

아, 여러분! 말이 났으니 말이지 지금 끄떡끄떡하는 것도 혼자 끄떡거리십니까? 하하하…. 아니, 혼자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혼자 먹는 것도 없고, 혼자 입는 것도 없고, 혼자 사는 것도 없고, 혼자 일하는 것도 없고, 혼자 사랑하는 것도 없고 전부 헤아릴 수 없는 자기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자기가 그렇게 나투기 때문에 아버지로도 나투고, 또 남편으로도 나투고, 또 형으로도 나투고, 아들로도 나투고, 사위로도 나투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투는데 한 몸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 얼굴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처님 얼굴을 한 몸에다가 수없이 해 놨죠. 손으로 천차만별의 일을 다 하죠. 손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거 할 때 내 손이 했다고 할 수 없으리만큼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에 있는 나도 얼마나 많습니까? 수억겁 광년을 내려오면서 미생물에서부터 이 인간으로 화했다는 걸 알고 싶으면 내 속을 들여다봐라 이겁니다. 증명서가 바로 여러분 몸 안에 있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그 도리를 넓히면서 알면서 이렇게 해야 어디 가든지 서슴없이 팍 쪼개서 맛을 보고 먹고, '아! 참 맛 좋고 시원하다.' 이렇게 먹을 수 있고, 그렇게 먹고도 그 씨는 되남아서 이듬해 또 먹어요. 그러니 아주 영원토록 먹는 거죠. 이 도리가 얼마나 광대하고 묘하고 영원한지 모를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요, 이 정신세계의 마음을 못 배우면요, 영혼이 죽어서 말입니다, 죽어서 아휴! 자기 몸체가 있는 줄 알아요. 옷을 벗었어도 벗은 걸로 알지 못한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못 가고, 불에 타 죽을까 봐 못 가고, 또 귀신들 많고 짐승들이 많은 데는 잡아먹힐까 봐 못 가고 이렇게 넘어서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했고, 부처님께서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저 언덕을 넘어서야 하느니라.' 하셨죠. 그러니까 삼독을 어디서 빼내느냐? 그 모두, 지금 내가 작업하라는 대로 그렇게 관하시고 모든 걸 용광로에 넣듯이 거기다 놓으시면 바로 삼독이 무너지는 겁니다. 삼독이 무너지면 그대로 부처요, 그대로 법신이요, 그대로 화신이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소를 하나 건진다, 무명을 벗겨 준다 하더라도 그냥 소의 마음을 나와 둘이 아니게 딱 한데 합치면 (양 손바닥을 서로 붙여 보이시고) 두드러지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형체가 없는 거니까 두드러지지 않고 그냥 나로 돼 버리는 거죠. 나의 그 속을 거쳐서 바로 탄생이 된다 하면요, 꺼내도 줄지도 않고 넣어도 두드러지지도 않는 격이죠, 체가 없는 거니까요.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드려서 될까 모르겠네요. 허허허….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바로 나고 드는 것이 없죠. 나고 드는 게 없이 내 마음이 항상 물질세계와 정신세계가 합류화돼 가지고 돌아가는 게 사무사유(四無四有)를 한데 합쳐서 중용을 한다는 격이 되죠.

그러니까 그대로 앉아서 소의 무명을 벗겨 줘도 아프지도 않고 그냥 금방 죽어요. 그리고 죽으면 껍데기가 없어지는 거죠. 무명이 벗겨지고, 그 영혼은 내가 돼 가지고 바로 환생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즉시에 무명이 벗겨지는 거죠. 어떤 때는 지나가다가 도살장에 가는 소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에 그냥 그렇게 해 줘요. 그러면 소의 머리를 방망이로 쳐도 아픈 걸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무명을 벗어요. 돼지든지 닭이든지 모두가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인연들을 맺으세요. 악한 인연을 맺지 말고 좋은 인연과 선덕을 쌓아서 바로 선의 씨로서 이 세상을 두루 한다면 내가 고달플 때 모두 같이 해 주고 모두 같이 들어 줄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자3(남)**: 감사합니다, 스님. 『한마음 요전』에 보면 '한마음 주인공'에 삼합이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의 불씨와 육신과 마음', 그리고 '내가 들어가고 나온 자리를 모르고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는 소와 달구지, 마부, 달구지를 탄 사람의 비유와 흡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소와 달구지와 마부 삼합을 비유를 하셨습니다. 소와 달구지, 달구지와 달구지를 탄 사람, 달구지를 탄 사람과 소, 이 모두를 한 생명으로 묶어 보아야 옳은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이해가 안되는 저 같은 사람도 알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불씨는 우리 원소의 에너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불씨는 마음을 내게 할 수 있는 활동력이 있죠. 전자와 전자가 한데 합치면 불이 들어오듯이, 그렇게 불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바탕이 바로 원소 자체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를 불씨라고 합시다. 불씨가 없으면 마음을 낼 수 없고 마음을 낼 수 없다면 육체가 움죽거리지 않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삼합이 동일하게 하나가 돼서 지금 움죽거리고 말을 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바로 소를 타고 피리를 분다 이 소리나 똑같습니다. 지금 소를 타고 달구지를 끌고 다닙니다. 즉 말하자면 마부는 마음이요 바로 육신은 달구지요 소는 자기의 주인공, 바로 자기 조상입니다. 과거에 살던 자기, 현실에 사는 자기! 현실에 사는 자기는 달구지요 과거에 살던 자기는 바로 소입니다.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마부는 그 소를 쳐야지 달구지를 잘 끌고 가지 않느냐. 달구지에다가 모든 걸 다 실었는데 어떻게 달구지를 치느냐? 지금 기복으로 나가는 게 달구지를 치는 법이요, 바로 지금 마음법을 가르치는 게 소를 치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삼합이 같이 동일하게 지금 움죽거리고 가는 것을 바로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공, '나'이면서도 내가 공(空)해서 쉴 사이 없이 돌아가면서 화해서 돌아간다, 이런 뜻으로써 주인공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소는 과거 자기, 달구지는 현실 자기, 마부는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으로써 그냥 무조건, 달구지가 깨지든지 말든지 그냥 치는 마음이냐, 잘 다스려서 잘 이끌어 가는 지혜로운 다스림이냐 이런 게 있죠. 마부는 마음이니 마음으로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달구지를 치느냐 소를 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렇게 바깥으로 빌어야겠습니까? '네 뿌리가 네 나무를 둡지 어느 누구가 둡겠느냐.' 하고 안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바깥으로 지금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으로 찾는 건 제 뿌리를 제가 찾는 것이요, 바깥으로 찾는 거는 남의 뿌리의 이름을 부르는 거나 똑같죠. 대답을 엉뚱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말입니다. 하하하….

**질문자3(남)**: 아닙니다. 잘 들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만 영혼의 업식은 따라갑니다**
**그 영혼을 건지고자 백종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위 법문은 1993년 9월 5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 대 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3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서비스] 검색 →
114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스님!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단돈 70만원에 법당의 오래된 엠프
마이크 소리를 "확" 바꿔드립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앰프+마이크,스피커+마이크 등의 교체 및 재 셋팅〕

예약접수기간 : 2009년 6월 ~ 8월 31일까지
(예약순으로 일주일에 법당 2곳만 설치해 드림)
해 당 지 역 : 서울, 경기, 충청, 강원 일부 지역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高音質 무선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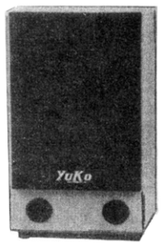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스피커


◇가격 : 500,000원(설치비 포함)

◗일반 마이크 V-606L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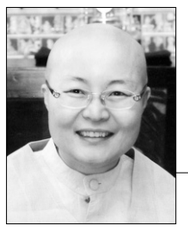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고성능 탁상 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불자 세상보기

동휘 스님
해피만다라문화원 원장

# 행복을 익히는 가을을 맞자

지금 행복하세요?

갑자기 질문을 던지면 거의 대개의 사람들이 머뭇거립니다. 왜 머뭇거리게 될까요?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행복하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는 행복이건만, 행복하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곧바로 '그렇다'고 답하지 못한다면 이미 '불행' 아닐까요?

행복을 상징하는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랑새를 찾아 떠난 사람의 이야기 말입니다. 절집에서는 옛날 한 비구니 스님이 쓴 시가 유명합니다. 봄을 찾아 이산 저산 헤매다 돌아와 보니 뜰 안 매화 가지에 봄이 활짝 피어 있더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서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제발 부탁 하건데, 행복을 찾지도 말고 찾아 헤매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찾으면 찾을수록 숨어 버리고, 헤매면 헤맬수록 멀어지는 것이 행복입니다. 돈을 좇아가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있듯, 행복도 좇아 가면 그만큼 도망쳐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는 것이 욕심이거든요. 행복해지고 싶다는 욕심은 반드시 뭔가 행동을 하게 만들고 그 행동은 또 다른 행동과 얽히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착한 생각도 하지 말고 악한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착한 것은 악한 것과 짝지어진 개념이고 악한 것 또한 착한 것과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착하고 악한 것을 다 떠나야 궁극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는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행복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요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가장 고요하다면 이미 최고의 행복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고요한 마음, 파도가 일지 않는 거울 같은 마음자리가 바로 행복한 자리입니다. 그것을 <화엄경>에서는 해인삼매(海印三昧)라 합니다. 파도가 일지 않고 고요한 수면에 세상의 온갖 것이 비치어도 그대로 비치기만 할 뿐입니다. 산이 비친다고 물결이 일그러지는 것도 아니고 해와 달이 비친다고 덥거나 차가와 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비치는 것은 비치는 대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런 절대고요의 자리에 담겨지는 모든 것이 행복한 만다라 세상입니다. 차별이 없고 분별이 없으며 따지고 감추거나 위장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고요에서 환하게 밝아 오는 그 무엇이 바로 행복입니다.

재물이나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의 행복은 잠시 파도가 멈춘 동안의 즐거움일 뿐 행복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 다시 파도가 일렁거리고 그 물결을 따라 온갖 번뇌 망상이 넘실대는 것이 중생심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대로 반응하지 말고 좀 더 깊이 사유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안쪽을 고요하게 하면 안팎이 동시에 행복해 집니다.

세상이 험난하다고 말 하지만 사실 세상은 험한 곳이 아닙니다. 불교가 흔탁해진다고 염려하지만 불교는 흔탁한 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이라 말하지만 깨끗한 물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연꽃입니다.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 누구나 행복해 집니다. 본질은 헐떡거림 없이 고요할 때 가장 큰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이제 가을이 올 것입니다. 안으로 육즙을 익히는 과일처럼 내면의 살림살이를 고요히 가꾸는 가을이 되길 기원합니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社說

### 태고종은 화합협력하라

태고종의 내홍이 기어이 폭발하고 말았다. 11일 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사퇴 처리 됐고 종무인수위원회가 구성됐다. 태고종은 수년전부터 집행부와 종단 내 승가단체인 '보우승가회'의 불협화음이 수위를 높여 왔다. 그런 동안 태고종은 종단 발전을 위한 내적 역량을 쌓을 수 없었고 외적 성장도 기대할 수 없었다.

우리는 여러 종단의 갈등과 내홍을 지켜봤다. 지금도 태고종 뿐 아니라 몇몇 종단이 종도간의 고소고발 사건에 휘말려 있다. 종단의 내홍이 최종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곳은 종단이다. 집안싸움이 크면 클수록 그 집안이 불행해진다.

지금 한국불교는 다양한 도전을 받고 있다. 어느 종단이 됐건 종단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단합이 최우선 과제다. 종단이 화합하지 못하면 종조가 아무리 훌륭하고 소의경전이 아무리 반듯해도 종단은 일어설 수 없다.

한국불교 태고종은 조계종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종단이다. 불교문화의 전통 계승과 발전에 많은 장점과 가능성을 가진 종단이다. 이런 종단이 내부화합을 못하여 사회적인 존경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성장동력을 유실한다면 한국불교의 희망도 그만큼 위축되는 것이다. 태고종의 원로였던 충담 스님의 소신공양 발원에는 '종단화합'이 들어 있다. 태고종이 위법망구의 큰 가르침을 남기신 어른을 배신하는 종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진관사서 발견된 독립운동 사료

진관사에서 최근 발견된 백초월 스님의 유품들이 화제다. 광복 64주년을 앞두고 발견된 사료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 불교계에서 주목하는 사료의 역사적 가치는 당시 불교계가 독립운동에 아주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는데 있다.

이미 많은 자료들이 이런 사실을 입증했고 만해 스님이 독립선언서 작업에 동참 한 일 등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불교계의 역사가 사료를 통해 입증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진관사는 앞으로 이번에 발견된 사료들의 가치를 규명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부는 문화재적 가치도 있을 것인 만큼 관계기관과 연구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도 주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짚어봐야 할 것이 있다. 오늘의 한국불교는 대사회적 역할에 있어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문제다. 스님들이 독립운동에 뛰어 든 것은, 그것이 당시 조국과 민족을 위해 해야 할 가장 큰 화두였기 때문이다.

승려로서 보살정신을 발휘해야 할 때 가장 뜨겁게 발휘한 것이다. 요즘의 수행자들은 개방된 세상의 열린 문화공간에 쉽게 동화되지 않는지, 보살정신의 구현을 위해 자신보다 중생을 먼저 살피고 있는지, 초발심을 지키며 하심으로 살고 있는지 등을 궁구해 볼 때다. 오늘의 불자들은 진관사에서 발견된 독립운동 사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할 것이다.

현불만평 박구원




지성이면…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 '팔정도 생활화' 병고 막는다

### 8월의 테마-질병

'나의 것', '내 것'이라는 표현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내 것'은 맞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일 것이다. 내 몸이 정말 내 소유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것'이라면 아프길 싫어하는 나는 아파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병이라는 존재는 내가 싫어하고 미워해도 어느 순간 내 몸을 침범해 아프게 하고 괴롭힌다. 왜 우리는 병에 걸리는 걸까?

가비라위국의 태자 고타마 싯다르타가 출가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였다.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 해소는 인간사의 큰 숙제로 의료와 위생 수준이 발달된 오늘날에도 질병을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질병의 징후에만 주목하던 지난날의 의학과 달리 현대의학은 스트레스, 사회, 가족, 식생활, 신념, 감정 등이 질병과 관련해서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 강력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만성적인 스트레스 등 심리적 갈등을 경험한 뒤 발병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궤양, 고혈압, 심장병, 두통, 암 등 병과 전염병, 요통, 또는 사고 같은 일들이 증가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암발생률이 스트레스를 가한 동물이 가하지 않은 동물보다 더욱 높다는 사실을 실증한 사무N)(Samudzhen)의 실험, 스트레스에 의한 질병을 뒷받침하는 워싱톤 의과대학의 토마스 홈즈(Thoma H. Holms)박사의 연구 등 많은 실험과 연구결과들이 이를 실증하고 있다.

1980년대 의학계의 혁명가로 불리우는 칼 사이몬트와 그의 연구자들은 가짜 약이라도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낫는다는 의사의 말에 실제 치료효과를 보는 '프라세보 효과(Placebo effect)'와 이와 반대로 아무 작용이 없는 물질을 주고 이것이 두통을 일으키는 약이라고 말했을 때 환자가 실제 두통을 느끼는 '노세보 효과(Nocebo effect)'등 환자의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 실제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음을 여러 임상을 통해 밝혔다.

즉 칼 사이몬트 등에 의하면 결국 병의 원인은 마음에서 비롯 된다는 것이다. 현대 의학자인 칼 사이몬트 등이 주목한 마음에 대해서는 661년 신라시대 당나라로 유학 가는 길에 해골에 고인 물을 먹고 '모든 것이 마음이 지어내는 것(一體唯心造)'임을 깨달은 원효 스님의 경험과 전혀 다르지 않다. 현대 의학자들이 주목한 심리적인 측면에 대해 불교에서는 이미 수 천 년 전에 이를 알고 실천해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현대 암 등 질병의 원인이 극심한 심리적 갈등, 즉 마음에서 비롯된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불교에서 제시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팔정도이다. 바른 견해(正見), 바른 사유(正思惟), 바른 말(正語), 바른 행위(正業), 바른 생활(正命), 바른 노력(正精進), 바른 마음 챙김(正念), 바른 선정(正定) 등을 바탕으로 올바른 가정생활과 직업생활을 실천하고 노력해야한다. 그러면 몸 스스로가 스트레스 등 심리적 갈등에서 벗어나게 되고 주변이 더불어 밝아지게 되어 병고가 감히 침입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염석훈
前 국회 정책보좌관




#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0,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치아로 인한고통은 없으실거예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 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회 特許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 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 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윤택을 내며 하얀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 02) 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 탑비는 홀로 마당 지키고 부도밭엔 모조품이 주인 노릇



⑲ 비로사, 빛의 도량 빛의 역사







조각을 이어 맞춘 진공대사보법탑비와 적광전 앞의 석탑. 비로사 지표조사에서 발굴해낸 석재들.

## 의상 창건 대찰의 면모 전란 때마다 화마로 훼손

### 보법탑비 뒷면 '진공 대사 유계' 오늘날 불자들에게 간절한 가르침

### "옳지 않은 일은 불구덩이 피하듯 행하지 말라"

모든 대중들에게 당부하노니 나는 지금 이미 해가 서산에 드리운 것과 같이 죽음직전에 있으므로 살아 있을 날이 수일지내(數日之內)에 있다. 이른 서리가 봄 꽃을 침위(侵萎)시키는 것을 아쉬워하지도 않거늘 어찌 가을의 황엽이 청계에 떨어지는 것을 근심하랴. 이는 본분납승의 사체(事體)이다. <중략>

소소한 일로 권속간의 인정에 얽혀 동분서주해 부질없이 세월을 보내지 말고, 각기 스스로 잘 호지해 취의(毳衣)와 철발(綴鉢)로 가는 곳마다 수행에만 전념하라. 종상기래(從上已來)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풍(門風)에 누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남북지중에서 이 소백산에 주석한 7~8년 동안 시방의 납자가 본광을 찾고 본색을 탐구하면서 어언 여러 해를 지나게 됐다. 분(分)을 따라 정진해 때를 쫓고 세상을 수순하되 특별한 궤칙은 두지 말고, 평범한 진리를 따르도록 하라. 또 방탕하거나 안일하지 말 것이며, 동량이 되려는 원력 또한 잊지 마라. 옳지 않은 일은 불구덩이를 피하듯 처음부터 행하지 말라.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간에 항상 조심해 여법하게 수행토록 하라. 내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려 하니, 세상(世相)의 뜻으로써 속되게 애통해 하거나 허둥지둥 하지 마라. 금생이 이미 다하였으니, 내내(來來) 세세(世世)에는 다 같이 부처님 법석에서 만나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장마전선은 소멸됐어도 태풍이 몰고 오는 바람과 비 소식에는 모종의 두려움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나 날씨는 연일 찜통더위입니다. 먼 바다에서는 바람이 불고 내륙에서는 불볕더위인데,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이야말로 자연입니다. 산은 높아서 좋고 계곡은 깊어서 좋고 들은 넓어서 좋은 것입니다.

책을 뒤지다가 신라말 고려초를 풍미했던 '진공대사보법탑비(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호)'의 비문에 눈이 꽂힙니다. 본문이 아니라 비석의 뒷면에 따로 새겨진 글에서 소백산 깊은 계곡의 서늘한 바람을 느낍니다. 대개의 비들은 뒷면에 문도 등의 명단이 들어가는데 진공 대사(眞空, 855~937)의 보법탑비(普法塔碑)의 뒷면에는 '소백산대사(小伯山大師) 임천화지시(臨遷化之時) 유계(遺誡)'란 제목의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진공 대사가 입적 직전에 후학들을 위해 남긴 유언을 챙겨 넣은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고승이 후학을 아끼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마침, 하안거 해제일이 지나고 운수들이 만행을 떠난 시간입니다. 진공 대사의 유훈을 읽으며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마음 닦는 사람이 견지해야 할 덕목은 시간과 공간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수행에만 전념하라' '평범한 진리를 따르도록 하라' '옳지 않은 일은 불구덩이를 피하듯 처음부터 행하지 말라'는 대목은 뼈에 새겨야 할 금언들로 다가 옵니다.

지금, 불교계는 다양한 변화의 고갯길을 넘고 있습니다. 최근 반세기 동안 한국의 불교계는 현대사회의 문화와 정신을 견인하는 종교적 역량을 갖추는데 동작이 굼떴던 것이 사실입니다. 급작스럽게 변화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검토할 여지도 없이 세상의 변화를 관망하는 입장에 서 버렸던 것입니다. 거기에 속출하는 내부 분열은 종파의 분화와 갈등, 체제의 혼란으로 이어지며 과거와 현재의 시간 어디에도 발을 딛지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에서도 마땅한 공간 확보를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외래 종교와 신흥종교의 성장을 멀찍게 지켜본 것은 두 말 할 나위도 없습니다.



2008년 7월 동양대 박물관이 발견한 '보법탑비' 조각

한국불교는 지금 진정으로 마음을 낮추고 지난 반세기의 자화상을 들여다 볼 때입니다. 그리고 참회할 것과 선양할 것, 풀어야 할 갈등과 화해해야 할 반목, 되찾아야 할 자존감과 자생력 등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공 대사의 유계는 오늘의 한국불교 상황을 1100여 년 전에 예견한 듯 숙연하고 서늘합니다.

비로사 가는 길,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숲은 여름답게 푸르고 못 또한 장마 끝의 풍경으로 찰랑거립니다. 밭의 곡식들은 얼굴을 붉히며 익어가고 매미 울음은 요란합니다. 야영 하는 피서객들은 얼굴이 밝고 개울물은 한 찰나도 머물지 않고 우당탕탕 길을 재촉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상 대사가 창건한 대찰의 풍모는 온데간데없고, 전란 때마다 화마에 스러져 긴 시간 폐허로 엎드려 있던 비로사는 진공 대사의 간절한 마음을 새긴 비석 하나가 우뚝 서 있음으로 그 사라지지 않는 빛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제 일을 하듯 비로사도 소백산의 푸른 발목쯤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보듬고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비로사를 보면, 지난 한 세기 혹은 지난 500년(조선시대)의 불교를 볼 수 있습니다. 진공 대사의 유계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간절한 말씀으로 거기 새겨져 있는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말쑥하게 단장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아직 송진 내음이 생생하게 묻어나는 요사와 종루를 만날 수 있고 그 왼쪽 모퉁이에 푹 꺼진 듯 한 자리에 '보법탑비'가 서 있습니다. 한 때 고추밭이었던 절 마당에는 새로운 흙이 깔리고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는 동안 탑비의 자리는 새롭게 조성되는 땅에 비해 낮아져 버렸으니 새 것이 흥하면서 옛것이 초라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탑비의 서체는 아주 단아합니다. 진공 대사가 입적하자 고려 태조가 아쉬움을 견디지 못해 어명으로 보법탑과 탑비를 세우게 한 것입니다. 비문은 고운 최치원의 사촌동생인 최언위가 지었습니다. 진공 대사는 신라의 왕계를 타고 났으나 일찍 출가해 가야산에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탑비의 몸체는 망실된 부분을 다른 돌로 끼워 맞추었고 그 이음새가 투박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탑비의 글자들은 마모가 심해 판독이 어려운데 <한국금석전문> 등의 사료에 그 내용이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풍기에 위치한 동양대학 박물관이 비로사 인근 계곡에서 진공 대사의 탑비 조각을 발견했는데 182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몸체에서 이탈해 구석진 곳에 버려졌던 탑비의 조각이 제 몸을 찾아갈 날이 올지 궁금합니다.

비로사는 방치된 역사를 새롭게 고증하고 읽고 해석해 새로운 옷으로 단장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보법탑비 앞에 도열된 수북한 석재 부재들이 그러한 비로사의 현황을 말없이 일깨워 줍니다.

적광전 앞의 탑도 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느 토막은 부도의 탑신이나 중대석 쯤으로 보이고 어느 토막은 탑신이긴 하지만 조화를 잃었습니다. 그렇게 있는 대로 쌓아 올린 탑은 그 부자연스러움으로 인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로사가 새로움을 갈구하는 시절인연을 만들어 가는 동안 그 탑은 탑대로 한 시대의 역사를 갈무리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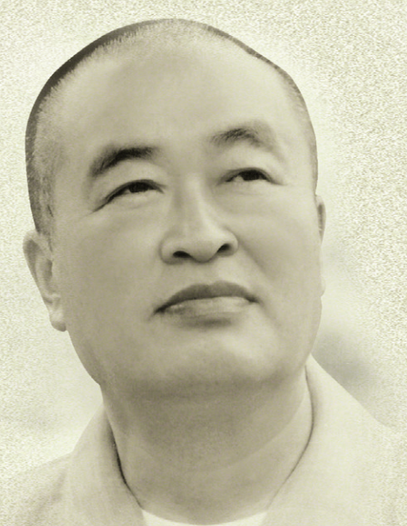
절의 오른쪽 후미에서 아쉬움의 극치를 만납니다. 멀리서 보면 그럴듯한 팔각원당형의 부도가 대오당 스님의 부도탑과 비석을 앞세우고 서 있습니다. 제법 솜씨를 낸 탑의 모양이어서 찬찬히 들여다보게 되는데 양식은 팔각당을 따랐지만 조각은 오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런 명문도 없는 이 부도탑이 바로 진공 대사보법탑의 모조품입니다. 50여 년 전에 진짜 보법탑을 잃어 버렸는데 그때 모조품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절 마당의 탑을 훔쳐가면서 모조품을 세우는 도둑이 있다니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보법탑은 어느 재벌의 정원이나 실력자의 후원에 장식물로 서 있을 것입니다. 절 안의 탑은 도토리 주워 가듯 훔쳐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모조품까지 세운 도둑질이 어떤 의미인지는 삼척동자도 알 것입니다.

비로사는 이제 새로운 시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지 성공 스님이 차근차근 이뤄가는 불사는 잃어버린 시간과 잃어버린 역사를 새로운 시대의 시간과 역사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그 불사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진공 대사의 유계를 실천하는 청정한 마음입니다. 승과 속을 막론하고 수행에만 전념하고, 평법을 귀하게 여기고, 옳은 일만 행하는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알뜰한 수행의 시대가 오지 않고서는 우리는 더 많은 상실과 더 많은 도난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장구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비로사. 오늘도 탑을 잃어버린 비석은 온 몸의 상처를 그대로 드러낸 채 마당가에 서 있습니다. 꽃피면 봄이 온 줄 알고 잎이 무성하면 여름인줄 알고 잎 지면 가을이고 눈 내리면 겨울인 줄 알면서 침묵의 설법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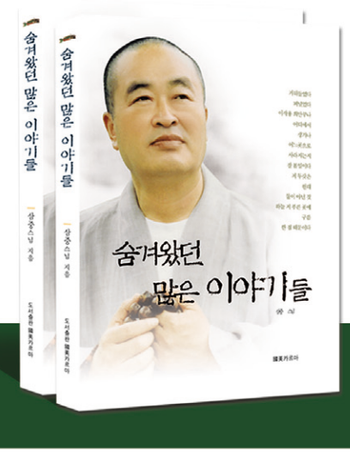
만물은 제자리를 지킬 때 그 귀함이 드러납니다. 비로사의 여러 석물들이 하루 속히 제자리를 찾아 그 찬연한 역사적 가치를 드러내길 기원합니다. 잃어버린 보법탑이 돌아온다면 더 큰 경사가 없겠지만, 모조품으로 자리를 채운 후안무치가 더 무섭습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숨겨왔던 많은 이야기들

박삼중 스님 지음



삼중큰스님 강연회에 참석하셨던 유연불자 3,000분께는 출간기념으로 큰스님의 영험한 소지용 휘필부적을 드립니다.
신청접수 080-712-0002 (선착순 3,000명)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일생을 바치며, 평생동안, 사랑의 나눔을 강조해 온 삼중큰스님!
많은 사형수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고통을 함께하고, 남들이 꺼리는 궂은 일을 온 몸으로 실천해 온 삼중큰스님의 이타행은 많은 불교인들의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노인은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나를 찾아오는 것까지가 그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운명에 맡겨버렸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남은 돈으로 수박이나 사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정도였던 셈이다.
삶은 그러나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노인 역시 그런 삶의 실상을 탓하지도 않았다. 따지고 보면 다른 사람들의 삶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알다시피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도 때가 되면 죽는다.
지인들에게 둘러싸여 여유 있는 죽음을 맞는 사람도 다를 바가 없다. 어차피 죽으면 육체는 비슷한 과정을 밟기 마련이다. 거기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다 부질없는 일이다.
그러나 노인은 말년의 마음 씀씀이로 박복한 삶의 빚을 다 갚고 떠난 것이다.....  [ 본문 중에서 ]

숨겨왔던 많은 이야기들 | 삼중스님 저 | 335쪽 12,000원
구입신청 (삼중스님 복지관 건립위) : 080-712-0002
이 책의 수익금은 노인복지시설 후원금으로 쓰여집니다.
우체국 : 601161-01-006913 (예금주 : 삼중원)

삼중큰스님께서 처음으로 들려주는
진실한 삶, 인생이야기와 구도자의 이야기를 적은
자전에세이
도서출판 國芙카르마 051)583-9923